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 보고서

2009.9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122-11

2009 정기국회 보고자료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 보고서

2009.9

본 보고서는 「국어기본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어발전기본계획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결과를 수록한 것이며, 「국어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제1장	국어 정책 개요	
	제1절 국어 정책의 개념	3
	1. 개념	3
	2. 국어 정책의 역사	4
	3. 기본 방향	6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8
	1. 국어기본법	8
	2. 국어기본법 시행령	11
	제3절 주요 국어 정책 기관	14
	1. 문화체육관광부	14
	2. 국립국어원	19
	3. 국어심의회	26
	4. 국어책임관	32
	5. 국어문화원	34
제2장	국어 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39
	1. 국민의 기초 문해력	39
	2. 한국어 해외 보급	54
	3. 국어교육	59
	4. 민간 국어 관련 단체	67
	제2절 국외 현황	73
	1. 개요	73
	2. 주요 국가의 언어 정책 내용	75
제3장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87
	1. 2008년	87
	2. 2009년	90
	3. 국정과제	92
	4. 문화비전	97
	제2절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	98
	1. 개요	98

	2. 주요 실적	102
	제3절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	119
	1. 개요	119
	2. 주요 실적	124
	제4절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141
	1. 추진 배경	141
	2. 비전과 추진과제	144
	3. 사업 내용	148
	4. 기대 효과	152
	제5절 세종사업	153
	1. 추진 배경	153
	2. 한글 관련 현안	156
	3. 세종사업 추진 방안	160
	4. 추진 계획	167
	제6절 국어책임관 활동	168
	1. 개요	168
	2. 주요 실적	173
제4장	향후 추진 계획	
	제1절 비전과 목표	181
	제2절 향후 추진 과제	183
	1. 국어 사용 촉진 및 환경 개선	182
	2. 외국어로서 한국어 보급 확대	185
	3. 언어자원 집대성 및 정보화 촉진	187
	4. 국어 관련 정책기반 정비	189
부록		
	1. 국어기본법	195
	2. 국어기본법 시행령	201
	3.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질문지)	213

표 목차

제1장	〈표 1-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	8
	〈표 1-2〉 「국어기본법」 주요 내용	11
	〈표 1-3〉 「국어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14
	〈표 1-4〉 국어민족문화과 세출 예산	15
	〈표 1-5〉 국립국어원 세출 예산	20
	〈표 1-6〉 국어심의회 설치 규정 관련 주요 연혁	27
	〈표 1-7〉 국어심의회회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28
	〈표 1-8〉 국어심의회회의 주요 심의사항	29
	〈표 1-9〉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에 제시된 국어심의회 관련 내용	31
	〈표 1-10〉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	32
	〈표 1-11〉 국어책임관 연혁	33
	〈표 1-12〉 전국 16개 국어문화원 현황	35
	〈표 1-13〉 국어문화원 연혁	36
	〈표 1-14〉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36
제2장	〈표 2-1〉 통계청 실시 문맹률 조사 결과	39
	〈표 2-2〉 국제결혼 건수 및 추이	41
	〈표 2-3〉 다문화가정의 취학 자녀 증가 추이	41
	〈표 2-4〉 시도별 인구 구성비와 표본 할당 결과	42
	〈표 2-5〉 완전 비문해율 조사 결과	43
	〈표 2-6〉 남녀별 비문해율 비교	43
	〈표 2-7〉 문해력 점수 분석	46
	〈표 2-8〉 변인별 문해력 조사 결과	47
	〈표 2-9〉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49
	〈표 2-10〉 신문·TV에 나오는 말 중 곤란을 느끼는 말의 종류 조사 결과	49
	〈표 2-11〉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수 증가 추세	54
	〈표 2-12〉 부처별 한국어 보급 사업 지원 현황	56
	〈표 2-13〉 통계청 학생 통계(2005년)	59
	〈표 2-14〉 교육 단계별 국어교육 영역	60
	〈표 2-15〉 학생의 인쇄매체 접촉시간	63
	〈표 2-16〉 아침독서 시간 여부와 독서량과의 상관성	64
	〈표 2-17〉 국어 관련 단체 통계	67
	〈표 2-18〉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68

	〈표 2-19〉 조사 대상 6개 권역의 14개 주요 국가의 기관명	74
	〈표 2-20〉 14개 주요 국가의 기관별 주요 행사 및 사업 내용	77
	〈표 2-21〉 14개 주요 국가의 기관별 주요 산출(발간)물	78
	〈표 2-22〉 14개 주요 국가의 기관별 핵심과제	80
	〈표 2-23〉 협력 및 교류 관계	81
제3장	〈표 3-1〉 재외문화원의 한국어 강좌 설치 현황('09년 8월 현재)	89
	〈표 3-2〉 세종학당 운영 현황('09년 8월 현재)	89
	〈표 3-3〉 한글 보급기관의 명칭 통합 방안	92
	〈표 3-4〉 가나다 전화 및 누리집 문고 답하기 응답 현황('04~'08년)	95
	〈표 3-5〉 남북 학술회의 개최 현황(1996~2007년)	96
	〈표 3-6〉 문화비전 2012의 우리말 가꾸기 중점 과제	97
	〈표 3-7〉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2001~2008년)	102
	〈표 3-8〉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적	111
	〈표 3-9〉 새터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실적	112
	〈표 3-10〉 점자·수화 체계 개선 지원 실적	112
	〈표 3-11〉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 수	114
	〈표 3-12〉 국어사용 실태조사 추진 실적	115
	〈표 3-13〉 민족생활어 조사 분야 및 지역	116
	〈표 3-14〉 지역어 조사 실적	116
	〈표 3-15〉 국어 기초 자료 말뭉치 장르별 분포	124
	〈표 3-16〉 한민족 언어 정보화의 검색 프로그램	129
	〈표 3-17〉 전문 영역별 구축 말뭉치 및 한영(일) 대비 전문용어 수	130
	〈표 3-18〉 옛한글과 비표준한자의 수집자수와 한자정보 DB 구축 현황	132
	〈표 3-19〉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과 투자 예산	140
	〈표 3-20〉 국내 한국어 보급기관(해외 3개 부처, 국내 5개 부처)	141
	〈표 3-21〉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142
	〈표 3-22〉 통합 브랜드 개발 추진 배경	143
	〈표 3-23〉 지역별 한국어 보급 방안	151
	〈표 3-24〉 주요 국가의 현지인 대상 자국어와 문화 보급시설 개요	156
	〈표 3-25〉 각국의 사전편찬 현황	157
	〈표 3-26〉 한국어 보급기관 분포현황(2008년)	158
	〈표 3-27〉 해외 보급기관 현황	159
	〈표 3-28〉 국내 한국어교육 현황	160
	〈표 3-29〉 어문규범 영향평가 시행 계획	161

〈표 3-30〉 세부 추진 과제와 협조 부처(안)	167
〈표 3-31〉 국어책임관 현황(2008. 12월 현재)	170
〈표 3-32〉 중앙 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현황	170
〈표 3-33〉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현황	172

제1장	[그림 1-1] 문화예술국 조직도	15
	[그림 1-2] 국립국어원 조직도	20
제2장	[그림 2-1] OECD 국가와의 문서 문해 능력 비교	40
	[그림 2-2]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문해율 비교	44
	[그림 2-3]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44
	[그림 2-4]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복수응답)	45
	[그림 2-5]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문해력 조사 결과	48
	[그림 2-6]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 변화 추이	62
	[그림 2-7] 학생의 학기당 평균 독서량 변화 추이	62
	[그림 2-8]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독서량의 관계	65
	[그림 2-9] 6개 권역의 14개 주요 국가	73
	[그림 2-10] 6개 권역 주요 국가 기관의 1년 총예산	82
	[그림 2-11] 6개 권역 주요 국가별 기관의 인력(정규직)	83
제3장	[그림 3-1] 한글 주간 선포식	88
	[그림 3-2] 제4회 한글문화상품아이디어공모전 포스터	90
	[그림 3-3]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	93
	[그림 3-4]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99
	[그림 3-5] ‘한글 맞춤법’ 온라인 강좌	103
	[그림 3-6] 남북 학술대회	110
	[그림 3-7] 세계 언어학자 대회	110
	[그림 3-8]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117
	[그림 3-9] 디지털 한글박물관 누리집	118
	[그림 3-10] 21세기 세종계획의 목적과 목표	120
	[그림 3-11]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구성도	121
	[그림 3-12] 21세기 세종계획 전체 사업 상세도	123
	[그림 3-13] 국가 말뭉치 규모 비교	124
	[그림 3-14] 특수 말뭉치의 구축 현황	125
	[그림 3-15] 세종 전자사전 개발 과정	126
	[그림 3-16] 단순 검색의 예	127
	[그림 3-17] 복합 검색의 예	128
	[그림 3-18] 기존의 Hangul Jamo 영역에 추가된 확장 자모	133

[그림 3-19] Hangeul Jamo Extended-A의 초성 U+A960 ~ U+A97C 영역	134
[그림 3-20] Hangeul Jamo Extended-B의 중성 U+D7B0 ~ U+D7C6 영역과 중성 U+D7CB ~ U+D7FB 영역	134
[그림 3-21] 부수·획수 검색 화면	136
[그림 3-22]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의 서체	138
[그림 3-23] 21세기 세종계획 홈페이지	139
[그림 3-24]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 한국 홈페이지 (www.britishcouncil.org/korea)	142
[그림 3-25] 서울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cis.or.kr)	143
[그림 3-26] 한국어의 세계화 비전과 추진과제	144
[그림 3-27] 한국어보급정책조정협의회 구성도	145
[그림 3-28] U-세종학당 시스템 구성도	150
[그림 3-29] '세종학당' 통합브랜드 단계별 홍보 전략	152
[그림 3-30] 국어책임관 회의	169
제4장 [그림 4-1] 비전과 목표	181



제1장 국어 정책 개요



제1절 국어 정책의 개념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제3절 주요 국어 정책 기관



1 국어 정책 개요

제1절 국어 정책의 개념

1. 개념

국어 정책이란 국가가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말과 글에 대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¹⁾ 모든 나라에는 언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국어와 관련된 것을 통틀어 국어 문제라 하고, 이러한 국어 문제를 정부관계기관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내 놓은 정부시책이 언어 정책 또는 국어 정책이다. 국어운동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문제에 대한 계획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 집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어 정책이 다뤄야 하는 분야는 크게 ‘말’에 관한 것과 ‘글’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말에 관한 것은 공용어의 제정, 표준어의 규정, 외국어의 순화, 남북 언어의 통일과 같은 정책이고 글에 관한 것은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와 그 운용법에 대한 것으로 한글 전용, 한자 병기, 한글 풀어쓰기, 정서법 등에 관한 것이 그 예이다.

이 중 문자에 관한 정책이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민감한 과제 중 하나였다. 한글 창제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글은 공식 문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공식 문자로 자리 잡게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문자에 대한 정책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문자 정책의 기본 틀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자 등 기타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이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언어 정책’에 대한 정의는 “국가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통일·발전시키려고 쓰는 정책”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세기 후반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발전은 국어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국어 정보화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중장기 언어 정보화 사업이 1998~2007년까지 진행되었으며 국어 정보화와 관련한 각종 정책이 언어 정책에 포함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어 정책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주로 표기법과 문자 사용이 주요한 국어 정책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국어능력 향상, 순화, 전문용어 표준화, 소외계층 언어 복지,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과 국외 한국어 보급 등 한국어의 세계화와 함께 여러 사회 문제와 관련된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국어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2. 국어 정책의 역사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국가가 어문 정책을 관장해 왔다. 신라 경덕왕 때 지명을 한자식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고려 시대에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여 역관(譯官)을 양성한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중엽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곧 한글을 창제하여 보급하는 시책을 강구한 것이 한글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정책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때 고종이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 곧 한글을 으뜸으로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하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한글로 된 문서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던 과거 법령이 폐기되었다.²⁾ 고종의 칙령은 현대 국어 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 서양식 학교의 설립과 기독교 선교사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공적인 문자 생활에서의 한글 사용이 법의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당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신문과 잡지, 각종 단행본 서적에 한글은 한자와 함께 사용되었다.

우여 곡절을 거친 후에 한글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나 일관된 표기를 위한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표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혼란을 정비하기 위해 당시 어문 정리 운동이라 불렀던 국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정부 역시 1907년 비상설기구인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여 한글표기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려 하였으나 ‘국문연구의정안’이라는 맞춤법 연구보고서를 내고 문을 닫았

2) 17세기 숙종 초의 ‘한글로 된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교지(教旨)’ 곧 ‘단행법령(單行法令)’을 말한다. 이 법령은 문자 생활의 진동적인 규범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어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대전회통(大典會通)’(1865, 고종2)에도 실려 개화기까지 효력이 계속되었다.

는데, 이 보고서는 표의주의 표기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근대 계몽기에 최초로 표기법 문제를 다루었다는 데서 의의를 가진다. 그 후 1930년대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모음’을 제정·공표하고, 언론계가 이를 지지함으로써 민간 차원이지만 국어의 표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가 조선어학회에서 마련한 맞춤법과 표준어를 인정하여 교육 용어로 채택하는 국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당시의 표기법과 관련된 국어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미 군정시기에는 군정청의 자문기관으로서 ‘조선교육심의회’가 한자 사용 폐지와 가로쓰기를 결정하였고,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외래어표기법”이 제정되고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공표되었다. 이후 1959년 “로마자외의한글화표기법”이 제정되고 1962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모든 간행물에 대한 한글 전용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1970년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한글전용 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972년 중·고등학교에 한문 교육이 부활되고 교과서에서 한자가 괄호 안에 병기되었다.

1976년에 대통령령으로 외국어와 외래어에 대한 국어 순화 지시가 내려져 국어순화운동협의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 “외래어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관한 일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1988년에 “한글맞춤법”이 공식적으로 고시되는 등 본격적으로 어문규범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전통 문화의 이해와 전승 발전, 한자 문화권 국가간의 교류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공문서 한자 병기를 위한 사무관리규정을 개정(1999.8.7)하였다. 또한 동구권, 북구권 등 이전에는 왕래가 거의 없던 나라들과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외래어 표기 세칙을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정보 지식 사회를 맞이하여 국어학계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 방법이 활성화되고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한 말뭉치(Corpus)구축 등 국어 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국어심의회에도 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고 1994년 국어 정보 처리 기반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어 1998년부터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국어 정보화 중장기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선진국에 10여년 뒤진 국어 정보화 분야가 국어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요약하면, 1930년대는 어문 규범의 근간을 마련한 시기였고 1970년대~1980년대는 이에 대한 손질을 마무리 지은 기간이었다면 1990년대는 이 규범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뿌리를 내리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규범이나 순화, 남북 언어의 통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사용 환경 개선,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한국어

및 한글의 세계화와 같은 좀더 넓은 의미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와 세계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며 국민들의 요구와 각계의 필요에 호응하기 위하여 국어 정책의 범위는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당시 국어 정책을 담당했던 기관으로는 정음청이 있지만 정책 기능이 분명하지 않고 인쇄 업무를 주무한 것으로 보이며, 개화기에 비로소 국문연구소가 연구 기능을 수행했다.

정부 수립 후 1989년까지 국어 정책은 문교부에서 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다루어 왔으나 1990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어 정책은 신설된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일에 문화부의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판국 어문과를 신설하여 말과 글에 관한 정책을 문화정책의 영역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국어 정책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어연구소(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 1984. 5. 10. 설치)도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에 따라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대통령령 제13163호, 1990. 11. 14.)에 의거하여, 1991년 1월 23일 문화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로써 국어 정책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은 문화부 어문출판국의 어문과가, 정책 수립에 관한 기초 조사·연구 등 연구 기능은 국립국어연구원이 담당하는 체제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05년에 이르러 언어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로 국어 정책 추진 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 그중 하나는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변화한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새로운 개념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사회 통합의 중요한 수단인 국어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어문과’도 ‘국어정책과’에서 다시 ‘국어민족문화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의 국어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어의 보존·발전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어문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제도적 기반구축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3. 기본 방향

나라 안팎의 언어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어 정책의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언어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주요한 국내외 언어 환

경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각 분야에서 외래어·외국어가 오남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언어에서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가 남용되는 등 국어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영어 조기교육 등으로 국어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 증대하면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국민들에게 국어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국내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로 언어 사용 계층이 다양화되고, 산업화의 가속에 따른 탈지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다원주의 언어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 정책과 함께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셋째, 국제화·정보화가 확산되고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타문화권과의 언어·문화교류 강화와 정보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도 자국어 보급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문화의 경쟁력을 기반을 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세계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어 문화 유산인 지역어와 민족문화 생활어는 우리말의 풍부함과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로 언어 문화재라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세대교체로 지역어와 민족문화 생활어는 빠른 속도로 소멸되고 있어 이를 조사, 발굴하여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한 언어 동질화를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부는 적절한 통로를 활용해 어문규범, 정보화 분야 등 통일 시대에 대비한 언어의 동질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다. 물론 남북한 학자들 간의 공동 연구라든가 학술 행사를 통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간에 공식적인 협의 통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어문 규범과 같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빈번한 교류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국어 정책이 법적 뒷받침을 받으며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1-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

-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 구현과 실효성 제고
- 국어사용 환경의 점진적 개선과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어 해외 진흥 확대
- 국제화·다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다원주의 언어 규범 정립
- 사회 통합적 언어 복지 시책 확대 시행
- 국어문화유산 발굴과 지역어·토착어 조사 사업 확대
- 지식정보문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어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
- 남북한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언어들동질화 사업 추진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1. 국어기본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03호

가. 「국어기본법」 개관

우리말과 글에 대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기본법령의 부재로 국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어기본법」(2005. 1. 27)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2005. 7. 27)이 제정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되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국어 기본법」이 국

가 단위의 국어 정책 수립 및 국어 규범 제정, 보급의 최상위 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은 국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연구 지원, 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고 보급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법률을 바탕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국어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 시대, 디지털 매체 시대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국어능력 향상과 해외 국어 보급 및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전 편찬 및 보급 뿐 아니라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 설립과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과 인력 양성이 가능해져 경제 규모와 문화 수준에 어울리는 국어 문화 창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국어기본법」의 목적

국어 기본법의 제정은 바로 국어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언어, 문자, 고유의 의식주 문화(음식, 의복, 주거) 및 민속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이며 영속적인 것이 ‘언어’이기 때문이다. 의식주, 민속 등이 지닌 가변성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도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따라서 언어는 국가나 민족 최후의 보루이고 국가나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속시키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핵심 고갱이로서의 존귀성을 지닌다.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프랑스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 l'emploi de la langue francaise, 1994. 8. 4. 제정)’ 제1조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처럼(“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화국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인격과 자산의 근본적 요소이다 Art. 1ed. Langue de la Republique en vertu de la Constitution, la langue francaise est un element fondamental de la personnalite et du patrimoine de la France.”) 한 나라의 국어의 존엄성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은 총칙과 부칙을 제외하고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으로 크게 삼분되어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어발전기본계획’과 같은 국어 정책을 펴 국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 법률 제정의 목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국어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능’을 기른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사용의 목적은 소통 기능, 친교 기능, 정보전달 기능, 미적 기능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의 바탕은 결국 올바르게 사고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이러

한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기여하는 언어 능력을 문해력(literacy, 문식력, 문식성, 언어 소양 등)이라고 표현하여 문해력 증진을 국어 교육의 제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국어 기본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인 창조적 사고력은 곧 전 세계적인 국어 정책, 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언어생활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문화적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국어기본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민족 문화 발전은 정치, 경제, 언어, 문학, 예술, 과학, 체육 등의 제반 영역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국어기본법」은 언어문화 영역에서 국어문화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민족 문화 창달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이 학령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은 국어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민족 문화를 증진하는 주체가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국민임을 말해 준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 능력이 중시되면서 개인, 학교, 기업, 언론 등에서 제 나라말을 경시하는 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언어생활의 기본이 되는 국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학술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국어운동이 진행되어 왔으나 경제 논리에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고 학술연구기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며, 국민들은 삶의 곳곳에서 국어에 대한 관심과 지식, 활용 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진행하려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의도이다. 또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첨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21세기 세계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기르는 데에도 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어문화생활을 튼튼히 뒷받침해야 한다. 「국어기본법」은 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총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위적 규제 및 단속 등의 규정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1-2>과 같다.

〈표 1-2〉 「국어기본법」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제3조	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라고 명확히 규정함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제8조	정부의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결과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9조	국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국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 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제10조	공공기관에 국어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함
제12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과 실적 평가, 국어 환경 개선 시책 추진,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 국어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제14조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15조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제17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
제19조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어기본법 시행령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3호;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은 국가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및 활용,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규범

제정 및 전파, 국어심의회를 통한 올바른 국어생활규범 보급, 공문서의 한글 표기 확대 및 규범·전문용어의 표준화,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한국어교원에 관한 사항,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어 정책 시행, 한글날 기념행사를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 국어문화원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의 국어생활 계도, 국어능력검정제도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 유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상위 법률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규칙을 기술하는 여타의 시행령과 달리,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어기본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와 방향까지 일목요연하게 명시해 주고 있어, 이 시행령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어 정책의 구체적인 실상과 방향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정부기관의 홍보담당부서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것을 명시(제3조)하고 있다. 또한 국어연구자를 중심으로 국어생활과 관련된 제반 문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이는 국가의 국어 정책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서 올바른 언어 규범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을 국가 책임 하에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국어운동과 국가의 국어 정책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각 기관 간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뒷받침하고 조율하도록 규정된 ‘국어능력 향상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제16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어 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부응하면서 한국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전문요원의 양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13-14조). 외국어학습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때 더욱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역시 한국어를 바탕으로 우리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행될 때 진정한 문화교류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담당자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의거해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의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민의 국어능력(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전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는 단순히 국민들의 국어 실력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또한 국민들이 국어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어연구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어문규범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제4조)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국민의 국어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언어규범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제11조)하고 학술 및 법률 관련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순화(제12조)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은 국어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의한 국어능력평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나치게 과열된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국어교육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덩달아 일반 국민의 국어생활 역시 우리말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이 언제나 자신의 국어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공신력 있는 국어능력평가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전문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아래 <표 1-3>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표 1-3〉 「국어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국어사용 실태조사 대상 및 결과 활용 방안
-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 어문규범 영향평가 대상과 조사자 및 조사기관 선정
- 국어심의회 운영과 관련한 심의위원 임기 및 분과위원회 종류와 기능
-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한국어교원자격’ 부여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등 국어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 국어능력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 국어능력검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 및 내용
- 국어문화원 지정 요건 등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제3절

주요 국어 정책 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가. 국어민족문화과 설립 목적 및 연혁

정부 수립 후 1989년까지 국어 정책은 문교부 편수국(編修局)에서 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다루어 왔으나 1990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일에 문화부의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판국 어문과를 신설하여 말과 글에 관한 정책을 문화정책의 영역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국어 정책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어연구소(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 1984. 5. 10 설치)도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에 따라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대통령령 제13163호, 1990. 11. 14)에 의거하여, 1991년 1월 23일 문화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 후 어문과는 1994년 5월 4일에 어문출판국이 폐지됨에 따라 문화정책국 어문과로, 1997년 3월 20일에 다시 국어정책과로 바뀌었다.

그동안 어문과 및 국어정책과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우리 말과 글의 체계적 정리 보급, 우리 말과 글의 해의 보급, 우리 말과 글의 정보화·과학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국어심의회 운영, 남북 어문 규범 관련 업무 및 어문 자료 교류, 어문 연구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04년 11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어민족문화과의 언어 정책 업무를 국립국어원으로 이관하게 되었고, 국어민족문화과는 한국스타일과 국어·정신문화 업무에 주력하게 되었다.

2009년 4월 17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어 언어 정책 업무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나. 조직 및 예산

1) 문화예술국 조직



[그림 1-1] 문화예술국 조직도

2) 예산

<표 1-4> 국어민족문화과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합 계	10,099	10,241	13,541
○ 민족문화정책기반조성	2,000	1,350	1,181
○ 한국학진흥지원	1,000	1,200	1,200
○ 민족문화원형발굴 및 정체성 정립	720	713	720
○ 문화원형 디지털화	3,980	3,600	3,420
○ 한글의 가치재발견 및 세계화	-	-	1,100
○ 한글문화관 조성	-	-	200
○ 국어 진흥 기반 조성	-	-	2,320
○ 한스타일 육성지원(관광기금)	2,399	3,375	3,400

다. 주요 업무

2009년 5월 4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제10조 제4항의 국어민족문화과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언어 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 한글유공자표창, 세종문화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 남북 간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보급
- 민족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 음식·주거·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 북한의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의 운영

- 어문, 한국학 및 민족문화·전통문화·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

1) 한글의 가치 확산 및 문화 브랜드화

한글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글 관련 자료를 전시·보존할 수 있는 「한글문화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글문화관은 한글문화유산을 종합 전시·보존하고 한글의 창제 정신을 홍보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체험하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에 한글을 홍보하고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한글날 문화행사와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 한글 소개 홍보물 제작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문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유네스코의 ‘세종대왕 문해상’은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브랜드’로서 한글의 산업적 활용도 확대하고자 한다. 한글 문화상품 공모전, 한글 문화상품 제작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상품(패션·디자인·공예 등)과 한글예술작품(미술·공연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쉽고 품격 있는 우리말 가꾸기

쉽고 품격 있는 우리말 가꾸기를 위해 먼저 법령·행정용어 등 공공 언어를 알기 쉽게 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첫째,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정언어순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전문·학술용어 표준화를 통한 학문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역시 범정부 차원의 전문용어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용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외래어, 특수언어 등의 표기를 표준화하고 남북언어 교류를 확대한다. 외국의 지명·인명 등의 표기(외래어 표기) 표준화를 위한 심의체계를 정비하고, 수화 표준화, 전자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한 특수언어 표준화에 힘쓴다. 또한 남북언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남북한 어문규범·전문용어 표준안 마련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남북 공동 편찬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언어 정보화와 국어 문화유산 집대성을 위해 U-세종계획(‘09~‘14년)을 수립하고, 자동번

역, 자연어 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휘 의미망’ 구축과 지역어, 신어·미등재 어휘 조사, 한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언어사용 환경 정비와 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국어교육 프로그램인 국어문화학교를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언어사용 환경 정비를 위해 방송사·포털 등과 방송·통신언어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교육하는 활동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갈 예정이다.

3)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국외에 한국어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기관은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보급기관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통합이미지를 창출하고, 한국어 보급기반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세종학당’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어교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해외 한국어교사를 위한 통합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며, 한국어교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는 효율적 시스템, 정문적인 교사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과정·교재의 개발이 중요하다. 한국어 보급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교재·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어 교육콘텐츠·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사이트를 구축하여 한국어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지식 문화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 역시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지역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재·교원연수 등을 지원하고, 방문 학습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어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함께 누리 한국어교육지원단(가칭)’을 양성하여 다문화가정 등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2. 국립국어원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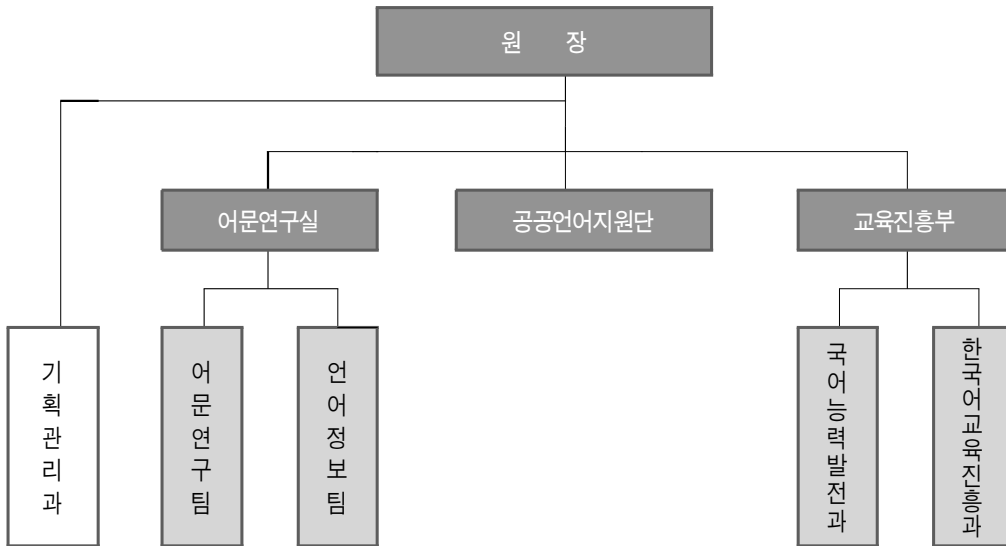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전 국립국어연구원)은 합리적인 국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 계도를 목적으로 1991년 1월 23일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어문 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된 뒤 국어연구소(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 1984. 5. 10 설치)의 확대 개편으로 설립된 국립국어원은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책 업무를 이관받기 전까지는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을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연구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11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언어 정책 및 연구의 통합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4월 17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책 집행 업무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으로써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은 각종 어문 규정을 정비·보급하고 국어 관련 자료를 정보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지며,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힘쓰는 한편, 북한어를 포함한 우리의 국어 유산을 수집·보전함으로써 국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외 한국인의 언어생활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을 정책 및 연구 업무 수행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나. 조직 및 예산

1) 조직

국립국어원 조직은 1실(어문연구실), 1단(공공언어지원단), 1부(교육진흥부), 3과(기획관리과,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 2팀(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연구직 22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이다.



[그림 1-2] 국립국어원 조직도

2) 예산

〈표 1-5〉 국립국어원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합 계	11,382	12,090	11,835
○ 언어 정책기반조성 및 진흥	1,351	1,779	1,612
○ 국어능력 향상 및 환경개선	1,144	1,821	1,915
○ 청사관리운영	861	998	998
○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 진흥	2,094	650	580
○ 한국문화원을 통한 한국어보급체계 구축	500	-	-
○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	1,800	1,800
○ 국어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1,306	1,450	1,300
○ 국어정보화	1,644	850	806
○ 국립국어원 인건비	2,148	2,380	2,454
○ 국립국어원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112	144	144
○ 국립국어원 기본 경비	222	218	226

다. 주요 업무

2009년 5월 4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 국립국어원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조사
-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교육연수 발전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 보급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국어 정책 관련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어문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 생활에 필요한 어문 규정을 보완·관리하고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일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어문관계 자료를 수집·정리·발간하여 국어와 관련된 유산을 보존·연구함으로써 국민의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현실에 맞는 언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되는 언어 현실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언어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어 의식조사, 국어사용환경 조사,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와 연령별·계층별 언어사용 실태조사로 분야를 나누어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언어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민족의 언어 자산인 우리말 어휘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언어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기 위해 지역어 조사 및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나는 말들을 조사 정리함으로써 언어 사용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친구 세대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신어 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어 순화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본어투 용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를 국민 참여를 통해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분단 이후 지속된 남북

한 언어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남북 학술자료 교환을 통하여 북한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며, 효과적인 극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하여 어문규범의 발전적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국어학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런 활동에 대한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어기본법(2005.1.) 및 그 시행령(2005.7.)의 제정으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자체, 기업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 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여 국어 관련 정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국민에게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국어 상담 전화인 ‘가나다 전화’와 국어원 누리집의 ‘온라인 가나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관 및 방송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을 후원하여 국어능력인증시험이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50여 만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은 언어생활의 기준이 되는 어문 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방송, 출판, 교과서 등의 기준 사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전 시디 출간(2001), 웹 서비스 시작(2002)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전통적인 사전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전의 틀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어 어휘의 빈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국어생활>, <쉽표, 마침표>(온라인 소식지)의 발간으로 국민의 국어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국어 관련 정보의 체계화, 표준화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 및 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 정보화하여 국민의 언어생활 및 학계, 산업계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어 정보를 구축, 배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하였던 21세기 세종계획은 대표적인 국어정보화 중장기 사업으로 다양한 언어 자료를 일정한 형식으로 수집, 구축한 말뭉치와 기계 번역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용 전자 사전, 국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문규정, 남북 언어 자료, 방언 등에 대한 검색 시스템과 전문 분야별 전문용어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와 함께 비표준문자등록센터, 국어정보보급관리센터, 한글글꼴개발원 등의 운영 지원과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개최를 통하여 국어정보화 여건을 조성하고 그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1998년 한글 맞춤법 관련 디비 구축을 시작으로 한글과 국어 관련 주요 정보를 통합 관리, 검색할 수 있는 국어 정보 검색 시스템과 디지털 한글 박물관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어정보화 관련 언어 자원들에 대한 통합 관리, 유통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자원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4) 공공언어 지원 체계 구축

‘공공언어란 국민의 언어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언어, 방송 언어, 교과서 언어 등을 말한다. 공공언어는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좁게는 관공서의 문서, 서식부터 넓게는 모든 정책 행위를 담고 있는 언어 형식까지 모두 공공언어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공공언어는 누구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해야 하고 표현과 표기가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언어를 생산하는 모든 주체가 국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2009년 5월에 ‘공공언어지원단’을 설치하여 공공언어의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공공언어 지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어 지원이다.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언어 사용의 지침서를 보급하고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공공언어의 감수를 국어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송을 비롯한 매체 언어에 대한 지원이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 언어가 현실

언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 언론사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정확한 언어 사용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매체 언어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는 교과서 언어의 감수이다. 국어 전문 기관인 국어원이 교과서의 표기·표현 감수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교과서 언어의 질적인 발전은 물론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바탕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교과서 검정을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는 전문용어의 정비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각종 전문용어들이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전문용어는 외래어가 많고 의미가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용어들을 적시에 정비하고 보급하는 것은 언어 공동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용어의 체계적 보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용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한국어 교육 진흥

국립국어원에서는 개원 초기인 1992년 이래 국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 아시아, 중국 등 동포 밀집 지역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동시에 현지의 한국어 교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해 왔다.

최근 국력 신장과 한류 열풍으로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교재 및 부교재, 우수 교원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 2006년 이전에는 ‘외국어로서의 표준 문법’, ‘외국어로서의 표준 문법 사전’ 발간, ‘주요 어휘 선정 자료집’ 발간, ‘주요 어휘 용례집’ 발간, 교재 분석·연구 등을 통해 꾸준히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2007년부터는 재외 한국문화원 등을 거점으로 한 개방형 한국어문화학교인 세종학당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중국, 몽골 등지에 모두 18개소를 개설하여 한국어·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받은 한국어 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발효된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 교원 자격 관리 및 재교육 등을 통해 한국어 교원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용 한국어 교재, 부부 공동 학습용 한

국어 교재, 이주노동자용 교재 등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한국어 학습용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을 위하여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용 방문학습지 개발’,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교재 프로그램 개발(EBS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개정 언어)’ 등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국어심의회

가. 개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국어심의회’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로 정의되어 있다.

국어심의회가 국어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국어심의회가 처음 공식적으로 설치된 1964년부터이다. 처음 설치될 당시 국어심의회는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지금과 다른 것은 조사와 연구, 심의까지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교부 당시 대통령령 제1977호(1964. 11. 10.)에 의거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1990년에 국어 정책이 문화부로 이관·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조사, 연구 기능까지 아울렀던 국어심의회의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면서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 ‘조사,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국어심의회는 ‘심의’를 전담하게 되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의 제정 또한 국어심의회의 위상과 기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국어기본법’에서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어심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언어 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 공포되고 1995년 7월 13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 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변화가 있었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2005년 7월 28일 동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5개 분과 위원회는 3개 분과로 통합·조정되었다.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분과로 통합되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가 국어순화분과로 통합·조정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 정책분과로 확대·개편되었다.

나. 연혁

국어심의회의는 1953년 소위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한다(문교부령 제31호) 그런데 이때 실질적으로 국어심의회의가 운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1964년에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국어심의회의를 설치한 것이(대통령령 제1977호) 국어심의회의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64년 이후 국어심의회의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한 연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국어심의회의 설치 규정 관련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1953년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	문교부령 제31호
1964년	문교부 장관 자문 기구(조사·연구·심의)로 설치	대통령령 제1977호
1976년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8279호
1990년	문화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2895호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으로 ‘조사·연구’ 기능 이관	대통령령 제13491호
1993년	문화체육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3869호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문화예술진흥법
2005년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및 심의, 분과 구성 변경	국어기본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어심의회의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와 연구 기능을 이관하고 심의만 전담하게 된 1991년, 그리고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심의 범위가 확장되고 분과의 구성이

변경된 2005년에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 두 시점을 중심으로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시기	위상	기능	조직	직원	예산
1991년 이전	문교부장관 자문기구	국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학술용어분과, 표기법분과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1991년 ~ 2005년	문화체육부장관 자문기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정보화분과, 표기법분과, 국어순화분과	간사 및 서기 각 1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2005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심의기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언어 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다. 기능 및 역할

국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어심의회의 기능은 분과위원회별로 나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변화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64년부터 유지되던 ‘학술용어심의위원회’가 2002년에 ‘국어정보화분과’로 대체된 것이 대표적이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5개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통합되었다. 이전의 분과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라면 지금의 분과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능에 따라 설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에 나오는 분과별 심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국어심의회의 주요 심의사항

분과	심의 사항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필요할 경우 전문 소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 밑에 두어 전문성을 살리면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국어 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관한 사항,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전문 분야의 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라. 구성 및 심의 절차

국어심의회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1964년의 ‘국어심의회 규정’에서 비롯한 내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第2條 (構成)

- ①審議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 委員50人 以內로 構成한다.
- ②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 ③委員은 國語 또는 言語學에 관한 專門的知識이 있는 者中에서 文敎部長官이 委屬한다.

제13조 ……

- ③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러한 내용은 2005년의 ‘국어기본법’에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위의 규정에서 국어심의회에의 위원은 6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자격 조건은 국어학과 언어학에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대상은 국어학·언어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또는 언어 분야에 관련된 전문 직종의 종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에 국어심의회 위원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어심의회는 대표성을 띠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출신 지역, 성별 분포,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어와 관련된 중요 안전에 대해 국어심의회에서는 심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안전에 대한 조사, 연구는 주로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에서 양 기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실제 심의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 담당 연구원이 간사와 서기를 맡아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어심의회는 상시적인 조직은 아니다.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심의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9〉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에 제시된 국어심의회 관련 내용

분류	조항	내용	비고
기능	제13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	국어기본법
조직	제8조	언어 정책 분과, 어문규범 분과, 국어순화 분과 설치	시행령
직원	제9조	문화관광부장관이 국립국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에 간사 및 서기 각1인 임명·배치	시행령
예산	제10조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시행령

마. 국어심의회 운영 실적

국어심의회는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문 규범을 제정·개정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한 실적 가운데 1988년 1월에 고시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의 어문 규범 개정은 1979년 문교부안, 1984년 8월 학술원안, 1987년 4월 국어연구소안 등의 시안과 1987년 6월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조절위원회의 조절을 거쳐 1987년 12월 국어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어심의회 역할에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심의하여 국어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실제의 정책을 실현하는 길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에 변화하는 국어 환경에 대응하여 국어심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어심의회는 2005년에 1회, 2006년에 1회, 2007년에 각 2회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각 분과 위원을 선임하고(2007년 1월/9월) 전체 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하여(2007년 8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심의회 전문화와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국어 정책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표 1-10〉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실적
언어 정책분과위원회 (15인~30인) *임기: '07. 09 - '09. 09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05: 1회 개최 - 위원장 선출 - 향후 운영 방안 검토 ○ '07: 1회 개최 - 국어발전기본계획 심의 등
어문규범분과위원회 (15인~30인) *임기: '07. 02 - '09. 01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 '05: 1회 개최 - 위원장 선출 - 포르투갈어 외래어표기법(안) 등 심의 ○ '06: 2회 - '류' 씨 표기 검토 - 그리스어 외래어표기법(안) 등 심의 ○ '07: 6회 개최 - 아랍어 외래어표기법(안) 심의 - '류' 씨 표기 검토 등
국어순화분과위원회 (15인~30인) *임기: '06. 07 - '08. 06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05: 1회 개최 - 위원장 선출 - 한국 점자 규정 개정(안) 심의 ○ '06: 1회 개최 - 위원장 선출 - 국어순화 사이트 개편 논의 등 ○ '07: 1회 개최 - 국어순화 사업 보고 및 평가

4. 국어책임관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하여 그 결과 54개 중앙 부처와 16개 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

체 등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정부 조직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44개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 국어책임관을 재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국어책임관 연혁

국어기본법 제정(2005. 1. 27.) 및 동법 시행령 제정(2005. 7. 27.)에 따라 2005년 12월 중앙 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뢰하였다. 이후 국어책임관 활동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1〉 국어책임관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6. 5. 9.	제1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6. 7.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www.korean.go.kr/klofficer) 개설
2007. 4.	54개 중앙 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160개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2007. 7. 11.	제2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제2회 개최
2007. 9. 6.	제2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 11. 28.	제3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대구광역시청)
2008. 11.	국어책임관 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다. 주요 사업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째,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에게 배포하였다. 둘째, 2006년 5월, 2007년 7월 등 2차례에 걸쳐 중앙 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9월, 2007년 9월, 2008년 11월 등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셋째, 매년 국어책임관의 업무 실적 보고서와 함께 별도로 조사한 주요 공공 기관 누리

집(홈페이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어책임관 활동을 평가했는데 2007년 5월에는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정보통신부·외교통상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청·경상남도청을 우수 국어책임관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이 가운데 중앙 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 설치된 것이다.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립국어원 원장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2006년 27개 중앙 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으로 설치·구성되어, 같은 해 5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의 활동 방향과 추진 사업을 협의하였고, 2007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책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법제처의 국어책임관
- 그 밖에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련이 있다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그러나 정책협의회는 2008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의 근거 법령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가 2008년 10월 20일 일부 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완전 삭제되었다.

5. 국어문화원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2007년 12월 전국 14개소의 국어상담소를 설치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국어상담소’는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추가로 지정된 강원, 제주, 전북의 세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4개소가

운영되었고, 2008년에는 울산과 대전 지역에 국어문화원을 새로 지정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16개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표 1-12〉 전국 16개 국어문화원 현황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1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남영신	'05.10.
2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백두현	'05.10.
3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황병승	'05.10.
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엄정호	'05.10.
5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구현정	'05.10.
6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서종학	'05.10.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창원	'05.10.
8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서상준	'05.10.
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희숙	'05.10.
10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조항범	'05.10.
11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김성수	'05.10.
12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남기탁	'07.1.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류수열	'07.1.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영봉	'07.1.
1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유필재	'08.12.
16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정희	'08.12.

나. 국어문화원 연혁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뒤,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국어 문화원을 지정하였다. 국어문화원의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3〉 국어문화원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년 8월	선정 기준 마련 및 신청서 접수
2005년 9월	심사회의 개최 및 실사 실시
2005년 10월	국어상담소 지정(11곳)
2006년 4월	전국국어상담소 연합회 결성
2007년 1월	전북, 강원, 제주 지역 3곳 추가 지정
2008년 3월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8년 12월	인천, 대전 지역 2곳 추가 지정
2009년 현재	전국 7개 권역 16곳 지정 운영

다. 주요 사업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학생, 일반 시민이나 공공 기관의 국어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언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문 규범·국어 문법 등 국어와 관련된 공금 중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 기관의 대국민 홍보 문안과 정책 용어 등에 대한 검토, 법령문·안전 설명문·제품 설명서·문화재 안내 표지판이나 간판의 문구 등 실용문에 대한 검토,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독서 지도,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업무를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1-14〉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공통 사업	세부 사업
국어생활 상담 및 지원	국어생활 상담 및 교육,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중앙부처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공공기관 국어 상담 및 감수 지원
국어 관련 행사	한글날 행사 개최, 토론왕 선발대회, 글짓기 대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황금사전 선발대회, 사투리 말하기 대회 등
언어 환경 개선	관광지 안내문, 문화재 해설문, 간판·도로표지판 조사, 지역 방송·언론 등 공공기관 언어사용 모니터링, 지역 언어 실태 조사
찾아가는 문화학교	국어원의 찾아가는 문화학교 전담



제2장 국어 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제2절 국외 현황



2 국어 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1. 국민의 기초 문해력

가. 조사 필요성과 목적

최근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변하고 있다. 한국어는 사용자 수가 세계 13위이고 2007년에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에서 세계 9번째 국제 공개어로 채택되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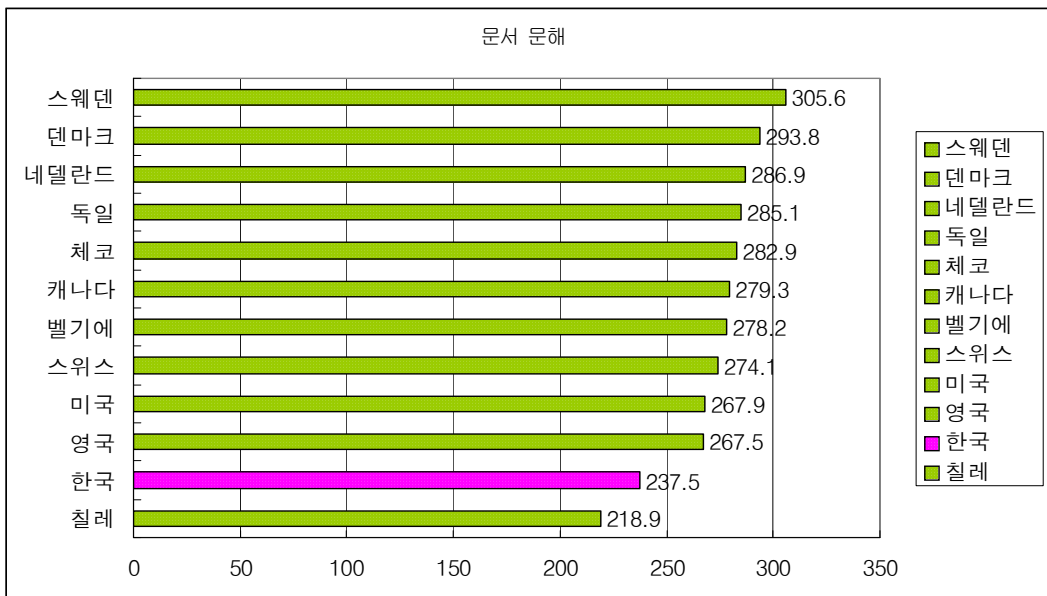
8.15 해방 이후 여러 차례 이루어진 문맹 퇴치 운동과 1960년대 이후 높아진 의무 교육 취학을 우리 국민의 문맹률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1966년 10월과 1970년 10월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비문해율)은 각각 8.9%, 7%로 보고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실질적인 문맹률이 5% 내외로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1970년 인구 총조사 이후부터는 문맹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1〉 통계청 실시 문맹률 조사 결과

연도	총인구수(명)	문맹지수(명)	문맹자비율(%)
1966년(10월)	29,150,640	2,605,443	8.9%
1970년(10월)	31,435,252	2,299,323	7%

그렇지만 국민의 국어능력과 관련한 몇 가지 지표를 참고로 했을 때, 우리 국민의 국어능력이 우려할 만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를 포함한 20여 개 국가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성인 문해 조사(IALS)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 성인의 비문해³⁾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문해능력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OECD 국가와의 문서 문해 능력 비교
(한국교육개발원, 2003)

또한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국제결혼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해능력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1990년에 4,700여 건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건수가 2005년에는 43,000여 건에 달해 지난 15년 동안 915%라는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취학도 2005년 6,100여 명에서 2007년 13,400여 명으로 지난 2년 동안 약 119%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30% 이상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비문해(illiteracy) : ‘글을 읽고 이해함’을 뜻하는 ‘문해’의 반대 개념이다. 과거에는 ‘문맹’이라고 사용하였으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여 최근에는 ‘비문해’라고 부르고 있다. 반면에 문해력(literacy)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뜻한다.

〈표 2-2〉 국제결혼 건수 및 추이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8)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자료: 통계청

〈표 2-3〉 다문화가정의 취학 자녀 증가 추이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자료: 통계청

이에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를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국어능력 저하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급증에 따른 문해능력 통계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문해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기존 성인 문해 조사에서 간과해 온 여러 문제를 보완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기초 문해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를 토대로 국민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정책 및 문해 교육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이 조사는 언어 현실에 기초한 국민의 문해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게 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교육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나. 조사 개요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08년 9월 9일 ~ 11월 1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19~79세 성인 12,137명(5,212가구)을 대상으로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가구 방문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본 추출은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다단계층화 확률 비례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 2-4〉 시도별 인구 구성비와 표본 할당 결과

지역	모집단 수	구성비 (%)	비례배분		제공근비례배분		180표본 우선할당 후 제공근 비례배분	
			표본수	표본오차	표본수	표본오차	표본수	표본오차
서울	8,070,748	21.35	1,494	2.6	878	3.4	698	3.8
부산	2,849,853	7.54	528	4.4	522	4.4	487	4.5
대구	1,903,380	5.03	352	5.3	426	4.8	431	4.8
인천	2,014,156	5.33	373	5.2	439	4.8	438	4.8
광주	1,034,784	2.74	192	7.2	314	5.6	365	5.2
대전	1,102,658	2.92	204	7.0	325	5.5	371	5.2
울산	810,693	2.14	150	8.2	278	6.0	344	5.4
경기	8,274,194	21.88	1,532	2.6	889	3.4	703	3.8
강원	1,169,747	3.09	217	6.8	334	5.5	377	5.1
충북	1,152,050	3.05	213	6.9	332	5.5	375	5.2
충남	1,542,394	4.08	286	5.9	384	5.1	406	5.0
전북	1,430,990	3.78	265	6.1	370	5.2	398	5.0
전남	1,504,749	3.98	279	6.0	379	5.1	403	5.0
경북	2,105,913	5.57	390	5.1	449	4.7	444	4.7
경남	2,428,111	6.42	450	4.7	482	4.6	463	4.6
제주	415,807	1.1	77	11.4	199	7.1	297	5.8
전국	37,810,227	100.0	7,000	1.2	7,000	1.2	7,000	71.2

다. 조사 결과

본 조사는 크게 비문해율(문맹률)과 기초문해력으로 나누어진다.

1) 비문해율(문맹률)

전국 19~79세 성인의 1.7%(약 62만 명)가 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하는 ‘완전 비문해자’로 추정

된다(계산: 37,334,389명(2008.9.1일 기준 성인 인구) \times 0.0167=623,626명).

특히 70대는 20.2%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완전 비문해자이고, 20~40대는 완전 비문해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완전 비문해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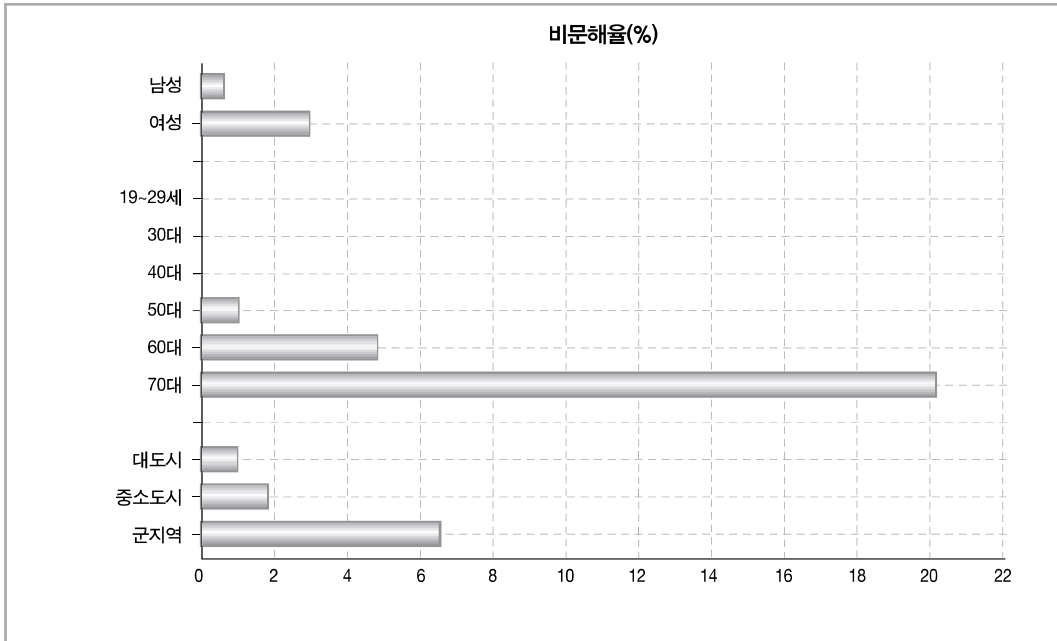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명)	비문해자(명)	조사치(%)	비문해율(%)
19~29세	2,181	2	0.1	0.0
30대	2,544	1	0.0	0.0
40대	2,921	2	0.1	0.0
50대	2,384	20	0.8	0.7
60대	1,421	85	6.0	4.6
70대	686	151	22.0	20.2
합계	12,137	261	2.2	1.7

이중에서 여성(2.7%)이 남성(0.5%)보다 비문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연령이 높은 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2-6〉 남녀별 비문해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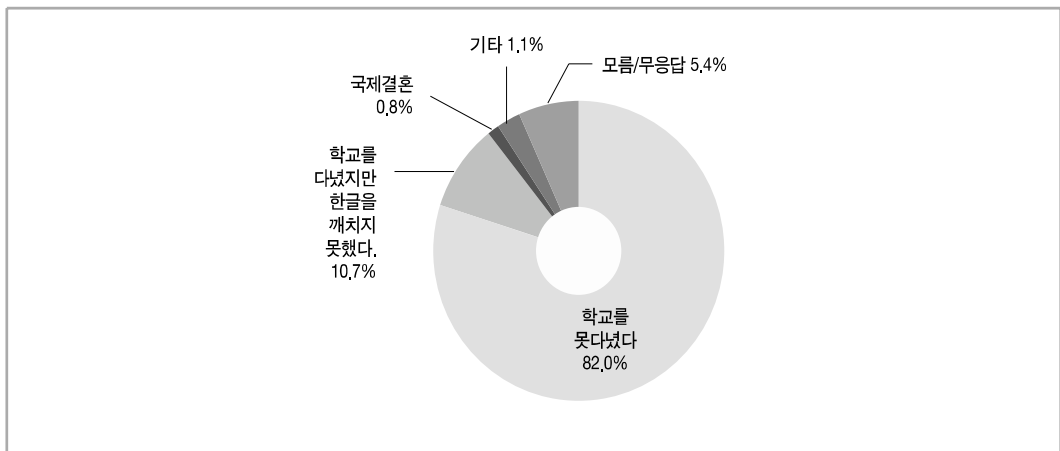
	남성 비문해율(%)	여성 비문해율(%)	전체(%)
50대	0.2	1.2	0.7
60대	0.9	7.6	4.6
70대	9.1	28.6	20.2
합계	0.5	2.8	1.7

한편 지역별로 보았을 때 군지역(6.3%)이 대도시(0.7%)나 중소도시(1.7%)보다 비문해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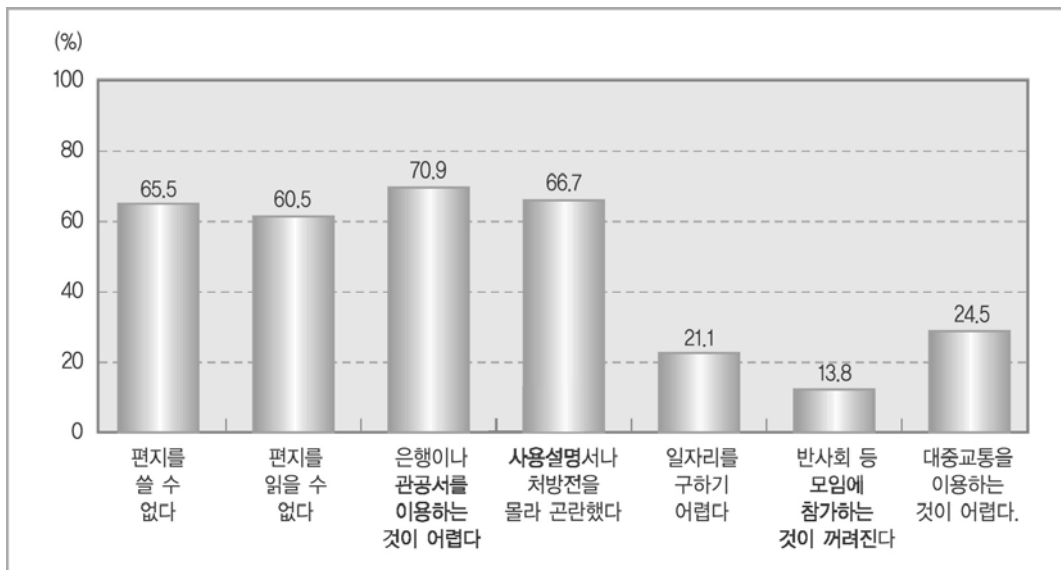
[그림 2-2]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문해율 비교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학교를 못 다녔다’는 이유가 82.0%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는 경우가 10.7%로 나타났다.



[그림 2-3]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해 겪는 불편한 점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비문해자의 70% 이상이 ‘은행이나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용설명서나 처방전을 몰라 곤란’, ‘편지를 쓸 수 없는 점’, ‘신문을 읽을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복수응답)

2) 기초 문해력

실질적인 국어사용 능력(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공익광고·TV 프로그램 편성표·신문기사·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언어 이해력을 묻는 4지선다형 문제 25문항을 출제하여 답하게 하였다. 비문해율 조사를 한 12,137명 중에서 지역·성·연령을 기준으로 한 표본 추출에 의거하여 6,781명에 대해 문해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79세 성인의 문해력 점수는 평균 63.6점으로 중학교 3년생⁴⁾의 평균 77.4점보다 낮았다. 또한 성인의 5.3%(약 200만 명)는 문장 이해력이 거의 없는 반문해(半文解, semi-literacy) 상태로 보인다. 낱글자나 단어는 읽을 수 있으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은행이나 관공서 서식 작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남의 도움 없이 처리하기 어려우리라고 추

4) 이 조사를 위해 전국 중학교 3학년생 332명(5개 지역 6개교)을 선정하여 비교 집단으로 삼았다.

정된다.

또한 문해력의 가장 높은 단계인 4수준 해당자는 성인의 경우 35.1%에 불과했으나, 중학생들은 68%에 달했다.

〈표 2-7〉 문해력 점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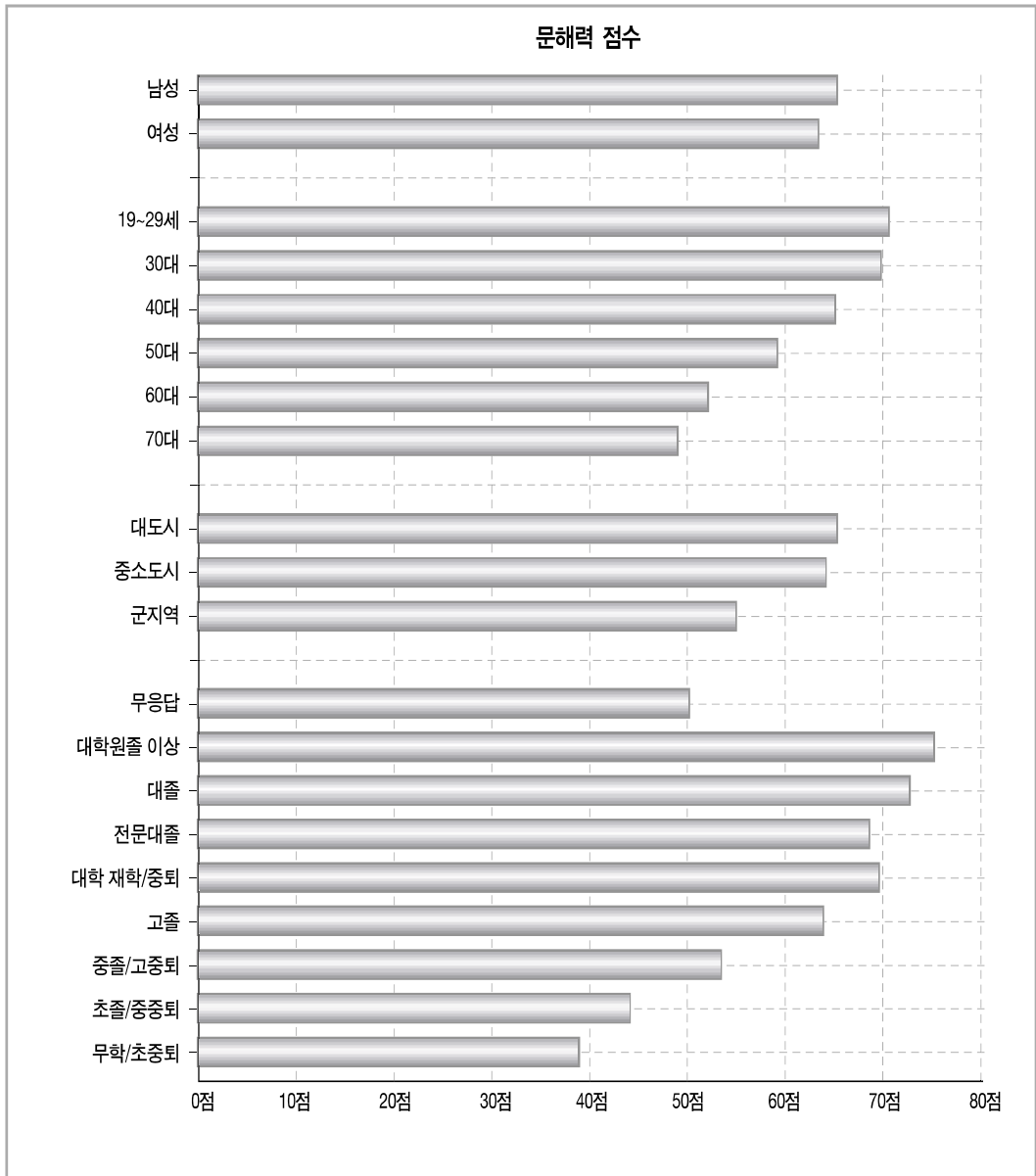
구분	단계	문해력 정도	비율	인구 수 (추정치)	점수 (4점단위)
문해력 부진 (7%)	0수준 (비문해자)	-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음	1.7%	약 62만명	-
	1수준 (반문해자)	- 낱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나 문장 이해 능력은 거의 없음	5.3%	약 198만명	24점 이하 (중학생 평균의 30% 이하)
기초 문해력 보유 (93%)	2수준	- 초청장·명함 등 간단한 생활문을 읽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음 - 다소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이해하지 못함	21.1%	약 788만명	28~48점 (중학생 평균의 30~60%)
	3수준	- 신문기사·광고·공공기관 서식 등 일상적인 생활문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음 - 법령문 등 복잡한 문서 이해나 추론 능력이 부족함	36.8%	약 1,374만명	42~72점 (중학생 평균의 70~80%)
	4수준	- 길고 어려운 문장이나 내용이 복잡한 문장도 잘 이해할 수 있음 -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추론할 수 있음	35.1%	약 1,310만명	76점 이상 (중학생 평균 수준 이상)

※중학생의 평균 점수를 근거로 연구진에서 정한 점수별 단계임

이 조사에서 남성(64.7점)이 여성(62.5점)보다 문해력이 약간 높게 나왔으며, 20대가 평균 70.2점으로 가장 높으며 70대는 39.3점으로 매우 낮았다. 문해력은 교육 정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자들은 75.5점, 무학이나 초등학교 중퇴자는 39.3점이었다. 아울러 독서량이 많을수록 문해력이 높게 나타났고,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문해력이 낮게 나타났다.

〈표 2-8〉 변인별 문해력 조사 결과

		응답자 수	문해력 점수 (100점 기준)
전 체		6,781	63.6
성 별	남 자	3,417	64.7
	여 자	3,364	62.5
연 령 별	19 ~ 29세	1,344	70.2
	30 대	1,583	69.5
	40 대	1,614	64.9
	50 대	1,124	59.2
	60 대	780	50.6
	70 대	336	39.3
학 력 수 준 별	무학/초중퇴	198	39.3
	초졸/중중퇴	562	43.5
	중졸/고중퇴	664	52.9
	고 졸	2,696	63.1
	대학재학/중퇴	654	69.5
	전 문 대 졸	616	68.9
	대 졸	1,304	72.3
	대학원졸이상	86	75.5
무 응 답	1	40.0	
월 평균 독서량	전혀 읽지 않음	2,985	56.9
	1 권	2,319	67.0
	2 ~ 3 권	1,044	69.6
	4 ~ 5 권	238	69.5
	6권 이상	184	70.5
	모름/무응답	11	53.5
하루 평균 TV시청 시간별	전혀 보지 않음	226	69.4
	30분 미만	559	69.8
	30분~1시간미만	1200	68.0
	1시간~2시간미만	2041	66.2
	2시간이상	2752	56.9
	모름/무응답	3	46.7



[그림 2-5]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문해력 조사 결과

질문 유형에 따른 경향을 보면, 질문지 항목 중에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문장을 특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5문항 중에서 직접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2문제였는데, 이 두 문항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해 전체 평균 정답률이 63.6%인데 반해, 택배 요금 계산 문제

의 정답률은 24.6%이었고, 시차 계산 문제는 32.3%에 불과했다. 또한 명함이나 초대장·무통장 입금증 등 생활에서 자주 겪는 내용을 다룬 질문은 정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법령문 등 전문적 내용이거나 투표 참여자 우대 안내문 등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한편 신문이나 방송을 보다가 어려운 한자어나 낯선 외래어가 나올 경우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 (27.5%)보다 찾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72.5%), 사전을 찾아보는 사람들의 문해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9〉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수	비율	문해력 점수 (100점 기준)
사전을 찾아 본다	1828	27.0	68.7
문맥을 통해 뜻을 짐작한다	2767	40.8	65.9
주변 사람에게 묻는다	584	8.6	58.1
모르는 대로 지나친다	1585	23.4	54.6

또한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말 중에 몰라서 곤란을 느끼는 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전문용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외래어’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2-10〉 신문·TV에 나오는 말 중 곤란을 느끼는 말의 종류 조사 결과

전문용어	한자어	외래어	신조어	없다
83.4	67.7	67.5	57.6	0.7

라. 비문해자 실태에 관한 논의

조사 결과, 2008년 한국 성인(19~79세)의 비문해율은 1.67%(문해율 98.33%)로 나타났다. 이는 1945년 해방 당시의 비문해율 77.8%는 물론이고 1970년의 7.0%에 비해 비약적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른 OECD 비문해율 평균 2.3%(2007년)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로서, 적어

도 기초·기본 문해력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⁵⁾ 1945년에 태어난 사람이 79세(조사 범위 내 최고령)가 되는 2024년이면 그 비율은 1%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완전 비문해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분적인 비문해자, 혹은 실질적 비문해자를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 점수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 비문해자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해 교육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문해자는 대체로 여성, 노인층, 군(郡) 지역 거주자, 농/임/어업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 저학력자,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개인의 문해력에 영향을 주고, 문해력이 다시 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비문해자는 공공생활과 개인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적극적으로 문해 교육을 받겠다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이는 노령 등으로 인해 문해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문해 교육에 어려움을 느껴 포기하거나, 현실적으로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해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비문해자가 언어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50대 이하의 성인 비문해자는 이주민, 질환·장애를 가진 사람, 언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이 대부분이다. 보통교육 외에 이들을 위한 문해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학교, 민간 기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해 교육 불가능 군(질환·장애 등)과 문해 교육 회피 군(연령, 실패 경험, 수치심 등)에 적합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응답자들의 반응을 통해 볼 때, 교재·교사·교실 등의 문해 교육 시스템 정비와 함께 필요한 일이 문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비문해자를 일종의 실패자로 여기거나 계몽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보다는 비문해를 여러 인간 특성 중 하나로 보고 삶의 질 차원에서 그들을 문해 쪽으로 이끄는 관점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해 교육을 위한 이론 및 기초 연구,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교육, 특수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들 작업을 통하여 성인 비문해자의 수를 줄이고, 남아 있는 비문해자들의 문자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5) 1.67%는 정신적·신체적 장애,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문자 습득기 식민지 경험 등의 비언어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비율이다.

마. 실태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우리의 삶 자체가 언어생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한 비문해율 및 문해력 실태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이번 문해력 실태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문해율, 즉 문맹률이 1.7%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국민이 62만 명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다수 60~70대에 속하는 이들 문맹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위해서 무료 한글 학교(혹은 성인 학교) 개설은 물론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맹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문해자를 포함해서 전 국민의 7.0%에 달하는 2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국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문해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읽고 쓰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국어 능력이 국민들 사이에서 최소한도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문맹자들은 물론이고 문해력 부진자들을 위해서도 국가적 지원 체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조사의 결과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문해력 신장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시키면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번 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민의 문해력도 조사하고자 했었다. 비록 그 숫자적 제한으로 인해서 뚜렷하게 그 결과가 보고되지는 못했지만 한국인의 평균 문해력 점수가 드러난 마당에, 이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과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이들의 국어 능력 신장에도 이번 조사 결과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각종 연구기관에 배포하여 연구와 실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번 문해력 실태 조사를 계기로 하여 우리들의 일상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읽기 영역에 집중한 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등 다양한 국어 생활의 면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이번 문해력 실태 조사는 객관적인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UNESCO 등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비문해자 비율 및 문해력 점수를 국가 공식 통계로 제공하도록 한다.

바.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비문해율은 1.7%였지만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인 5.3%까지 더하면 7%나 되는 사람들이 국어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여러 방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립국어원은 각 기관들과 공조하여 문해력 부진 계층을 위한 국어능력 향상 대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립국어원은 평생교육진흥원, 국어문화원 등과 공조하여 문해 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문해 교사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연수, 비문해자 대상 문해력 향상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력 부진 계층을 위한 문해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문화원에서는 각 지역에서 문해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 학습지를 개발하고 방문 교사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개 국어 초급 한국어 교재(말하기, 읽기), 부부 공동 학습 교재 개발,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기관(국어문화원, 지역문화원 등) 지원 강화, 쓰기 능력 강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기관에서에서는 국민들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국어문화 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즉 국어 전문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공무원반, 교사반, 군인반, 새터민반 등)한다거나,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를 개발·운영할 수 있다.
- ②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행정용어나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부처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③ ‘국어 전문 감수단’을 운영하여 교과서의 언어 표현·표기를 감수한다.
- ④ 전국 16개 지역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 ⑤ 독서운동 전개하고 글쓰기대회·토론대회 등 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는 행사를 지원한다.
- ⑥ 공공언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전개한다.(공공기관 서식, 안내문 등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책 마련)

- ⑦ 한글문화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국민의 국어의식을 고양한다.
- ⑧ 공공 기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킬 때 국어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편리한 언어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의 언어지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표준국어대사전의 웹서비스 보완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CD를 제작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무한정으로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을 국가 언어지식 총괄 사이트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도 있다. 외래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넷째, 국민의 국어능력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직업군별 문해력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예컨대 2008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군 간부를 대상으로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해 본 것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해 볼 수도 있고, 손님을 상대하는 상인들의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회 각종 사람들의 사회 방언 및 그 능력을 조사해 본다는 데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 이미 향후 국어능력 조사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있는 어휘력, 어문규범 지식,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영역별 국어능력 조사를 예정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계획 이후에도 각 사회계층의 국어능력과 각 직업별·집단별 국어능력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다양한 국어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국어능력 실태조사에 이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인 법령문이나 우체국 이용 안내, 전입신고서, 투표 참가자 우대 공지 등 공공 기관에서 작성하는 문건 등은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리적 문항에서 낮은 문해력을 보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실용적 교수 학습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쪽 방면에서도 실용적 수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부는 물론이고 이론적 학계와 실천적 교육계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 해외 보급

가.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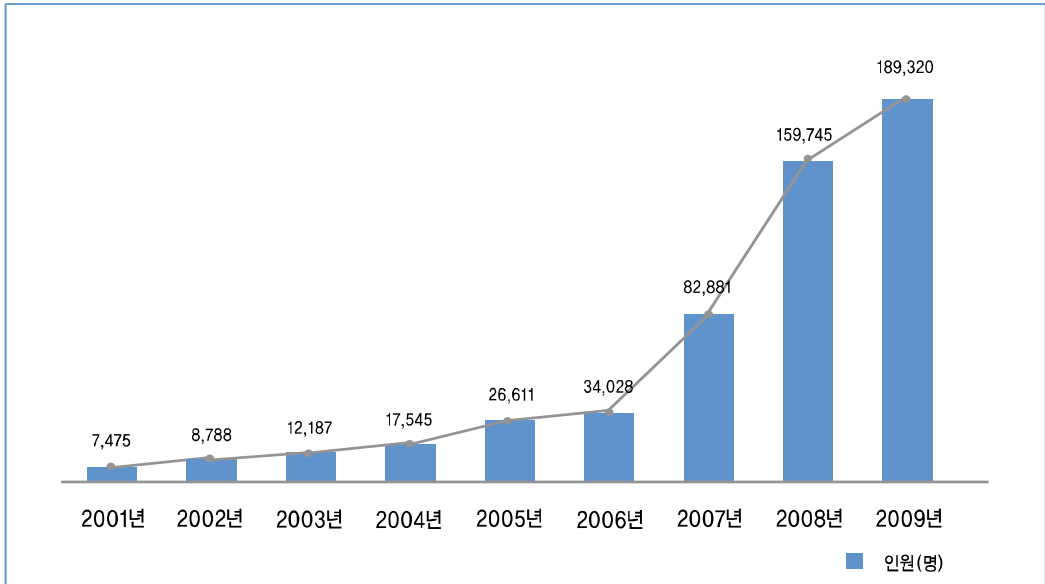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어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져 이제는 언어의 영향력 면에서 세계 10대 언어에 당당히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 결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 열풍이 대단하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사실 한국어보다 사용자가 더 많은 힌두어, 벵골어, 우르두어 등은 제3국의 외국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사용자 숫자를 고려한 국제적 소통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사용자보다 순위가 뒤로 밀린다.

2007년 UN 조사에 의하면 한국어의 언어 영향력은 9위, 사용 인구는 7,739만 명으로 세계 13위이다. 이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 II에 한국어가 포함되었다는 점과, 2007년 현재 전 세계 62개국의 750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제2의 국어로 채택한 나라로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수십여 개국이 넘는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에 따라 현지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한국어 학습 수요자와 국내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한국어가 이제 국제적 언어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에 7,475명에 불과하던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수가 2005년에는 26,611명, 2009년에는 189,320명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2005년 NHK 한국어 강좌 교재가 20만 부 이상 판매되어, 중국어를 앞지르고 2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어 학습자가 유학생·재외동포 중심에서 현지 외국인(일반대중)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류 열풍과 외국인 고용 확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의 영향이 크다.

〈표 2-11〉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수 증가 추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명)	7,475	8,788	12,187	17,545	26,611	34,028	82,881	159,745	189,320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사회교육원 형태의 교육기관이자 한국어 문화 학교인 ‘세종학당’을 국외 각지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아시아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국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에 외국인 취업이 증가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다.

나.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 현황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은 총111개국 2,155개소에서 연 137,000명이 수강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세종학당 8개국 19개소 4,000명, 한국문화원 9개국 11개소 5,000명, 한글학교 111개국 2,125개소 128,000명이 수강하고 있다.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보급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부처별 한국어 보급 사업 지원 현황

구 분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법적근거		- 국어기본법	- 재외동포재단법	-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책대상		- 외국인, 재외동포	- 재외동포	- 재외동포
교육기관		- 세종학당(8개국 19개)	- 한글학교(111개국 2,125개) *교회 등에 운영, 민간자생 설립	- 한국교육원(14개국 34개) - 한국학교(정규교육기관)
교 원	파견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 한국어 교수 파견 (21개국 34명) - 한국어 봉사단원 파견 (20개국 121명)	- 한국학 교수 파견 (11개국 18명)
	교육	- 국외 한국어 교사 연수	- 한글학교 교사 재교육	
교재개발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표준 교재 개발·보급 - 학습사전 등 개발	- 국외 대학용 교재 개발·보급	-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보급
학습사이트 운영		- 국어원 교육사이트 운영 - 통합사이트(U-세종) 구축 중	- 재외동포재단 운영 (study.korean.net)	-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www.kosnet.go.kr)
관련기관		- 국립국어원 - 재외 한국문화원 - 한국어세계화재단 - 한글학회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협력단 - 재외동포재단	-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하여 현지 대학 등과 연계하여 설립되는 ‘세종학당’은 제1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100개교, 제2단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 100개교 등 총 200개교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문화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이미 1883년부터 ‘알리앙스 프랑세즈’라는 이름으로 현재 136개국 1,040개소의 자국어 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브리티시 카운슬’을 1934년부터 110개국 23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1972년부터 현재까지 19개국 21개의 ‘일본어국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공자학원’이라는 브랜드로 자국어 보급기관을 공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83개국 331개 기관을 설치·운영 중이며 2010년까지 500개를 설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어 보급기관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여 언어시장을 확대하고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 해외사례 1 :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 1883년 파리에 처음 설립, 현재 136개국 1,040개소 운영
 - 국외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파리 알리앙스 본부의 프랜차이즈 성격
- 주요 기능
 - 프랑스어 교육 실시(표준화된 단계별 교육안을 현지 상황에 맞게 변용)
 - 프랑스어 능력 및 자격 시험 실시(DALF, DELF, TEF 등)
 - 프랑스 문화전파 및 문화 다양성을 위한 노력
-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07 설립)
 - 세계 각국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인증(전 세계 알리앙스 프랑세즈 명칭을 사용할 기관을 신청 받아 심사한 후, 명칭을 사용할 권리 부여)
 - 알리앙스 프랑세즈 운영 지문
 - 프랑스어 교사 양성/연수 지원

□ 해외사례 2 : 일본국제교류기금(일본어국제센터)

- 조직 : 본부(도쿄), 지부(교토), 부속기관(일본어국제센터, 간사이국제센터), 해외사무소 21개
- 일본어 교육 관련 주요 사업
 - 일본어교육 스탠더드의 개발: 일본어 사용능력 관련 국제표준 개발,
 - 전 세계 일본어 교육기관을 연계, 니혼고 네트워크(통칭: 사쿠라 네트워크) 구축, '10년까지 100개 기관 목표
 - 일본어능력시험 실시(연1회): 51개국 160지역 시행, 52만 4천명응시('07년)
 - 일본어 교육 전문가 해외 파견(39개국 106명)
 - 일본어 교사 방일 연수(연간 50개국 500명), 해외 순회 세미나
 - 일본어 학습자 방일 연수(연간 95개국 500명)
 - 교재의 개발·제작 지원, 교재의 기증
 - 해외일본어교육기관 지원: 현지 강사의 인건비, 교사세미나, 말하기대회 등
 - 조사·정보 제공·홍보: 해외 일본어교육기관 조사(매3년), 각국의 일본어교육 상황(수시) 등

□ 해외사례 3 중국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

- 설립연도: 2004. 11. 21 (한국 서울에 처음으로 설립)
- 주관기관: 중국 교육부와 '중국국가대외한어교학영도소조'
 - 운영주체: 국가한판(國家漢辦) ※ 교육부 소속 사업단위, 비정부·비영리기관
- 관리기관: 공자학원총부(2007. 4. 9. 설립, 베이징 소재)
 - ※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중국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경에 본부를 설립
- 설립현황: 83개국에 331개의 공자학원을 설립(2009년 5월 기준)
 - 대학에 설치한 공자학원 264개, 초·중·고에 설치한 공자교실 67개
 - 한국: 10개 지역 12개 공자학원 개설 중
- 향후계획: 2010년까지 500여개 설립 계획
- 주요사업
 - 중국어 교사 양성과 지원, 교과 과정의 교류, 중국어 교재 개발과 지원, 분야별 학술대회 개최, 각종 경시·경연대회 개최, 중국어 학습 자료 제공, 장학생 선원, 파견(교수, 교사, 학생의 장·단기 연구 활동 지원), 중국어 교사 추천·자문(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중국 유학 등)

□ 해외사례 4 : 러시아 러시아센터

- 설립연도: 2007년
- 설립목적: 푸틴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러시아어와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위해 설립
- 주관기관: 루스키미르 재단(Russkiy Mir Foundation)
 - ※ 외교부, 교육부 지원의 비영리 재단
- 설립현황: 세계 각국 30여개
 -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2개소), 카자흐스탄(2개소), 일본, 벨기에, 미국 등에서 운영
 - 한국: 서울대, 고려대 2개소 운영 중
- 주요 사업
 - 러시아어 보급
 - 전시회, 박람회, 영화 페스티벌, 각종 경연대회를 통해 러시아 문화 홍보 지원

3. 국어교육

국어교육 현황은 공교육 과정인 학교 국어교육과 평생 국어교육으로 구분된다.

가. 학교 국어교육 환경

1) 학생인구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유아 교육 학생 수는 911,931명, 초등학생은 3,929,257명, 중등학생(중학생, 일반 고등학생, 기술 및 직업 고등학생 포함)은 3,815,528명,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은 3,141,818명으로 합계 1천 180만여 명이 공교육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어교육을 받고 있다.

〈표 2-13〉 통계청 학생 통계(2005년)

분류	학생 수
유아	911,931
초등	3,929,257
중학교	2,033,008
일반 고등학교	1,382,862
기술 및 직업 고교	399,658
전문대학	603,017
대학교	2,538,801
합계	11,798,534

2) 국어과의 교과 성격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국어과’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국어과’의 성격을 기술하고 있다.

“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또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어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한다. 이를 통해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 시민의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과는 이해의 정확성, 비판성과 표현의 효과성과 창의성을 국어능력으로 중시함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개인의 사고력 함양, 국어 문화 의식 고양(高揚), 국어 발전 태도 함양을 목표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특징

국어과의 교육 영역은 ①말하기, ②듣기, ③읽기, ④쓰기, ⑤문학, ⑥문법의 6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국어과의 교육 영역은 각 교육 단계별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다.

현행 국어과의 교육 단계는 ‘국민공통 교육과정 단계’와 ‘선택중심 교육과정 단계’로 나뉘어 있다. 두 단계에서 주로 다루는 교육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4〉 교육 단계별 국어교육 영역

교육 단계	기간	교육 영역	
국민공통 교육과정 단계	1~10년 (초등 1년~ 고1년)	초등 1~3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영역별 교과서 학습
		초등 4~6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영역별 교과서 학습
		중학 1~3	매학기 〈국어〉, 〈생활국어〉 학습
		고교 1	매학기 〈국어〉 학습
선택중심 교육과정 단계	11~12년(고2~3년)	일반선택: 〈국어생활〉 심화선택: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중 선택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는 국정 교과서로 교육하고 있고, 중학교 교과서부터는 국정제를 폐지하고 검인정제로 전환하여 현재 검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2009년 34종 출원 23종 적합 판정). 검인정제 교과서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10년, 고등학교는 2011년에 본격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4) 국어교육의 실태 - 독서 교육 현황⁶⁾

국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성숙한 문화 시민의 소양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독서 능력에서 교육 효과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의 단적인 실태는 독서 교육과 독서 능력 현황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가) 독서율⁷⁾

2008년 문화부에서 펴낸 독서 백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성인의 독서율은 72.2%로 2007년의 76.7%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72.2%라는 수치는 지난 1년간 ‘한 권 이상의 일반도서를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1년간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에 초·중고생의 한 학기 독서율은 89.1%로 2002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초·중·고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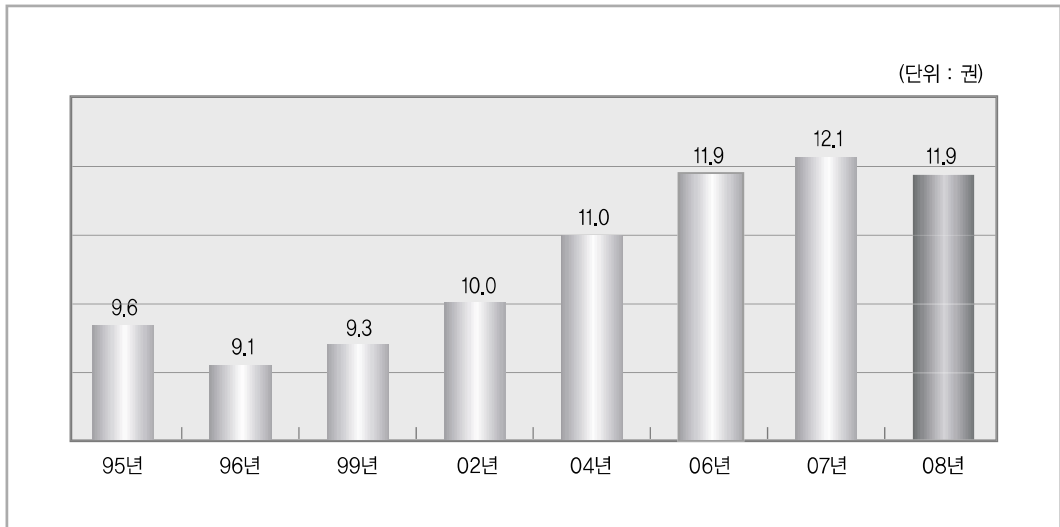
또한 2008년의 전체 독서율은 1995년에 조사한 독서율과 비교했을 때 성인 독서율은 6.8%, 학생 독서율은 8%가 감소한 수치이다.

나) 독서량

성인의 경우 연평균 독서량은 11.9권으로 '06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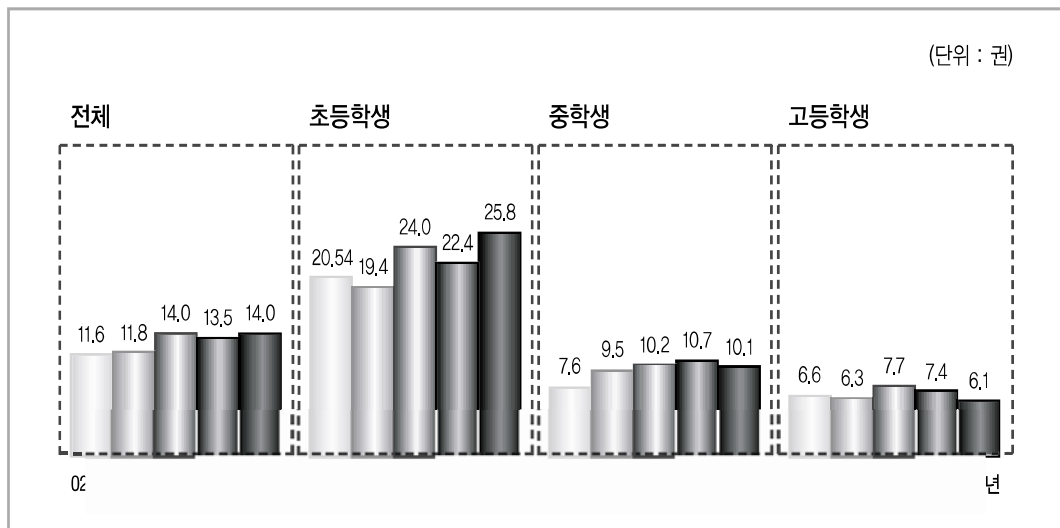
6) 문화부 2008 독서 백서를 참고함.

7) 지난 1년간(성인) 또는 한 학기 동안(학생) 1권 이상의 책(일반도서)을 읽은 사람의 비율임.



[그림 2-6]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 변화 추이

이에 비해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독서량은 14.0권으로 2007년(13.5권)과 비교해 0.5권이 증가했다. 초등학생 25.8권, 중학생 10.1권, 고등학생 6.1권으로 2007년에 비해 초등학생의 독서량은 증가한 반면 중·고교생의 독서량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독서 관련 활동(아침독서 등)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7] 학생의 학기당 평균 독서량 변화 추이

다) 독서시간⁸⁾

성인의 독서 시간은 평일 29분, 주말 30분으로, 2007년(평일 33분, 주말 35분)에 비해 각각 4~5분 정도 감소했다. 학생들의 독서 시간은 평일 41분, 주말 48분으로, 2007년(평일 45분, 주말 51분)에 비해 각각 3~4분 정도 감소했다. 학생들의 경우,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독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접촉시간을 보면, 인쇄매체 접촉시간이 영상매체 및 정보오락매체 이용시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학생의 인쇄매체 접촉시간

(단위 : 분)

학생		07년		08년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인쇄매체	일반도서	45	51	41	48
	만화	23	25	19	23
	잡지	7	6	4	6
	신문	7	6	5	5
	소계	82	88	70	82
영상매체	TV	96	153	88	144
	영화	9	16	12	23
	소계	105	169	100	168
음향매체	라디오	10	11	12	11
	음악듣기	59	65	60	67
	소계	69	76	72	79
정보오락매체	인터넷	85	131	46	68
	게임하기	-	-	48	75
	휴대폰/PDA	86	91	54	58
	소계	171	222	148	201

라) 학교의 독서 환경

조사대상 학생들 중 ‘학교도서관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96.5%였으나,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69.5%로 비이용자가 3명 중 1명 꼴로 많았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8) 독서시간 : 만화, 잡지, 신문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 독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실질적인 독서 활동을 고취시키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학교도서관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읽을 만한 책이 없다(26.1%), 이용할 시간이 없다(21.5%), 원하는 책을 찾기 어렵다(16.7%), 책이 낡고 지저분하다(4.2%)’ 등 아직까지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독서 공간 및 시설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독서 권장률도 평균 48.2%로 절반 이하이며 초(50.4%), 중(50.2%), 고(43.9%) 순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독서지도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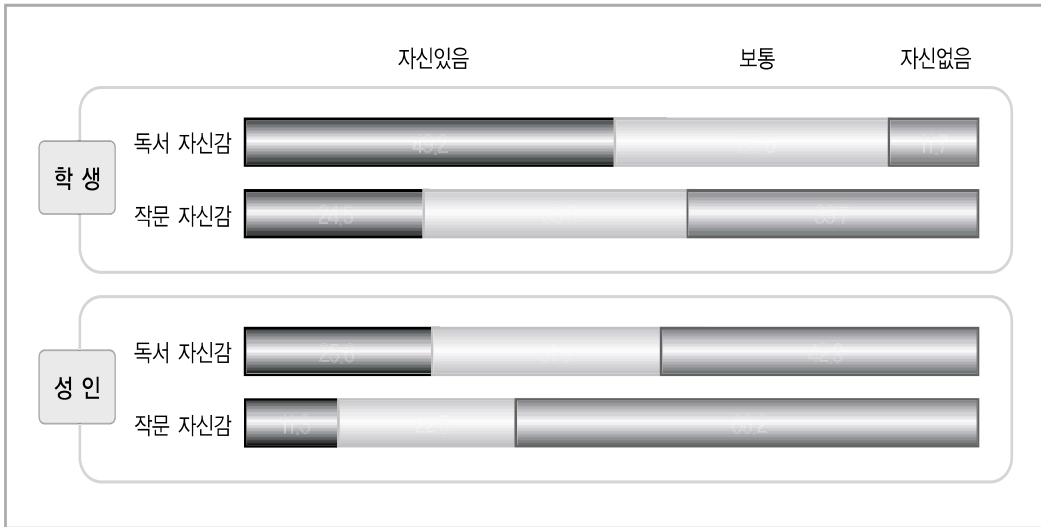
백서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아침독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과 수업 전 ‘아침독서’ 시간이 있다는 응답은 57.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침독서’ 참여 학생이 비참여 학생보다 독서량이 훨씬 많게 나타나기도 했다.

〈표 2-16〉 아침독서 시간 여부와 독서량과의 상관성

아침 독서시간 여부	전체	학교급별			한 학기 독서량				
		초등학생	중 학생	고등학생	없음	1~4권	5~ 10권	11~ 20권	21권 이상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328	828	760	413	671
있다	57.6	82.4	55.8	34.5	39.6	47.7	56.3	65.9	74.8
없다	42.4	17.6	44.2	65.5	60.4	52.3	43.7	34.1	25.2

마) 글 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

평소 ‘글 읽기’에 자신감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중 1/4, 학생 중 1/2 수준이며,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은 ‘글 읽기’ 자신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은 독서량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독서량의 관계

이상 독서 관련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교육에서 국어교육의 질적 개선은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아직 공교육 기관에서의 국어 교육이 독서나 글쓰기 등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평생 국어교육 환경

국민의 국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일반 환경으로는 언론, 정부, 기업, 가정을 들 수 있다.

1) 언론을 통한 국어교육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각 방송국을 통해 우리말 바로쓰기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관련 퀴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각종 자막 처리를 규범에 맞게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2) 정부를 통한 국어교육

각종 정부 담화 및 연설은 국어 화법 교육의 표본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 담화 등 각

중 담화 및 연설은 국민에게 역사 기억을 재생·환기시키는 역사 교과서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국가 비전, 국민 비전을 제시하고 환기시키는 정치 경제 교과서 역할을 한다. 모든 부문에서 합법적, 합리적, 과학적 국어 구사능력을 보여 주는 명문은 그 자체로 좋은 국어 교과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 담화 및 연설에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어휘와 문장, 진취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 공문서도 중요하다.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직자 언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투철한 공직관을 바탕으로 언어예절을 갖추고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공문서가 합법성, 논리성,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 등을 바탕으로 쓰이고 보급되어야 한다.

현재 국어책임관제도를 통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좀 더 표준적이고 공식적인 언어 사용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3) 기업을 통한 국어교육

기업의 각종 광고, 상품명은 미풍양속을 지키고 외국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말의 아름다운 표현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국어의 내적 생성력이 강화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순화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본어투 용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를 국민 참여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자체, 기업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어문 규범을 재교육할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에서는 전국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에서 신청하면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언어규범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국어 관련 강좌와 정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4) 가정을 통한 국어교육

언어예절, 언어교양은 가정에서부터 수행되어야 하므로 가정에서의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유아 언어 발달은 친부모의 직접적인 가정 언어 지도가 중요함에도 맞벌이부부 증가, 보육 환경 불비로 조부모 양육, 보모 육아 등 유아와 부모의 분리 현상이 증가하여 아동의 언어 발달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폐증 등 각종 언어병리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4. 민간 국어 관련 단체

국어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활동 내용을 갖는 민간 차원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 국어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국어 정책을 민간을 통해 수행한다든지, 또는 국어 정책에 관한 민간 단체의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학회, 연구소, 단체 등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5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어 관련 단체는 학술대회 개최나 학회지 발간 등 연구 목적의 학회가 35개, 국어 상담·국어문화 운동·한글문화 운동·한글 글꼴 개발·한글 이름 등 국어 관련 활동 중심의 단체가 19개, 사전 편찬이나 특정 주제를 심화 연구하는 연구소가 6개, 한국어세계화나 세종대왕 기념사업 등을 담당하는 재단/법인이 2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표 2-17〉 국어 관련 단체 통계

(2009년 5월)

형 태	단체수
학 회	35개
단 체	19개
연구소	6개
재단/법인	2개
합 계	62개

가. 국어 관련 단체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8〉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2009년 6월)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1	국어단체연합	2006년 국어상담소를 인가받기 위하여 국어단체 몇몇 대표자가 모여 만든 임시 단체.	'국어단체 국어문화원'이 있음.	단체
2	국어문화운동본부	문장사를 양성하고자 설립한 단체	10여 명 문장사 활동	단체
3	국어순화추진회	한글 전용으로 글자 생활의 민주화와 민족 문화 향상	국어순화자료집 우리말 순화의 어제와 오늘 한글과 거례 문화(96)	단체
4	세종대왕생가터복원준비위원회	최근 조직된 단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을 목적으로 함	한글단체 대표들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 건의문 전달	단체
5	우리말바로쓰기모임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 목적	'우리말 바로 쓰기' 강연회 개최	단체
6	우리말살리는거레모임	우리말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매년 우리말 해침꾼을 선정하여 발표	단체
7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 현직국어교사연합모임	국어 교육 관련 연구 및 출판 활동	단체
8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전국 대학생 중심 국어운동 목적	강연회 개최 및 회지 발간 국어 정화 및 우리말 애호 운동	단체
9	짚신문학회	우리 문학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됨	문학 활동을 주로 하는 모임	단체
10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 문화 운동 목적	한글 인터넷 주소 추진	단체
11	한글문화연구회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나라말을 살려내고 이를 다듬고 가꾸어 한글 문화 증흥에 기여	국어 사전 작업을 주로 하는 단체	단체
12	한글문화연대	우리 말글을 가꾸며 우리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단체	학술 운동 한글문화, 시민운동 전개 관련 단체와의 대외 협력 추진	단체
13	한글문화원	한글 기계화 운동	한글 자판 연구와 세벌식 자판 보급	단체
14	한말글문화협회	한글 전용 및 기계화를 위한 한글 학회 내의 운동 모임	'한글새소식' 창간, 한글큰잔치 준비 성명서 제출	단체
15	한겨레말글연구소	우리 민족 말글 연구 목적	학술 발표회 개최(년 1,2회)	단체
16	외솔회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단체	매년 외솔상 시상	단체
17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우리 문화 보존 목적	강연회 개최 및 출간	단체
18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 글꼴이나 한글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신생 단체	한글 문화 상품 개발 한글 문화 상품 공모전 개최 한글 사랑 서각전 개최	단체
19	한류전략연구소	근래에 생긴 단체. 회원 없음	한글 관련 디자인 사업	단체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2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이를 보존·선양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5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체	세종실록 국역, 고전 국역 세종대왕 관련 서적 발간 한글 기계화 세종대왕기념관 관리·운영	법인
21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한국어 및 각종 외국어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언어 처리 및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추진	언어정보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소
22	국어교육연구소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국어 교육의 학문적 체계를 위한 기초적, 실질적 연구와 그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발간 정기 학술 발표회 개최 교과서 및 한국어 교재 개발 국어 능력 측정 방안 연구 전국 중·고등학생 국어경시대회 개최 국어질문방 운영	연구소
23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에 의해 각 지역에 설립된 국어단체	국어상담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 국어관련행사 언어환경 개선사업 지역어조사 사업	연구소
24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고려대)	실제 국어 생활에 필요한 명시적이고 유용한 언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사전 제작	국어사전편찬	연구소
25	언어문화연구원	언어문화 연구 목적	언어문화 연구지 발간	연구소
26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국어학과 전산 기술의 접목, 사전 편찬학, 말뭉치 언어학 등 새로운 첨단 학문 분야의 개척과 국어정보화 사업에 주력 *1986년 ‘한국어사전편찬실’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사전편찬 데이터베이스구축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세 한국어 대사전” 편찬	연구소
27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의 세계 보급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진흥에 이바지	교재 및 기초 학습 사전 개발 한국어 교사 양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재단
28	구결학회	차자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시를 중점적으로 연구	구결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매월 월례강독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29	국어교육학회(경북대)	중등학교 국어 교육에 관한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어 교육의 이론과 이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함께 추구	국어교육연구발간 전국 학술 대회 개최	학회
30	국어학회	순수한 국어학의 연구와 보급 및 연구자 간 친목 도모	‘國語學’발간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31	국제어문학회	국어학, 국문학, 국어 교육학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	국제어문 발간 정기 학술 대회 개최	학회
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IAKLE)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자의 발전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국내 한국어 교육 최대 학회	학회지와 소식지 발간 학술대회, 연수회 개최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 발간 정보 교환 및 학문적 협조	학회
33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INK)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진 국내외 학자와 교육자가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립과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논문집 발간	학회
34	담화인지언어학회	담화문법, 인지언어학, 화용론을 연구하여 언어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	학술대회 개최 연구 윤리규정의 제정 확보	학회
35	대한언어학회	어학, 국문학, 국어언어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그 활용을 통하여 언어학 발전에 공헌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산하 연구학회 운영	학회
36	대한음성학회	음성언어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	학술대회 개최 논문집 발간	학회
37	배달말교육학회	외국어 교육과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국어 교육 개선에 이바지	배달말교육 발간	학회
38	배달말학회	배달말·글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배달 거래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	배달말 발간 국내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39	어문연구학회	국어학, 국문학, 민속학, 한문학을 연구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고유성을 중점 계발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	어문연구 발간 학술 대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40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과 우리글(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문화 창달에 이바지	우리말글 발간 전국학술발표대회 개최 매월 월례발표회 개최 우리말글 학술상 수여	학회
41	한국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올바른 국어생활 실천	'새국어교육' 발간 교과서, 학습 지도 방법 연구 및 국어교육자료 제공	학회
42	한국문법교육학회	국어 문법의 논리적 체계를 재정립하고 문법교육의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하여 이를 국어 교육 현장에 반영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학회
43	한국방언학회	방언을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	방언학 발간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학회
44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상황을 연구하는 목적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45	한국알타이학회	한국과 주변 알타이 제민족의 언어, 문화, 역사, 민속 등 문화 전반에 대하여 연구	알타이학보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
46	한국어교육학회/ *구 한국국어교육 연구학회	국어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어교육 향상에 이바지	학술대회 개최(매년 2회) '국어교육' 학회지 발간	학회
47	한국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 및 세계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	전국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어문학')	학회
48	한국어문화/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국어국문학 학술연구와 한자교육을 통한 국어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함.	한지능력검정시험 개최 장학사업 및 한자교육 사업	학회
49	한국어어미학회	국어 의미론 연구에 뜻을 둔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과 친선 도모	한국어어미학 발간 학술발표대회 개최	학회
50	한국언어학회	언어의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을 목적	언어(계간) 발간 소식지	학회
51	한국언어학회	언어의 일반 이론 연구와 개별 언어의 연구를 목적	언어학(연 2회) 발간 학회 소식(계간)	학회
52	한말연구학회	한글전용 운동을 적극 지지·추진함과 아울러 우리말·글 연구를 목적	한말연구 발간 우리말연구(연간)	학회
53	한민족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	한민족어문학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54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국어 및 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함	국어교육학연구 발간 학술발표대회 개최	학회
55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코리아학 연구 발전 및 연구자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발간 전국 학술 대회 개최	학회
56	한국화법학회	화법학,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화법론 발전과 화법 교육의 향상에 기여	화법연구 발간	학회
57	이중언어학회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응용 사업 추진을 위해 1980년대 설립된 최초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	학회지 및 학술자료 발간 학술대회 개최 외국어교육학의 연구와 교류	학회
58	국어정보학회/ 한국어정보학회	국어 정보 처리의 이론 체계 정립과 기술 향상을 통한 정보 산업 성장 지원, 국어 정보 처리 기술의 보급 및 표준화	한국어정보학 발간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학회
59	국제한국언어학회	북미한국언어학회 조직을 위한 특별준비위원회 학회 결성 발표, 아시아연구회와 연합 학술 교류 증진	정기 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
60	한국어학회	한국어학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학의 발전 및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	한국어학 발간 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61	국어국문학회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정신을 양양하여 세계문화에 기여	국어국문학(연 3회) 발간	학회
62	한글학회	한글의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학술단체 (*1908년 국어연구학회가 모체임)	한글만 쓰기 운동 국어의 순화운동 한글의 기계화운동 조선어사전 편찬 추진 교육 및 학술지 발간	학회 /법인

제2절 국외 현황

1. 개요

우리나라 주요 국어 정책 기관의 효율적인 언어 정책 수립, 시행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의 언어 정책 기관을 중심으로 주요 언어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 세계를 영어권, 아시아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포르투갈어권 포함), 아랍어권 및 유럽어권의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6개 권역에서 체계적으로 언어 정책을 수립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기관을 두 개 이상 선정하였다. 6개 권역에서 선정한 14개 주요 국가는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은 선정된 각 국가의 주요 언어 정책(연구)기관의 형태, 성격, 조직 구조, 예산, 사업 내용 등 개괄적 현황과 심층적으로 주요 발간물, 진행 중인 과제, 핵심과제, 언어 정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이다.



[그림 2-9] 6개 권역의 14개 주요 국가

14개 주요 국가의 언어 정책 수행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관들은 주로 국립 기관 또는 국가 지원 기관이며 국립 기관이 없는 국가는 민간 기관을 조사하였다.

〈표 2-19〉 조사 대상 6개 권역의 14개 주요 국가의 기관명

권역	국가	기관 명	기관 성격
영어권	미국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CAL) (응용언어학센터)	민간기관
	캐나다	Canadian Heritage (CH) (캐나다인 헤리티지)	국립기관
	남아프리카 공화국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PSALB) (범남아프리카 언어위원회)	국립기관
아시아권	일본	国立国語研究所 (The National Institute for Japanese Language: NIJL) (국립국어연구소)	국가지원기관
	말레이시아	Dewan Bahasa dan Pustaka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ILL) (언어문학연구소)	국가지원기관
	인도	भारतीय भाषा संस्थान (Central Institute of Indian Languages: CIIL) (국어중앙연구소)	국립기관
프랑스어권	프랑스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General Delegation to French Language and Languages of France: GDFLLF) (프랑스어·지역어연구원)	국립기관
	캐나다(퀘벡)	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 (Quebec Office for French Language: QOFL) (퀘벡불어청)	국립기관
스페인어권 (포르투갈어권)	스페인	Real Academia de la Lengua Española (The Royal Academy of the Spanish Language: RASL) (왕립스페인어 한림원)	국가지원기관
	포르투갈	Instituto Camões (Institute Camões: IC) (카몽이스재단)	국가지원기관
아랍어권	이집트	Majma' al-Lughah al-'Arabiyyah bi Misr جمع اللغة العربية بمصر (Academy of the Arabic Language in Egypt: AALE) (이집트아랍어학술원)	국립기관
	시리아	Majma' al-Lughah al-'Arabiyyah bi Dimashq جمع اللغة العربية بدمشق (Academy of the Arabic Language in Damascus: AALD) (다마스쿠스아랍어학술원)	국립기관
유럽어권	독일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Institute for German Language: IGL) (독일어연구소)	민간기관
	네덜란드	De Nederlandse Taalunie (Dutch Language Union: DLD) (네덜란드언어연합회)	국가지원기관

본 조사 결과에서 주지할 것은 언어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각국 해당 기관의 예산 총액, 정규직 인원 수 등 몇 항목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혹은 대외비여서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를 위해 관련 국가 대사관, 현지 해당 기관 등을 다각도로 접촉하고 문의하여 이들을 최대한 조사하였다. 따라서 결과에서 제시한 예산 총액, 정규직 인원 수 등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2. 주요 국가의 언어 정책 내용

전 세계 각국의 언어 정책은 그 국가가 ‘단일민족국가’ 인지 또는 ‘다민족국가’인지에 따라 다르다. 단일민족국가는 고유한 언어 및 문화 주체성의 유지, 발전 및 확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 및 과제의 시행, 즉 일반 국민 및 전문가를 위한 국어교육 및 재교육,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급, 신조어 규범화, 언어평가, 관련 서적 및 사전 발간, 전자출판, 타 기관과 교류협력 등이 주요 언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민족국가의 언어 정책은 다언어 및 다문화 속에서 공식 언어 및 이중 언어 교육, 고유어 유지 및 발전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기조로 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 및 과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6개 권역의 14개 주요 국가의 언어 정책(연구)기관의 현황은 <표 2-19>와 같다. 이들 국가에서 언어 정책(연구)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은 국립기관, 국가지원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다양하나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가 및 국립 기관들이다. 전반적으로 국가별 언어 정책에 따른 주요행사 및 사업, 핵심과제는 언어 정책 모형 개발, 국어 및 문자 교육,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언어평가 모형 개발 및 시행, 관련 도서 및 전자 출판물, 연구 보고서, 언어 사전 발간 등으로 거의 유사한 것 같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언어 정책이 고유한 언어 및 문화 주체성의 유지, 발전 및 확산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타 국가의 관련 국가 기관 및 민간 기관들과 교류, 공동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지할 것은 앞서 언급한 주요행사 및 사업, 핵심과제, 관련 기관과의 교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 위해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이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국가지원 언어 정책기관인 언어문화원은 1

년 예산이 2007년 기준으로 109,440,000링깃(약 30,750,450,000원)이며 인력은 정규직은 878명, 그리고 비정규직도 126명이나 된다. 이는 다문화주의의 언어 정책이 필요한 특징 때문이기도 한 데 조사한 경제 선진국을 포함한 13개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4개국 중에서 공개 자료가 가장 미비한 스페인은 비교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 주요 국가별 조사 대상 기관의 주요 행사 및 사업 내용

국가의 주요 언어 정책을 대변하는 주요 행사 및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14개 기관들은 모두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의 올바른 자국어(공식어) 교수·학습 증진을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대부분 국가의 기관에서는 자국민의 문맹 퇴치를 위해 문자 및 문법 관련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과 교사,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연구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 말레이시아 및 프랑스는 이중 및 다중 언어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중 및 다중언어 국가 및 아랍권 국가들은 고유어 연구와 언어 표준화 및 전문용어 연구, 고대문헌(유산) 수집 및 연구, 어휘 연구, 사전 편찬 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유럽어권 국가들은 언어, 문자 교육의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위원회 및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4개국 중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미국, 캐나다 및 인도의 기관들은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연구하고 전자 출판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타 국가의 기관과는 달리 언어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과 연계하고 있으며 대학원과정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현재는 물론 향후 효율적인 언어 정책 연구, 개발 및 시행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투자로 판단된다.

〈표 2-20〉 14개 주요 국가의 기관별 주요 행사 및 사업 내용

항목	국가													
	미국 CAL	캐나다 CH	남아프 리카 공화국 PSALB	일본 NIJL	말레이 시아 ILL	인도 CIL	포르투갈 IC	프랑스 GDFLLF	캐나다 (퀘벡)	이집트 AALE	시리아 AALD	독일 IGL	네덜 란드 DLD	
공식어(국어) 연구/교육	●	●	●	●	●	●	●	●	●	●	●	●	●	
고유어 연구			●		●	●				●	●	●		
방언 연구					●					●		●		
이중/다중언어 교육	●	●	●		●			●						
언어 표준화/ 전문용어 연구			●		●			●	●	●	●	●		
문자/문법교육 (문맹 퇴치)	●		●	●		●		●		●	●	●		
온라인 교육									●					
국어/외국어 교사 평가	●													
언어 평가	●					●			●					
연수 프로그램	●	●			●	●	●					●	●	
통번역		●				●		●			●			
문자/언어교육 위원회 개최	●		●					●		●	●	●	●	
언어기관 설립		●	●											
교육연구센터 설립/운영	●		●			●								
학술대회/포럼 /세미나 개최			●		●			●	●	●	●	●		
자국어 해외 보급/ 활용	●						●						●	
방송 프로그램 혁신/시상		●			●	●								
대학/대학원 연계 과정				●										
문화 활동 프로그램		●			●	●	●			●				
고대문헌(유산) 수집/연구		●			●		●			●	●	●		
언어DB 구축			●	●		●			●					
어휘 연구/ 구축			●		●	●		●		●	●	●		
언어 코퍼스 연구/ 구축				●	●	●						●		
사전 편찬			●		●	●		●		●		●		
문학작품 연구, 시상, 출판					●					●	●		●	
학술지/보고서발간	●				●		●	●	●	●	●	●	●	
전문서적 발간	●									●	●		●	
교과서 발간					●									
전자(온라인 콘텐츠)출판		●			●				●					

나. 주요 국가별 조사 대상 기관의 주요 산출물

14개 주요 국가 기관들 중 대부분의 기관들은 주요 행사 및 사업 내용의 산출물로 먼저 공식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식지 및 월간지 또는 연례보고서, 논문 및 발표집, 언어 및 문학 서적 등을 발간하고 있다.

〈표 2-21〉 14개 주요 국가의 기관별 주요 산출(발간)물

항목	국가												
	미국 CAL	캐나다 CH	남아프 리카 공화국 PSALB	일본 NIJL	말레이 시아 IL	인도 CIL	포르투갈 IC	프랑스 GDFLLF	캐나다 (퀘벡)	이집트 AALE	시리아 AALD	독일 IGL	네덜란드 DLD
연례보고서	●	●	●	●				●		●		●	
소식지/월간지	●	●			●		●	●	●	●	●	●	●
논문/발표집	●	●		●	●					●			●
언어 정책교본												●	
언어연구/센터 설립	●		●	●				●					
공식어(교육)관련 프로그램	●	●	●	●	●	●	●	●		●		●	●
제2/이중/다중 언어교육 프로그램	●	●	●				●						
언어보존/복구		●	●	●	●	●				●	●	●	
언어교수/학습방법 개발	●	●		●			●						●
언어평가 프로그램(지침서)	●					●			●				
사전류 편찬			●		●			●		●	●	●	
전자사전 편찬			●		●								
언어/문학서적		●			●	●	●		●	●	●		●
문법 관련 서적			●		●	●						●	
교과서 편찬					●								
언어BD 구축			●	●	●	●							
코퍼스 구축				●	●	●							
통번역 시스템			●			●		●					
사회/문화 콘텐츠		●			●								
뉴스, 비디오, CD 등 콘텐츠		●			●	●			●				

둘째, 이중 및 다중언어 국가 및 아랍권 국가들은 고유어 연구와 언어 표준화 및 전문용어 연구, 고대문헌(유산) 수집 및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어를 보존 및 복구하고 있다.

셋째,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및 프랑스의 기관들은 관련 언어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자문하거나 자체적으로 부속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아시아권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타 권역의 국가의 기관들과는 달리 언어 데이터베이스 및 코퍼스를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 및 다중언어 국가인 캐나다, 말레이시아 및 인도의 기관들은 뉴스, 비디오, CD 등 언어와 문화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다. 주요 국가별 조사 대상 기관의 향후 핵심 과제

6개 권역의 14개 주요 국가의 기관들은 앞서 언급한 주요 행사 및 사업 내용과 더불어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향후 핵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단일민족국가’ 또는 ‘다민족국가’인가에 따라 표준 국어사용안 개발 및 시행, 국어교육 및 재교육, 현대 및 전문용어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급, 관련 서적 및 사전 발간, 전자출판, 다문화 발전 안 등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중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포르투갈, 프랑스, 이집트, 시리아 등의 향후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캐나다의 캐나다언어 헤리티지 : 공식어(고유어) 발전 방안, 이중 및 다중 언어 활성화, 정기간행물 발간, 온라인 콘텐츠 개발, 자국어 방송 환경 혁신, 다문화 발전 방안 등
- 2)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 : 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DB 구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대학 및 대학원 연계 과정 시행, 지속적인 타 기관과 학술 교류 등
- 3) 말레이시아의 언어문학연구소 : 표준 국어사용안 개발 및 시행, 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발전 방안 등
- 4) 인도의 국어중앙연구소 : 표준 국어사용안 개발 및 시행, 공식어(고유어) 발전 방안, 언어 코퍼스 연구 및 구축, 서적류 발간 등
- 5) 포르투갈 카몽이스재단 및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언어협회 : 외국인을 위한 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타국가에 국어 교육과정 제공 등
- 6) 프랑스의 프랑스어·지역어연구원 : 표준 국어사용안 개발 및 시행, 현대 용어 및 신조어 연구 등

라. 주요 국가별 조사 대상 기관의 타 기관 및 단체와 관계

예상대로 6개 권역의 모든 14개 주요 국가의 기관들은 정부기관들과 활발하게 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의 기관들은 타 국가의 기관들과 달리 민간단체와 관계가 밀접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학술 및 연구센터들과도 서로 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어권인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타 국가의 언어 정책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주지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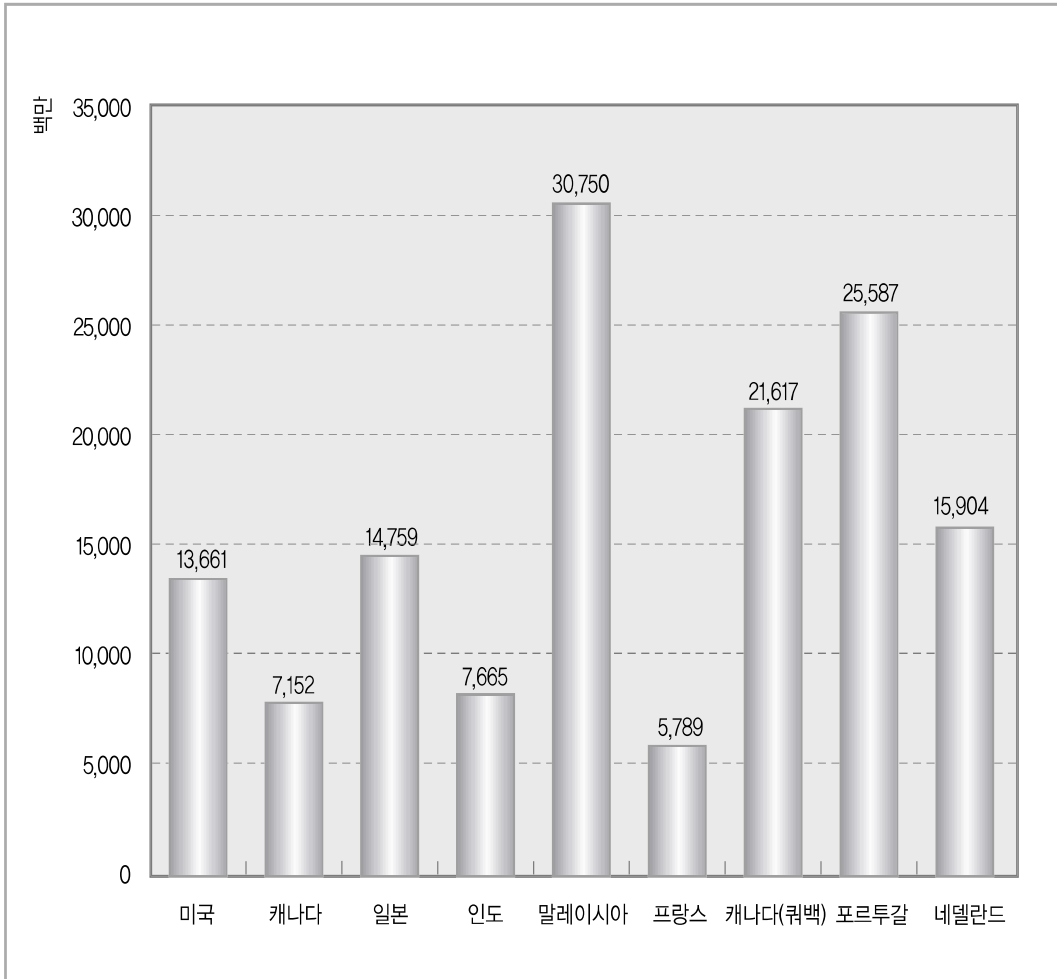
〈표 2-23〉 협력 및 교류 관계

항목	국가												
	미국 CAL	캐나다 CH	남아프 리카 공화국 PSALB	일본 NIJL	말레이 시아 ILL	인도 CIIL	포르투갈 IC	프랑스 GDFLLF	캐나다 (퀘벡)	이집트 AALE	시리아 AALD	독일 IGL	
정부기관	●	●	●	●	●	●	●	●	●	●	●	●	
언어 정책기관				●	●		●		●				
학술/연구센터				●	●			●	●	●	●	●	
대학/대학원				●									
민간단체	●	●	●									●	
국어원 관련 지부						●							
언어위원회		●	●		●								
언어교육 기관		●										●	
통번역 연구소			●										
각국 국립국어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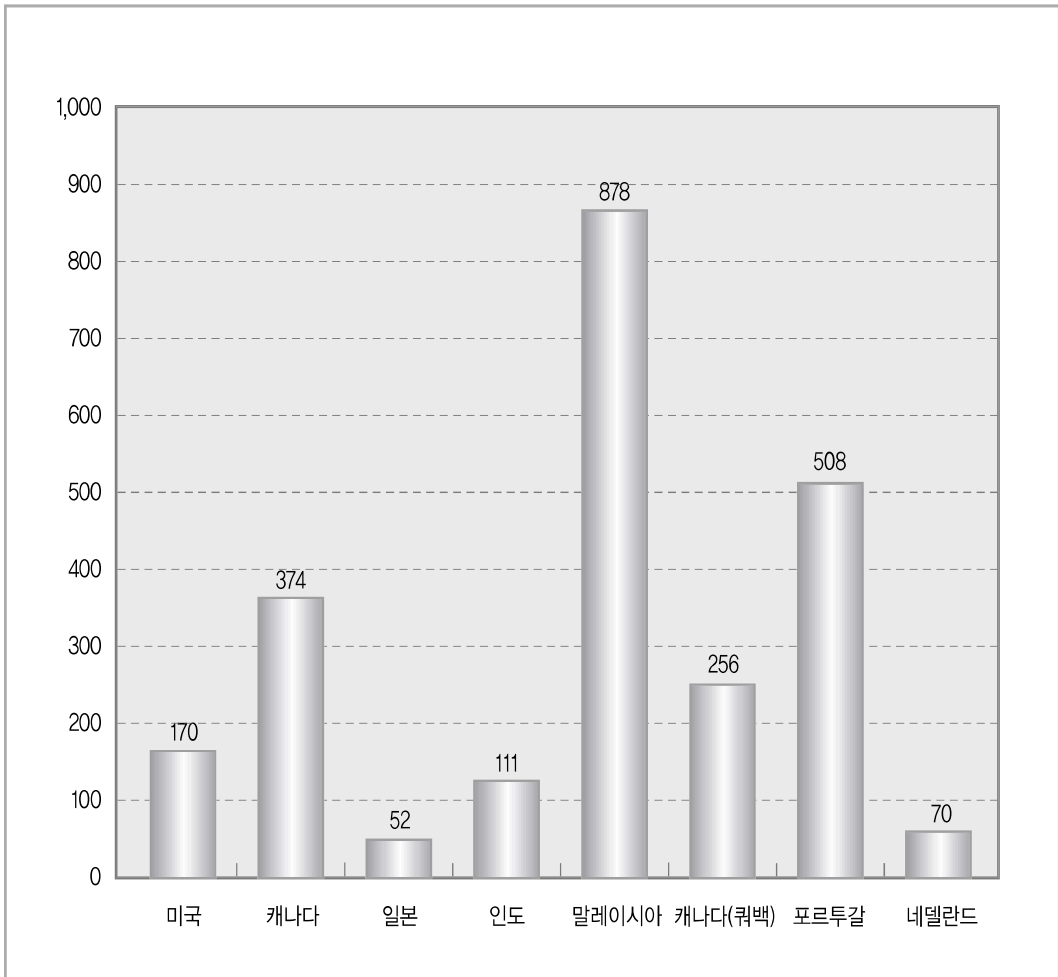
마. 주요 국가별 조사 대상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지금까지 언급한 주요행사 및 사업, 핵심과제, 관련 기관과의 교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관의 예산 및 인력이다. 간단히 말해서 거의 모든 주요 국가의 기관들이 효율적인 언어 정책 수행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언어 정책 및 연구 기관이 여러 개 있으며 거의 모두 민간 기관이지만, 미국의 응용언어학센터(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의 1년 예산이 2007년 기준으로 11,046,493달러(약 13,661,197,893원)이며 인력은 170명 정도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국가지원 언어 정책기관인 언어문화원은 1년 예산이 2007년 기준으로 109,440,000링깃(약

30,750,450,000원)이며 인력으로는 정규직은 878명, 그리고 비정규직이 126명이나 된다. 주요 국가들의 예산과 인력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0] 6개 권역 주요 국가 기관의 1년 총예산



[그림 2-11] 6개 권역 주요 국가별 기관의 인력(정규직)



제3장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제2절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

제3절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

제4절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제5절 세종사업

제6절 국어책임관 활동



3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1. 2008년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추진 과제는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산업화 및 국제화, 문화 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 및 조직 안정화·융합이다.

이 중 국어와 관련한 주요 업무는 문화 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로, 국어의 올바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국어능력을 향상시키며 한국어와 한글을 문화 외교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여 문화 예술을 진흥하는 것이다.

가. 국어의 올바른 가치 확산과 국어능력 향상

영어의 위세로 인하여 국어의 가치가 홀대받는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국어의 올바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제1언어, 즉 모국어의 기초가 튼튼해야만 외국어 습득도 일정 수준에 오를 수 있으며, 외국어만 잘해서는 그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또는 집단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국어의 올바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언어 운동의 차원에서 한글 주간을 선포하고 국어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의 한글 오용 및 과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방송 3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연구를 하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여 언어 사용에 대한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림 3-1] 한글 주간 선포식

또한 국어능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국어문화학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한편,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여 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교사, 공무원, 상담원, 방송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여 호응을 받고 있다.

나. 한국어와 한글을 문화 외교에 활용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자국의 언어를 문화 외교의 핵심 요소로 활용해 왔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중국의 공자학원,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등에서는 언어를 통해 자국의 문화와 역사, 경제 등을 알리고 있다. 우리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어를 통해 문화를 알리는 국가적 임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외교를 시행하는 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재외문화원을 활용하거나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학당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었다. 현재 재외문화원의 한국어 강좌는 12개 문화원 중 11개 문화원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표 3-1〉 재외문화원의 한국어 강좌 설치 현황('09년 8월 현재)

(해외문화홍보원)

지역	중국 (상해)				중국 (북경)				일본 (동경)				일본 (오사카)				베트남 (하노이)				러시아 (모스크바)								
유무	○				○				○				○				○				○								
과정	종류	초	중	고	기타	일본	초	중	고	일본	초	중	고	상	일본	초	중	고	상	초	중	고	기타	초	중	고	기타		
	반수	5	3	·	·	7	2	1	·	2	2	4	2	·	5	13	14	2	·	7	1	·	·	4	3	·	·		
학생수(명)	143	92	·	·	280	80	60	·	30	30	60	30	·	76	170	129	23	·	115	10	·	·	200	75	·	·			
강사수	8명				7명				3명				5명				4명				5명								
지역	미국 (뉴욕)				미국 (LA)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유무	×				○				○				○				○				○								
과정	종류	초	중	고	기타	초	중	고	기타	초	중	고	기타	초	중	고	기타	초	중	고	기타	초	중	고	기타	초	중	고	기타
	반수					3	3	·	·	4	1	·	2	·	3	2	1	·	·	5	1	·	·	2	1	·	·		
학생수(명)					175	68	·	·	96	24	·	34	·	125	40	15	·	·	23	6	·	·	65	10	·	·			
강사수					6명				2명				3명				3명				2명								

세종학당 운영은 한국어 보급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8개국 19곳이 개원 운영 중에 있다.

〈표 3-2〉 세종학당 운영 현황('09년 8월 현재)

국 가	지역	개원 기관	개수
중 국	연 변	연변대학, 연변과기대학	11
	북 경	북경외국어대학 배훈학원, 중국인민대학 신식자원관리학원	
	내몽고	한국어언문화연구소	
	서 안	서안외국어대학교	
	광 주	광둥외어외무대학 한국어과	
	산 동	산둥대학 위해분교, 청도 해양대학	
	천 진	천진외국어대학	
	양 주	양주대학	
몽 골	울란바토르	몽골국립대학, 울란바토르 대학	2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비슈케크인문대학	1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자흐국립대학	1
미 국	LA	LA 한국문화원	1
영 국	런던	영국 문화원	1
일 본	동경	동경 문화원	1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원광학교	1
8개국		19개 기관	19곳

한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교 사절과 지도급 외국인사 등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 외교를 펼치기 위해 ‘한글의 집’을 설치하였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응용하여 의상이나 패션용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한 방법이며, 디자인의 새로운 대상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디자인계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미 한글디자인이 들어간 넥타이나 스카프 등은 문화 상품으로 개발되어 한글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으며 그 밖에 그릇, 침구 등에도 한글 모양이 활용되어 조형미를 뽐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글 아이디어 문화상품 공모전을 해마다 개최하여 한글을 응용한 사업 및 문화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한글의 디자인화에 힘쓰고 있다.



제 4 회 한글문화상품아이디어공모전

[그림 3-2] 제4회 한글문화상품아이디어공모전 포스터

2. 2009년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추진과제는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국어와 관련한 주요 업무는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한글 문화관 조성¹⁾과 한글 문화 브랜드화,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명칭 통합과 확충이다.

가. 한글문화관 조성¹⁾과 한글 문화 브랜드화

한글문화관 조성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자랑하는 세대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한국어와 한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한글문화관은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등을 전시·보존·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09~2012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09년에는 서울 시내, 또는 경기도 인근 지역 중에 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정하고, 공간 계획 및 콘텐츠 연구 조사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전시관, 체험관, 교육연수관, 한글 상징 조형물 등의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울러 세종대왕의 과학·예술·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적을 재조명하고 애민·창의·실용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가칭)‘세종공원’ 조성 사업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글 문화 브랜드화는 한글을 디자인 등 문화·산업의 소재로 활용하여 외국인들이 한글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여, 나아가 한글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디자인·공예·한글 전화번호 등 한글 글꼴, 한글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글의 디자인적·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한다. 또한 한글을 활용한 공연, 음악 등 문화 예술 작품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글 이름, 한글 로고 등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나.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명칭 통합과 확충

현재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은 여러 부서에서 지원·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다를 뿐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 과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과 같은 문화 선진국들처럼 한국어교육기관의 명칭을 통합하고 이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 한글 보급기관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교육과

정 및 교재의 표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처럼 해외 한글 보급기관을 통합·운영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3-3〉 한글 보급기관의 명칭 통합 방안

구 분	대 상	비 고
세종학당 I	· 현지거점으로 관내 세종학당 II, III 지원 · 현지 한국문화원(재외공관) 연계 설치	· 교사 및 교재 네트워크 지원
세종학당 II	·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한국어 보급기관 · 한국교육원(교과부), 세종학당(문화부), 한글학교(외교부) 등	· 표준 운영지침 제정 · 기존 명칭과 세종학당 명칭 병행 사용 검토
세종학당 III	· 민간 자생의 한국어 보급기관 · 한글학교, 현지대학, 학원 등	· 세종학당의 명칭만 사용 · 인증제 형태로 신청을 받아 명칭 라이선스

아울러 현재 각국에 설치·운영 중인 세종학당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학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선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신설할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국정과제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국어 관련 주요 업무는 다음 네 가지이다.

- 첫째, 이주민의 한국어 이해 증진 프로그램 실시
- 둘째, 한글의 세계화
- 셋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환경 개선
- 넷째, 남북한 언어동질성 회복 도모

가. 이주민의 한국어 이해 증진 프로그램 실시

이주민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이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이해 증진 프로그램은 한

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포함한다.

먼저 다문화를 포용하고 다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를 통해 다문화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다. 다문화 포용 공익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협조를 받아 09년 2월에서 3월까지 방영되었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광고는 4월 한 달 동안 지하철 1, 3, 4호선에서 방영되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문화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국악 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를 들 수 있다. 이 계획은 11개 시도에서 12회 공연하는 한편 지역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이 이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이주민 대상 한국어·한국 문화 이해 교육은 공모를 통하여 사업 기관을 선정한 후 20여 개소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학습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 교육 인력들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이들을 위한 연수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방송프로그램도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교육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다. 현재는 초급과 중급 과정만 개발되어 방송되고 있지만, 점차 단계별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3-3]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

나. 한글(한국어)의 세계화

국외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고조되고 한국어 학습 수요층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해외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가브랜드’로서 한글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한국어 교재 초급, 중급이 5개 국어로 출판되었다. 또한 국내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통합 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이버 한국어교육 통합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통합 정보망’에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한국어 교재 소개,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 등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가브랜드로서 한글을 활용하기 위해 한글 문화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글의 우수성은 문자를 만든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원리의 측면에서 조명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외에도 디자인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강조될 것이다.

2009년 4회를 맞는 ‘한글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한글 문화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산업화할 것이며, 2009년 10월 ‘세계문자축제’를 개최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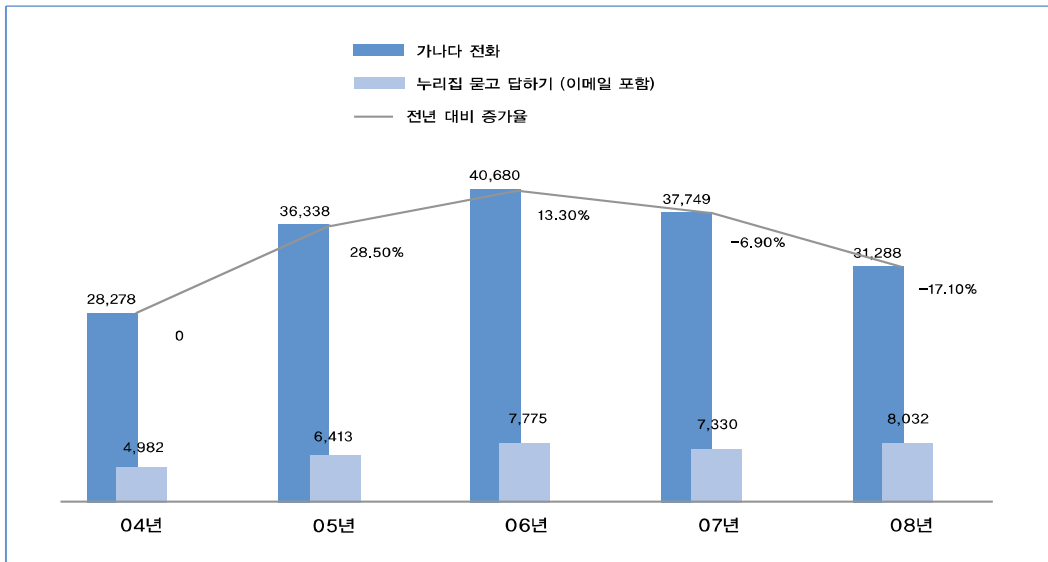
다.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환경 개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환경 개선은 모든 국민이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어 교육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로 대표적인 것은 일반인 및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문화학교 운영으로 한 해 4-5만 명이 수강하고 있다. 또한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더불어 국어능력에 대한 개인 및 회사, 단체의 관심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국어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가나다’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국어 민원실 ‘묻고 답하기’를 통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데 총 누적 이용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표 3-4〉 가나다 전화 및 누리집 묻고 답하기 응답 현황('04~'08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가나다 전화	28,278	36,338	40,680	37,749	31,288
누리집 묻고 답하기(이메일 포함)	4,982	6,413	7,775	7,330	8,032
전년 대비 증가율	.	28.5%	13.3%	- 6.9%	- 17.1%



언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먼저 통신언어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신언어 실태 개선을 위한 홍보 책자를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해 발간, 보급하였다.

일반인들의 국어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기관의 서식과 문서를 개선하기 위해 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국어능력 조사를 통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송 및 인터넷 언어의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사와 공동으로 언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와는 업무 협약을 맺어 언어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 교환에 협력하고 있다.

라. 남북한 언어동질성 회복 도모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언어의 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속

적으로 남북 언어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남과 북의 언어학자들은 중국 조선족 학자들의 도움으로 1996년부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까지 7차에 거친 학술대회가 열렸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5〉 남북 학술회의 개최 현황(1996~2007년)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내용
제1차	'96. 8. 5.~7. 중국 장춘	남북 언어에 관한 발표 16건
제2차	'01.12.14~16. 중국 베이징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
제3차	'03.11.5.~11.10. 중국 베이징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
제4차	'04.6.22.~25. 중국 베이징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 풍부화
제5차	'04.12.22.~25. 중국 선양	민족 방언의 조사, 연구 및 코퍼스에 관한 국제 학술 모임
제6차	'05.12.13~15. 중국 선양	민족어 어휘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
제7차	'07.11.17~18. 중국 연길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 매 학술대회시 국립국어원(남) 직원과 남측 학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북) 직원, 중국 조선족 학자가 참석

이와 같은 남북 언어학자들의 교류가 있었기에 남북 공동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같은 역사적 과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은 북한 언어 자체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비롯하여 점차 학술대회를 통한 인적 교류, 공동 사전 편찬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통일 이후 언어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평가된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새터민들은 발음과 억양의 차이, 어휘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 적응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새터민들에 대한 언어 교육은 남한의 언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면을 교육해야 하는지를 차차 검토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현재 통일부와 협의 하에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과정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새터민을 위한 ‘우리말 교실’도 개설하였다.

4. 문화비전

문화비전 2012는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4대 목표, 32대 중점 과제를 통해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은 우리의 격조 높은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정신문화를 표현하는 우리 말과 글이 품위를 잃지 않게 아름답고 바르게 잘 다듬고 가꾸어야만 문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정신, 우리말 가꾸기는 우리의 자랑인 한글을 세계화하고 한글을 국가브랜드로 지정하여 세계인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과제도 포함한다. 우리 정신, 우리말 가꾸기의 중점 과제는 한글 사랑 운동, 한글 문화관 설립, 세종학당 브랜드화, 세계한국어 지도 개발, 한글의 국가 브랜드화와 산업화, 다국어 사전 개발 및 웹 구축 등이다. 연도별 과제 목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6〉 문화비전 2012의 우리말 가꾸기 중점 과제

세부사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글사랑 운동	국어사랑 큰잔치 한글주간 선포	계속	계속	계속	계속
한글문화관 설립	한글문화관 조성 토론회	기초연구 및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조성 공사 및 콘텐츠 수집	조성 완료
세종학당 브랜드화	세종학당 조성(18개)	브랜드화 방안 마련	브랜드 라이선싱	계속	계속
세계한국어지도	-	국내외 한국어 사용 실태조사	세계한국어지도개발	계속	계속
한글의 국가브랜드화 · 산업화	한글문화 관련 전시 지원	한글활용 문화상품 등 개발 지원	한글활용 상징로고 등 개발	계속	계속
다국어 사전개발 및 웹구축	개발지침 작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	개발완료	웹 콘텐츠 개발	완료

국민들의 한글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고 한글 사랑을 축제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 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글 사랑 운동은 국어사랑 큰 잔치, 한글 주간 선포(2008~)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글 관련 사료 전시, 한글상품 전시, 세계 문자 비교 체험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

에 널리 알리고 한글 관련 사료를 한 곳에 모아 보전할 수 있는 ‘한글문화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립과학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반해 국어학계나 언어학계, 국어교육계의 숙원인 ‘한글문화관’은 온라인상에서만 일부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과 자료를 보전, 발전시킬 수 있는 한글문화관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09~12).

한국어와 한글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한국어 보급협의회를 구성·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해외 주요 대학이나 한국어교육 기관에 조성된 8개국 19개의 세종학당을 한국어를 보급하는 대표 기관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계한국어지도는 한국어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지도로 구성, 국어의 현재와 과거를 기록하고 국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고안된 지도이다.

한글의 국가브랜드화와 산업화는 한글의 디자인적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과제로 한글문화 관련 전시 지원(‘08~)과 한글 문화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한글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한글 활용 디자인을 개발하여(‘09~), 2010년에는 한글을 국가브랜드로 만드는 것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사전(몽골·베트남어 등 10개어)은 급증하는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자료 요구에 부응하며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맞는 사전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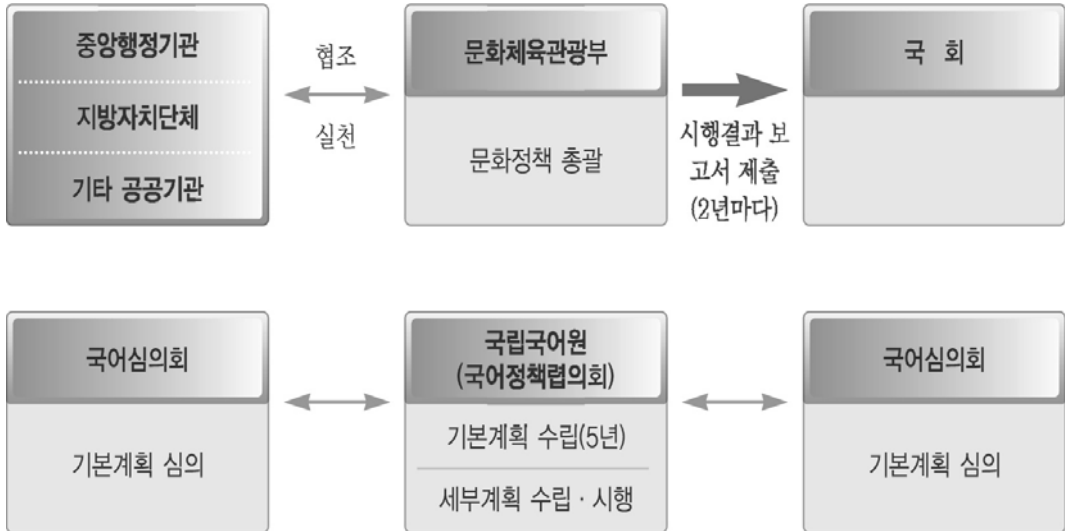
제2절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

1. 개요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가 언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국어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4]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문화관광체육부는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이며 국립국어원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3대 중점 추진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추진과 세계화,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이다. 3대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 목표는 다음과 같다.

〈3대 중점 추진 과제〉

<p>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국어전문교육기관’화 ▶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 ▶ 교육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보급 ▶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개설, 운영
<p>2. 동북아시아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단계별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1차(‘07~‘08):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36개교 ○ 1단계 2차(‘09~‘11):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64개교 ○ 2단계 (‘12~‘16): 동남아, 서남아 지역 100개교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기관과 교육전문가 연결망 구축 ○ 권역별·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 ○ 아시아지역 언어 정책기관 국제학술회의 정례화 ○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 ‘한국어국의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권별, 교육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개발 ▶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국어 전문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재교육 실시 ○ 현지 한국어 교육전문가 초청 중·단기 연수 실시 ○ 국내 한국어 교육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지원 ▶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방송체계 구축
<p>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이트 편찬 ▶ 언어권별 대역사전 집필 및 웹사이트 시스템 개발 ▶ 실용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 ▶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순차 편찬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10대 부문별 추진과제는 국어기본법 및 국어발전기본계획에 기반한 주요 국어 정책으로 추진과제와 추진과제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연번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 정책의 확산	1-1 국어발전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2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2-1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2-2 언어 정책 및 정보교류 국제협력망 구축
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 3-2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4-1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제도 정착
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5-1 국어능력 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활용 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6-1 국어 사용 실태조사 6-2 민족생활어 및 직업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7-1 민족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8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8-1 국어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 능력 향상 학습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2 국어 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체제 구축 10-3 국어생활 기획총서 발간 10-4 국어운동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2. 주요 실적

가. 3대 중점 추진 과제

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첫 번째 과제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는 국민의 국어 능력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과제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일반 성인을 위한 ‘국어 전문 교육 훈련 과정’과 교사 및 공공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표 3-7〉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2001~2008년)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원내 국어문화학교	교육 횟수	19회	19회	16회	17회	17회	18회	22회	24회	152회
	수강 인원	1,292명	1,452명	1,486명	1,458명	1,765명	1,921명	2,354명	2,443명	14,171명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횟수	123회	185회	157회	176회	195회	190회	253회	148회	1,427회
	수강 인원	15,412명	16,970명	17,890명	16,332명	15,655명	12,926명	19,305명	10,275명	124,765명
총 계		16,704명	18,422명	19,376명	17,790명	17,420명	14,847명	21,659명	12,718명	138,936명

□ 국어문화학교 교재 발간

- ‘바른 국어 생활(원내교재)’ 2종
 - 매년 상·하반기 1종씩 발간
 - 교사반 교재 발간(2007, 2008, 2009)
- ‘바른 국어 생활(찾아가는 문화학교)’
 - 기본교재 매년 발간
-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SBS와 함께하는 우리말 교실)’
- 한국어·국어·한글(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 국어 교육 교재)
- 바른 간판 언어를 위한 표기 일람표(옥외광고자 교육 교재)

‘국어 전문 교육 훈련 과정’은 국어문화학교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06년 총 208회 14,847명이 수강하였고, 2007년에는 총 275회 21,653명이 수강하는 등 수강자 숫자가 점차 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개발된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는 한글 맞춤법,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공문서 바로쓰기 등이다.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는 국회 사무처,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국어 상담 요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총 8회가 운영되었다. 앞으로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국어 교사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결과 일반인 대상 교재 2종, 공무원 대상 교재 2종, 교사 직무 연수 교재 2종, 초·중등학생 대상 1종이 발간되었고,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외부 전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강의안을 개발하고 공동 운영에 들어가는 등 다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5] ‘한글 맞춤법’ 온라인 강좌

또한 2008년 8월에는 국어 교사, 학자 등 국어 관련직 종사자의 국어 사랑에 대한 뜻을 모으고 자 이들을 초청하여 500여 명이 모인 ‘국어 사랑 큰 잔치’를 성대히 치렀으며 ‘국어 사랑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국어 교육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다.

2)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두 번째,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사업은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제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을 거점으로 현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를 단계별, 연차별로 설치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현지 교육 기관을 통한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세부 목표이다. 2007년, 2008년의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의 설립, 운영
 -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6개국 18개소
 - 전 세계 6개국 18개소 업무 협정 체결 및 개원('07~'08)
 - * 중국(11), 몽골(3), 키르기스스탄(1), 카자흐스탄(1), 미국(1), 러시아(1)
 - 세종학당 자문위원회 운영(4회)('07~'08)
 - 세종학당 사업 운영 평가('07년)
 - 세종학당 관련 기초 조사 연구 용역 2건 추진('07)
 - *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김재훈, 대구대)
 - *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손중권, 경북대)
 - 세종학당 학술회의 개최 및 교육 자료 지원
 - 세종학당 학술회의 ‘다중의 시대, 언어 소통 기획’ 개최('08.4.)
 - 세종학당 관련 학술회의 지원(국제한국어교육학회 등 4회)
 -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회), 이중언어학회(2회)
 - 세종학당 교재, 학습 자료(DVD 등) 지원(한국문화원 12곳 및 세종학당 18곳)
-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

- 현지 맞춤형 초급 한국어 교재 현지화, 출판(4종 6개국어)(‘07~’08)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 중국어, 몽골어, 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영어)
- 현지 맞춤형 중급 1 한국어 교재 현지화 및 번역(5개국어)(‘08)
(현지화: 중국어 / 번역: 베트남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영어)
- 한국어 교육 관련 국내외 웹사이트 현황 조사 보고서 발간, 출판(‘07)
-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기초 연구 용역 2건 추진(‘07)
 - *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허용, 한국외국어대)
 - * 세종학당 교재 개발 연구(백봉자, 경희대)
 -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 발간(‘07~’08)
 -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대조자료집 발간(‘08)
-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 육성
 -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 한국인 교원, 외국인 교원, 우수 학습자 45개국 100명 초청 교육 3회 실시(‘07)
 - * 한국인 교원(23개국 34명), 외국인 교원(13개국 32명), 국외 우수 한국어 학습자(9개국 34명)
 - 한국인 교원, 외국인 교원,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42개국 71명 초청 교육 3회 실시(‘08)
 - * 한국인 교원(26개국 33명), 외국인 교원(7개국 19명), 세종학당 우수 한국어 학습자(9개국 19명)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 파견 교육(7개국 14명) 실시(‘07)
 -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연수 파견 교육(8개국 16명) 실시(‘08)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관리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연 2회)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한국어세계화재단 2회 실시)(‘07.12., ’08.12.)
 - 한국어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07)
 - 기초 연구 용역 추진(‘07)
 - *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송향근, 부산외국어대)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 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계 구축('07)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인적·기관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료 조사·발간('07)
 - 한국어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를 위한 웹 커뮤니티 구축('07)
- 아시아 지역 언어 정책기관 국제 학술회의 개최(연중)
 - 국제 학술회의 '민족어 발전의 현 실태와 전망' 개최(중국 연변대)('07)
 - 한중일 삼국 자국어 보급 관련 학술회의 개최('08.11.)
- 국외 한국어 보급 및 교육 단체의 활동 지원
 - 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 지원(국제한국어교육학회 등 7회)
 -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회), 이중언어학회(2회), 한국어학회(1회), 중국 월수대(1회), 일본 오비린대(1회)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방송 체계 구축
 - 온라인 한국어 교육 통합 정보망(U-세종학당) 구축
 - 한국어 통합 정보망(U-세종학당) 구축 1차 사업 추진('08.12.)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학 관련 정보 통합, 연계
 - 기 구축된 한국어 강좌 정보 통합, 변환
 -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의 연계 통합 관문(게이트) 사이트 구축
 - 한국어·문화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강좌 제작·보급
 - 한국어 교육용 '한글과 세종대왕' DVD 제작, 배포('07)
 - 한국어 교육 관련 KBS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송('08.10.)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육 방송(EBS) 제작·방송(3개 국어)('08)
 - *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3개 국어 제작 및 홈페이지 VOD 서비스 실시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 교육 방송(EBS) 제작·방송(3개 국어)('07)
 - *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3개 국어 제작 및 홈페이지 VOD 서비스 실시

3)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한국어 학습자 증가로 한국어 학습용 사전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된 과제이다.

사전 시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 등 한국어 학

습자 급증 지역에 대한 사전 공급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긴급한 수요에 부응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웹사전 형태로 한국어 학습 사전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다국어 웹사전은 표제어 5만 어휘의 중사전 규모로 실용성이 높은 10만 예문을 수록하여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 유형을 데이터로 구축하여 오류를 바로 잡아 주는 오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단어와 예문의 발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다국어 웹사전은 2007년, 2008년 예산 미확보로 아직까지 뚜렷하게 추진된 실적이 없다. 국립국어원의 사전 편찬 인력과 정보화 인력은 여타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국어 지원 웹사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국어 유니코드 글자체 환경을 검토하고, 시험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 55개 어휘에 대해 27개 권역별 지역어에 대한 인터넷 체험식 청취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다국어 웹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시험 서비스로, 표제어가 확대되고 지역어가 아닌 다국어로 서비스가 구축되면 단어 수준의 대역 사전 편찬의 틀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웹사전은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사전 서비스 제공 외에도 국어 사전의 질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1992년 시작하여 1999년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의 대표 사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전은 50만 어휘의 대규모 사전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고빈도의 어휘에 대해 언어 정보가 풍부하게 실려 있어야 한다. 풍부한 예문과 표제어 뒤에 따라 붙는 조사나 어미에 따른 발음 변화, 문형 구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국어 지원 웹사전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초·중 등 국어 교육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1)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 정책의 확산

국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언어 정책을 바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인 국어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여러 의견들을 수합하였으며, 현행 국어기본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안을 마련하여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 언어 정책 확산을 위해 국어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기구와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을 새로 제정하고 국어 정책 수립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18개 부처의 국어책임관이 참여하는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와 전문용어표준화를 위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조직하여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힘썼다. 표준어와 외래어 심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어 정책 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국가의 언어 정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도 언어 정책 확산을 위한 것이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언어표준화 정책과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언어표준화 정책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표기 4법을 보완하고 보급하는 임무이며,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은 옛한글, 이두, 구결, 한자 등을 입출력하는 문자코드의 표준화와 전문용어 표준화, 기타 언어자원 표준화와 관련한 정책이다. 주요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 ‘어문규범 영향평가’ 실시와 어문규정 개정안 마련
 - 『외국인 대상 로마자 표기법 반응조사』(’07.9.), 『로마자 표기에 대한 외국인 발음 분석』(’07.10.), 『로마자 표기 현황 실태 분석』(’07.12.),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조사』(’07.12.) 실시
 - 외래어 표기법 정비: 그리스어, 아랍어, 터키어 외래어 표기세칙
 - 외래어심의회 ’07년 6회, ’08년 3회 개최 결과 총 419개 외래어 표기 발표
 - 개정된 어문 규범의 효과적인 보급 대책 수립, 시행
 - 한국어문규정집 발간(’07.12.27.),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외래어 표기 용례 38,247건, 로마자표기 용례 12,803건, 주요어휘 용례 8,666건 검색 서비스 제공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제공 : 한글맞춤법 (20차시)
 - 가나다 전화 운영 : 어문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내용 상담
 - ’07년 전화 37,749건, 인터넷 7,330건, ’08년 전화 31,288건, 인터넷 8,032건 상담

□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 옛 한글, 이두, 구결, 한자 등의 자모 목록 정비 및 표준화 작업
 - 언어 자원 표준화(문자코드, 한자, 전문용어) 3개 분과 위원회(국내, 국제) 지원 ('07~'08)
 - 정보교환용 한글 처리 지침 마련: 고문서에서 발굴된 옛한글 자모 117자를 국제표준 (ISO/IEC 10646 Amd5)에 반영 포함 (KS X 1026-1) 고시 마련 ('07. 12.)
 - 정보교환용 한글 처리지침의 적합성 평가 (KS X 1026-2) 고시 ('08. 12.)
 - 비표준 한자 수집 및 정리('07.12.) : '국가지식정보관리사업'에서 전산화된 고전적 2,197자 수집, 국제표준문자 규격 미등록 신출 한자 7,201자 정리
긴급 코드 표준화 필요 한자 2,288자 목록 구축
- 전문용어 및 기타 언어자원 기술형식의 국제표준화 작업 참여
 - 국제 표준 문자 코드집 발간을 위한 CJK main, Ext. A, Ext. B, Ext. C 내의 한국 한자 17,629자에 대한 트루타입폰트 편집·제작·제출
 - 신출한자 국제 표준화 연구('08.12.) : Ext D 내 133자 검토 및 정비
 - 전자 자원(웹 문서 포함) 주석 기능(Citation of Electronic Resources Functions) 논의
 - 다국어 정보 규격(multi lingual information framework) 논의

2)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은 시의적절한 국가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남북 언어교류는 통일 후 언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교류를 통해 통일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문화 교류이다. 세계의 언어학자,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교류는 다른 나라의 언어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언어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은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교류의 기반을 다졌으며 거래 말큰사전 공동 편찬을 진행 중에 있다. 2007년에는 남북 체육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민족어 발전의 현 실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림 3-6] 남북 학술대회

국제 기관과의 교류는 일본의 언어 정책 연구기관인 국어연구소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여 해마다 연구원을 파견, 초청하여 인적, 학술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언어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국제학술대회 “언어의 공공성과 언어 교육”에 대해 주제 발표, 2008. 7.).

이 밖에도 2007년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 정책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낸 바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한국에서 개최한 세계 언어학자대회를 지원하였다. 세계 언어학자대회는 언어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대회로 5년마다 열리며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1982년 도쿄대회 이후 두 번째이다.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70여 개국에서 약 1천 500명의 언어학자들이 참가하였는데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외에 한국어 발표가 포함되었다.



[그림 3-7] 세계 언어학자 대회

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우리 사회 구성원은 국제결혼 이민자('08년 144천명), 외국인 노동자('08년 576천명), 새터민('08년 16,000명) 등의 증가로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언어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언어적 소외계층이 생겨나 이들에 대한 언어 복지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점자, 수화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언어를 체계화하는 일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과제로 특수언어의 보급을 확대하여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언어 복지 시책은 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새터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3-8〉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적

세부 내용	추진실적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한국어 교육 기관 지원('07, 총 7개소) • 국어문화원과 지방문화원 연계를 통한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 사업 및 이주민 대상 한국어 강사 양성 사업 실시('08, 총 34개소)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중급 2종 출간('07.6월)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중급 오디오북 2종 개발·제작('07.12월) • 방송매체를 이용한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재 초급 개발('07.12월) • '한글 그리고 세종대왕' DVD 개발('07) • 결혼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1·2 개발('08.12월) • 이주민 교육 한국어 교사 대상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08.12월) • 부부공동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 개발('08.12월)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방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 방송 프로그램 개발·방송('08. 9월~'09. 4월)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방송 프로그램 CD 제작·배포('08.1월)

새터민의 한국 정착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와 협의 하에 개발, 진행되었다. 언어 적응 교육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에 새터민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지원하였다.

〈표 3-9〉 새터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실적

세부 내용	추진실적
언어 적응 교육 실시를 위해 국어문화학교에 새터민을 위한 별도 과정 개설	• 이북 5도청 새터민 대상 우리말 배우기반 강의 지원('08. 8.~12.)
새터민 국어 교재 개발,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지원	• 새터민 특별과정 교재 개발('08. 10.)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언어로 이를 체계화하고 교육하는 일은 언어복지의 주요 과제이다. 점자와 수화의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화 전문용어를 개발하고 점자 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소외계층의 언어 지원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표 3-10〉 점자·수화 체계 개선 지원 실적

세부 내용	추진실적
점자·수화 사용실태 정기적 조사, 지원방안 마련	• 청각장애인 언어사용 실태조사('08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언어생활 항목 추가 요청
수화 전문용어 개발	• 법률·교통·의학·정보통신 분야 수화 표준화 완료 (총 2828개 용어) • 운전면허시험 관리공단 등에 활용
수화화법 연구 점자·수화의 보급과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지원	• 한국수화문형사전 발간('07.4.) : 5028개 문장 • 한국수화교재,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지도 교재 개발 • 한국수화 연수사업 실시('08년)
한국 점자규정의 보완	• '06년 6월 점자규정 개정안 고시 후 '07년 2월까지 출판물의 보완 조치 규정
남북 점자·수화 공동연구	• '07년도 남북 특수언어 교류를 계획하였으나 북한의 정치적 상황 악화로 무산됨
점자 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 온라인 점자 학습 체계 구축 •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30차시, 한글점자) * 점자세상(www.braillekorea.org)개통 ('08.6.)

4) 국어사용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지식 정보가 국제화, 개방화되면서 국어사용 환경의 오염과 왜곡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및 정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이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 언어의 질적 향

상을 통해 바르고 아름다운 국어를 보전하고 국어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어 순화 사업을 강화하고 방송사와 공동으로 방송언어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원하였다. 한편 외국어가 남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정비와 표준화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용어 정비에 힘쓰고 있다.

각 과제별 주요 추진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 매주 1개(연간 50개)의 순화 대상어를 우리말 다듬기 홈페이지를 통해 누리꾼을 참여시켜 순화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 방송사와 방송언어 공동 연구 및 발표회 개최
 -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언어 연구(SBS, '07.10), 구어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MBC, '07.11), 방송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SBS, '08.10.), 사회인을 위한 효과적 의사소통 교육 연구(MBC, '08.12.), 방송언어 총서 4종 발간('07.12. - '08.5.)
 - 바르고 아름다운 국어 사용 의식 고양
 - 국어 홍보대사 위촉(전종환, 이하정 MBC 아나운서, '08.05), 국어 홍보대사 국어사랑 큰잔치 사회 및 참석('08.08), 국어 홍보대사 한글주간 선포식 사회 및 참석('08.10)
 - 바람직한 통신언어 개선 사업 추진
 - 바람직한 통신언어 개선을 위한 민간 운동 지원('08.12.), 통신언어 개선을 위한 공익 광고 제작·방영(YTN, '08.10.), 통신언어 홍보 책자 2종 제작·배포('08.12.), 통신언어 실태조사 보고서(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발간('08.12.)
-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07.12.)
 -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성과 대안 토론회 개최('07.12.10.)
 - 장애인 차별 표현 연구를 위한 인터뷰 조사 실시('08.9.)
 -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08.12.)

-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 ‘전문 용어 연구’ 발행(07.10.9.)
 -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발간(07.12.20.)
 - ‘전문용어 표준화 관련 어문규정 지침’ 개발(07.12.28.)
 -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08.12.)
 - ‘전문용어 정비 지원’ 결과 보고서 발간(09.2.17.)

5)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은 3대 중점 추진과제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와 관련된다. 국어능력 증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추진된 과제는 국어능력 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 교육·기구인 국어문화원(전신 국어상담소)의 활성화이다.

국어능력 검정시험은 개인의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응시자들뿐 아니라 방송사, 교육 기관 등 일정한 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평가 도구로 활용되어 국어능력을 증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방송과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국어능력의 중요성을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1〉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 수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시험	양 기관 응시인원 합계
응시 인원	'07년: 17,887명	'07년: 17,815명	'07년: 35,702명
	'08년: 23,921명	'08년: 21,129명	'08년: 45,050명(26% 증가)
	소 계: 41,808명	소 계: 38,944명	합 계: 80,752명

이와 같은 외적인 확대에 발맞추어 검정시험의 내실화와 타당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기준으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국어문화원은 지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 기구이다.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국어 교양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외국인 한국어 대회, 대학생 토론왕 선발대회 등 국어능력 증진을 위한 각종 경시대회를 지원하였다.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언어 현실에 바탕을 둔 언어 정책 수립과 소멸되어 가는 민족생활어, 지역어 조사를 통해 국어 문화 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하여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는 크게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민족생활어 조사, 지역어 조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국어사용 실태조사는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어능력 실태조사, 국어사용 환경 조사, 국민의 국어의식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2〉 국어사용 실태조사 추진 실적

세부 내용	추진실적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보고서 발간(‘08.12.) • “국군 장병의 국어능력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08.12.)
국어사용 환경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및 게임물 언어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07.12.) • “방송 프로그램 제목 언어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07.12.) • “외국인 대상 로마자 표기법 반응 조사” 보고서 발간(‘07.12.) • “통신 공간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08.12.)
국어 의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07.12.) • “외래어 인지도·이해도·사용도 및 태도 조사” 보고서 발간(‘07.12.)

민족생활어 조사는 국어사전에 누락된 어휘 수집뿐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2007년, 2008년 조사된 민족생활 분야 및 조사 지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3〉 민족생활어 조사 분야 및 지역

추진계획	추진실적
2007년 민족생활어 기초 조사 (10개 지역 조사)	해녀 어부 민속주(제주), 제례음식 혼례음식 향토음식(경북 북부), 민족간축어(전북 전주), 육지해녀 미역업 어부옹기장 대고장 유기장(경북 영덕 칠곡 문경), 세시풍속 민속놀이 짚생활어 소목장(경북 성주 성산), 김치 젓갈 장아찌(전북 부안 순창), 심마니 한지장(강원 경기), 옹기장 사기장(부산 기장, 울주, 남해), 금산생활어 대장장이 무속인 단청장(충남 금산 대전), 참빗장 죽렴장 부채장 채상장 악기장(전남 담양)
2008년 민족생활어 조사 (10개 지역 및 공통 주제 조사)	· 구덕 차롱(제주), 인동포 길쌈(경북), 단청장(서울, 경기), 모필(대구), 두석장(경남), 시장[矢田](충북), 사찰 생활어(강원), 남사당놀이(경기), 초고장 승무(경남), 나주 소반장(전남) · 김치 전국 공통 조사

지역어 조사는 국내 9개 권역별 지역어와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표 3-14〉 지역어 조사 실적

세부 내용	추진실적
2007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9지점)	경기 파주, 강원 홍천, 충북 충주,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영광, 경북 고령, 경남 산청, 제주 표선
2007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2지점)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국 길림성 훈춘시 회룡봉
2008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9지점)	경기 양평,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충남 예산, 전북 고창, 전남 보성, 경북 청도, 경남 남해, 제주 구좌
2008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1지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어 조사 결과는 음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음성 자료 일부를 분절하여 일부 단어는 각 지역의 방언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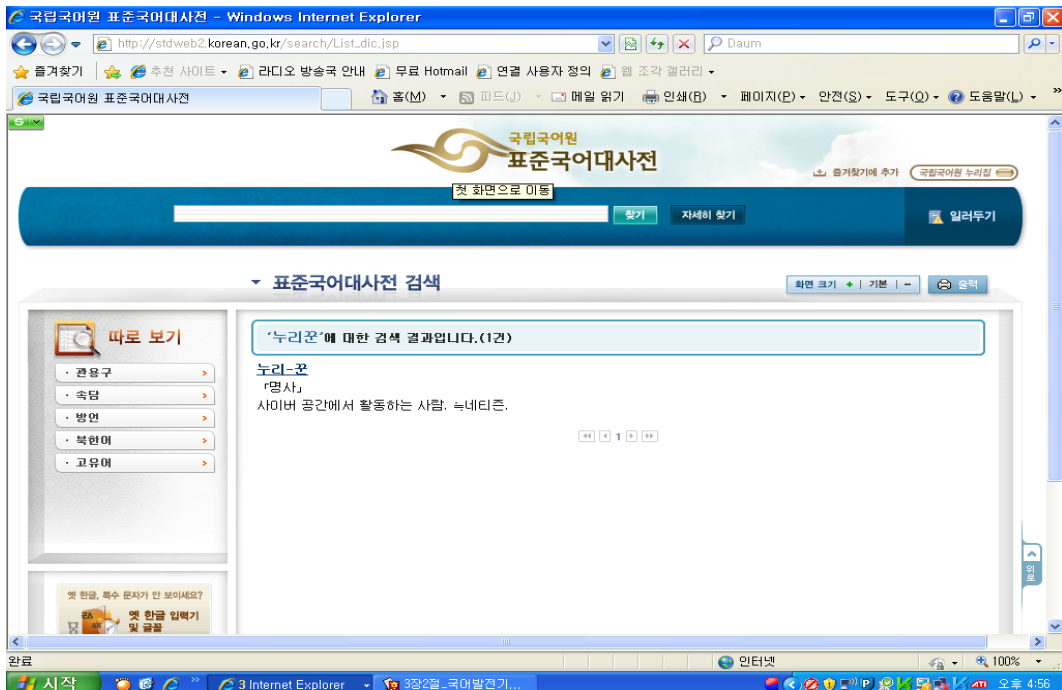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를 집대성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 대표 사전으로 그 기능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제어로 오르지 않은 단어들이 있으며, 해마다 새로 생겨 널리 사용되는 신어와 전문어를 검토하여 표제어로 올려야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검색 서비스의 강화로 날로 변화되고 있는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전으로 거듭나야만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언어 환경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웹 사전을 구축하고, 신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문어 위주의 국어사전을 보완할 구어 사전 편찬과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 사용될 규범 사전 등의 편찬을 추진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은 2008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개통되었는데 51만 표제어에 '누리꾼, 누리집, 명예퇴직, 블로그' 등 신어와 미등재어 3,600여 항목이 추가되었다.

신어 조사는 2007년 18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던 것(702항목 추출, 집필)을 2008년 27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475항목 추출, 집필)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어 사전 편찬은 현재 500단어를 표제어로 추출하여 시험 집필하였으며(500단어집 작성), 규범 사전은 기초 표제어 8만 단어를 선정하였다.



[그림 3-8]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8)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은 국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국어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과제이다.

주요 실적으로는 우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통해 국어원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007년). 표준국어대사전뿐 아니라 어문규범,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국어 정책 관련 자료, 국어 관련 기사 등을 통합적으로 검색, 저장, 인쇄할 수 있게 되었고, 국어 정보 자원(말뭉치, 전자사전 등)의 정제를 통해 품질을 제고하였다.

한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한글 박물관’은 한글 자료 이미지와 한글 문헌 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사이트 홍보를 위하여 특별 기획전을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온라인 한글게임을 개최하여 초등학교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디지털 한글 박물관은 2007년 1일 접속자 수 3,012명을 기록하였다.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과 국어능력 향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연어 검색 갈래사전 구축은 한국어의 어휘 의미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한국어 어휘 의미망은 5만 어휘의 의미망을 구축하였으나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니며, 자연어 검색 갈래사전은 10만 항목이 검색되나 고유어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림 3-9] 디지털 한글박물관 누리집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훈민정음 등 주요 문헌을 번역하여 보급하고 시대별 우리말 자료를 구축하였다. 한글의 산업화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한글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를 생활화, 세계화하기 위한 과제이미지화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사회의 관심을 이끌었다.

우리의 가장 큰 언어문화 유산인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영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되었지만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번역하여 출판하였으며, 15세기 목판본인 용비어천가를 판각 복원하여 여러 사람들이 원본에 가까운 옛 문헌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옛 문헌의 역주 역시 국어 문화유산 보전의 한 방법으로 언문지, 역주 자학, 마경초집언해, 구화촬요, 내훈 등이 역주, 번역되었다.

한글의 산업화 지원은 한스타일 지원 협의회 구성과 운영, 한글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한스타일 박람회 개최 등 한글 산업화의 홍보에 힘썼다.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계간 <새국어생활>과 온라인 월간 소식지 <새국어소식>을 연중 발간하고 있으며, 국어 관련 주요 일지와 논저 목록, 분야별 연구 동향을 담은 국어 연감을 해마다 발행하고 있다. 또한 8개 언어로 국립국어원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국외에 한국과 한국어를 소개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3개 언어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어 운동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역시 국어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 등 관련 단체의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말글 지킴이 선정,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 한글날 기념 온겨레 한말글 이름 큰 잔치 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2008년에는 한글학회 100주년을 기념한 여러 사업을 지원하여 한글과 우리말을 지켜낸 선조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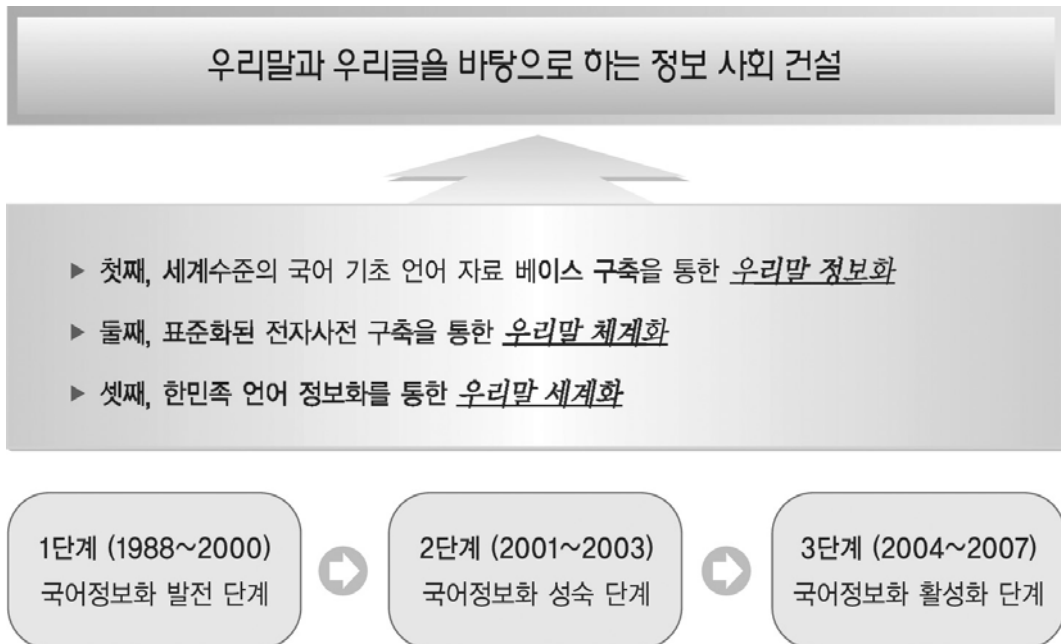
제3절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

1. 개요

21세기 세종계획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150억이 투입되어 수행된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우리말글을 쉽게 사용하게 되었듯이 이 사업을 통해 국어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 ‘세종계획’을 사업명으로 정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의 세부 목표는 첫째, 세계 수준의 국어 기초 언어 자료 베이스 구축을 통한 우리말 정보화, 둘째, 표준화된 전자사전 구축을 통한 우리말 체계화, 셋째, 한민족 언어 정보화를 통한 우리말 세계화이다. 이는 3단계로 나누어 실행되었는데 발전 단계(1998~2000), 성숙 단계(2001~2003), 활성화 단계(2004~2007)가 그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0] 21세기 세종계획의 목적과 목표

세종계획의 주요 사업 분과는 세부 목표에 따라 나뉘는데 우리말 정보화를 위한 ‘국어 기초 자료 구축 분과’, 우리말 체계화를 위한 ‘전자사전 구축 분과’, 그리고 우리말 세계화를 위한 ‘한민족 언어 정보화 분과’가 핵심 분과이다. 21세기 세종계획은 연인원 300여 명이 동원된 국어학계에서는 드문 중장기 사업으로 해가 거듭되면서 다시 ‘국어 정보 기반 구축’과 ‘국어 정보화 여건 조성’으로 그 목표가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국어 정보 기반 구축에는 위의 세 분과 외에 전문 용어 정비 분과가 추가되고, 국어 정보화 여건 조성을 위해 문자 코드 표준화 연구, 글꼴 개발 보급 지원,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 결과물 보급 관리 분과가 생겨났다.



[그림 3-11]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구성도

국어 기초 자료 구축은 다양한 국어 자료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어 자료를 컴퓨터로 입력하고 분석하며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른바 말뭉치(corpus)⁹⁾라고 하는 언어 자료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9) 말뭉치(corpus)는 한 언어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원문, 발화 등)의 집합으로 대개 전자 자료의 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옥스퍼드 영어 사전, 1992).

언어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언어 교육 및 언어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기초 자료는 문학작품, 신문 기사, 교양 서적 등 각종 현대 국어 문어 자료를 지칭하며, 현대 국어 문어 자료 이외의 갖가지 국어 자료, 예를 들면 구어 자료, 한영 또는 한일 대역 자료, 역사 자료, 북한 및 해외 한국어 자료 등은 특수 자료로 명칭하여 이 역시 국어 자료 구축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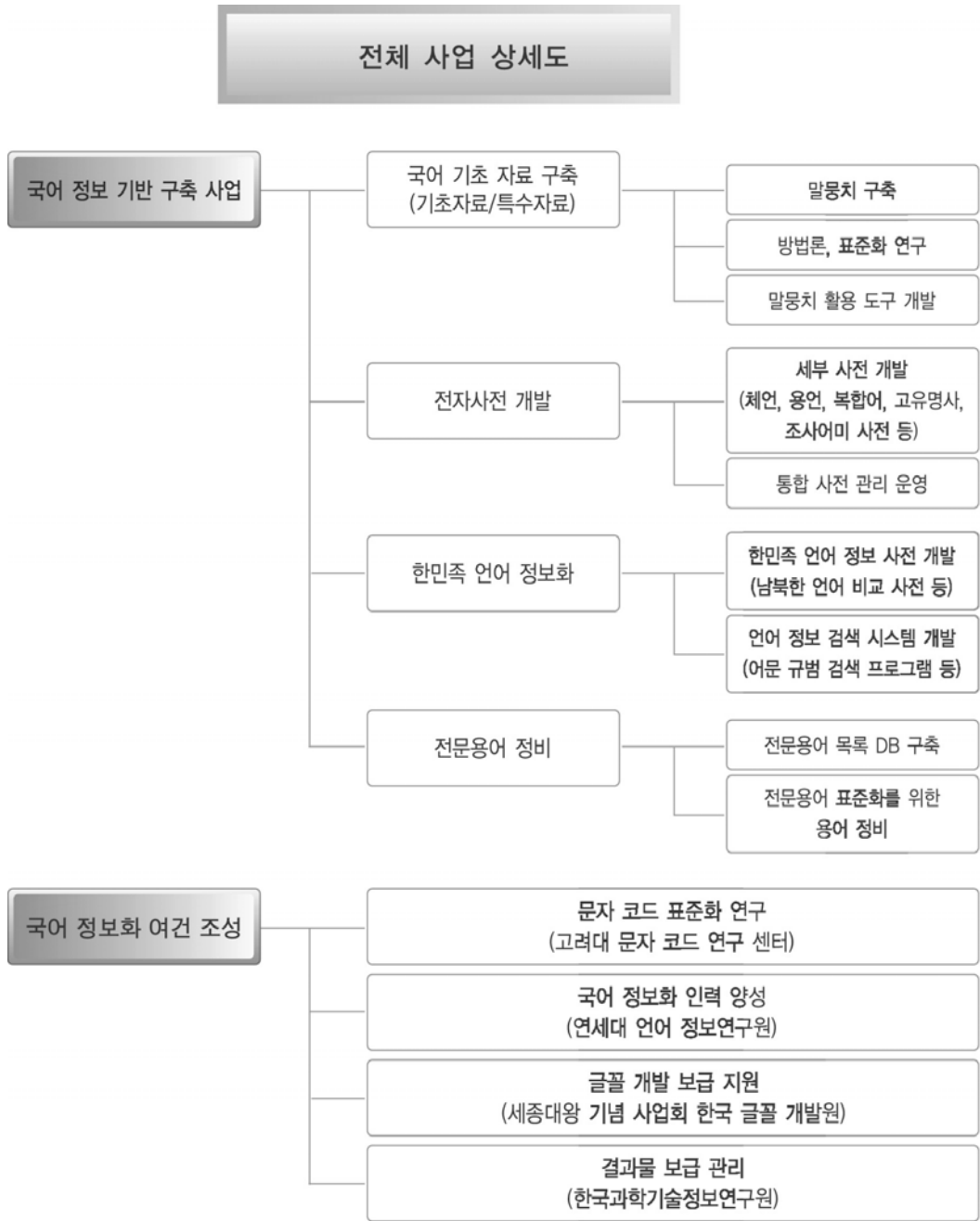
전자사전은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전자사전 구축 분과에서는 현대 한국어 어휘의 체계적인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용도의 전산 처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사전을 개발하였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 분과에서는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구축과 남북한 언어 변환 프로그램 개발, 남북한 방언 검색 프로그램 개발, 어문 규범 검색 프로그램 개발 등 앞의 두 분과에서 구축하지 못한 국어 자료를 포괄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전문 용어 정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 용어를 정비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국어 정보화 여건 조성을 위해 문자 코드 표준화 연구, 글꼴 개발 보급 지원,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 결과물 보급 관리 등이 구성되었다. 문자 코드 표준화는 컴퓨터 입력과 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한·중·일 한자 코드 표준화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글꼴 개발 보급 지원은 다양한 한글 글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한글 글꼴의 디자인 개념이 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은 사업 수행 당시 열악했던 국어 정보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국어 정보화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전문일역을 양성하였다. 결과물 보급 관리는 1998년부터 시작한 세종계획의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는 국립국어원이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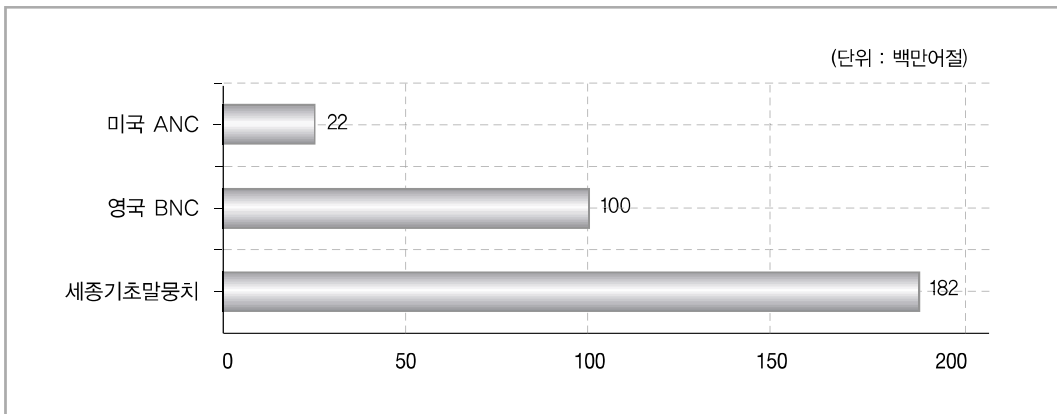


[그림 3-12] 21세기 세종계획 전체 사업 상세도

2. 주요 실적

가. 국어 기초 자료 구축

국어정보 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말뭉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총 2억 어절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현대 국어 말뭉치 9,258만 어절, 국어 특수자료 3,288만 어절, 과거 국립국어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말뭉치를 후처리한 7,500만 어절 등을 포함해 약 2억 46만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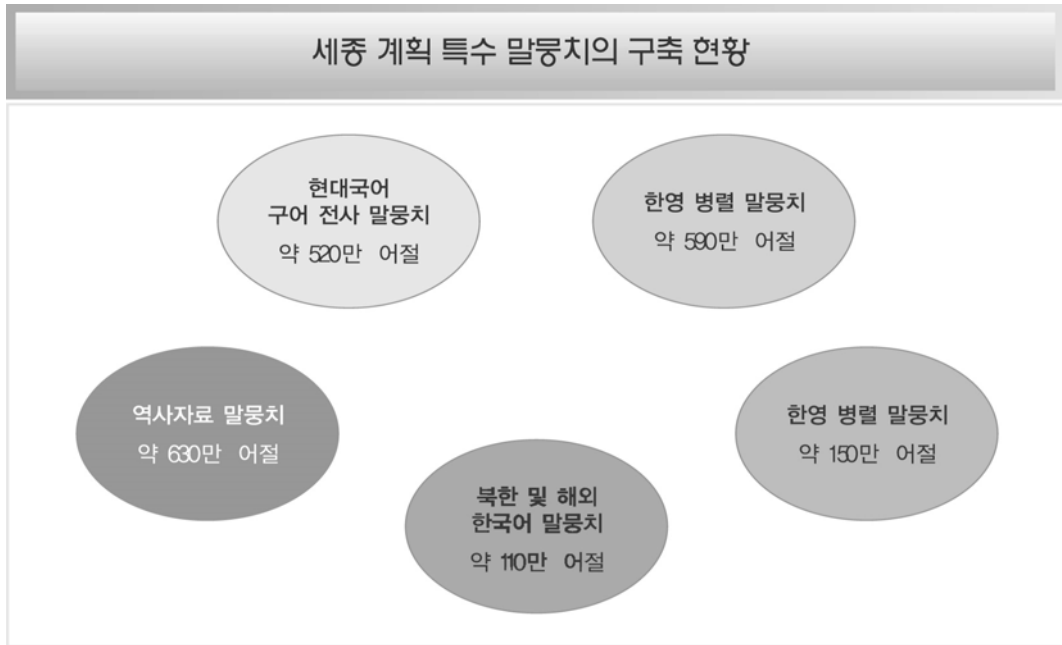
[그림 3-13] 국가 말뭉치 규모 비교

먼저 국어 기초 자료 말뭉치의 장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15〉 국어 기초 자료 말뭉치 장르별 분포

장르 \ 말뭉치	원시	형태	형태의미	구문
준구어	5%			
신문	29%	24%	28%	22%
잡지	13%	12%	15%	10%
책-정보	33%	38%	39%	40%
책-상상	17%	24%	16%	25%
기타	3%	2%	2%	3%
합계	100%	100%	100%	100%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는 기초 자료인 현대국어 말뭉치를 비롯해서 구어 전사 말뭉치, 한영·한일 병렬 말뭉치, 역사 말뭉치 및 방언 및 구비문학 말뭉치, 그리고 북한 및 해외 한국어 말뭉치를 만들어서 각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3-14] 특수 말뭉치의 구축 현황

또한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위해 ‘말뭉치 구성방법론 연구’, ‘구문분석 방법 연구’ 등 9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구문 태그부착 말뭉치 구축 도구’ 등 말뭉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7종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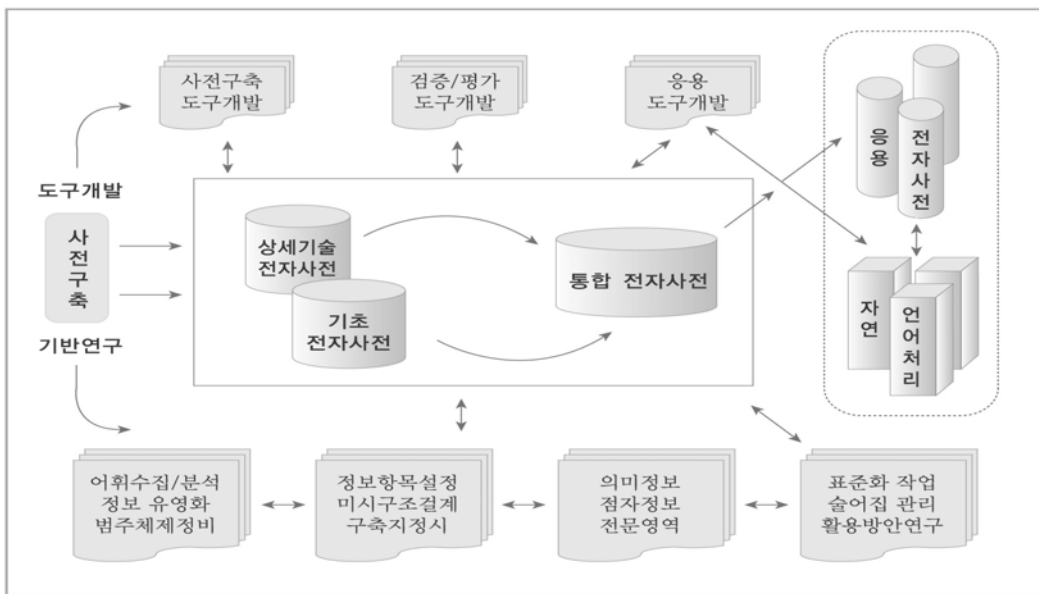
구축된 말뭉치는 언어 현상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기계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보검색, 컴퓨터를 활용한 사전 편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나. 전자사전 구축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고 생성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단어에 대한 형태, 의미, 문법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언어 처리용 전자사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즉 일반 인쇄 사전과 인터넷 상의 전자사전이 인간의 언어로 기술되어 인간을 위한 사전이라면 이 사전은 컴퓨터

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컴퓨터가 기계 번역, 철자 교정, 지능형 문서 작성 등 언어정보 처리에 활용하는 전자사전이다.

21세기 세종계획으로 개발한 전자사전은 품사별 하위 사전과 이것들을 통합한 통합 전자사전으로 구성되며, 하위 사전은 체언 사전·용언 사전·연어 사전·특수어 사전·복합 명사구 사전·부사·관용표현·어근/접사·고유명사 사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사전 45만 항목, 상세 사전 15만 항목을 구축하였으며 이것이 통합 전자 사전의 기반이 된다.



[그림 3-15] 세종 전자사전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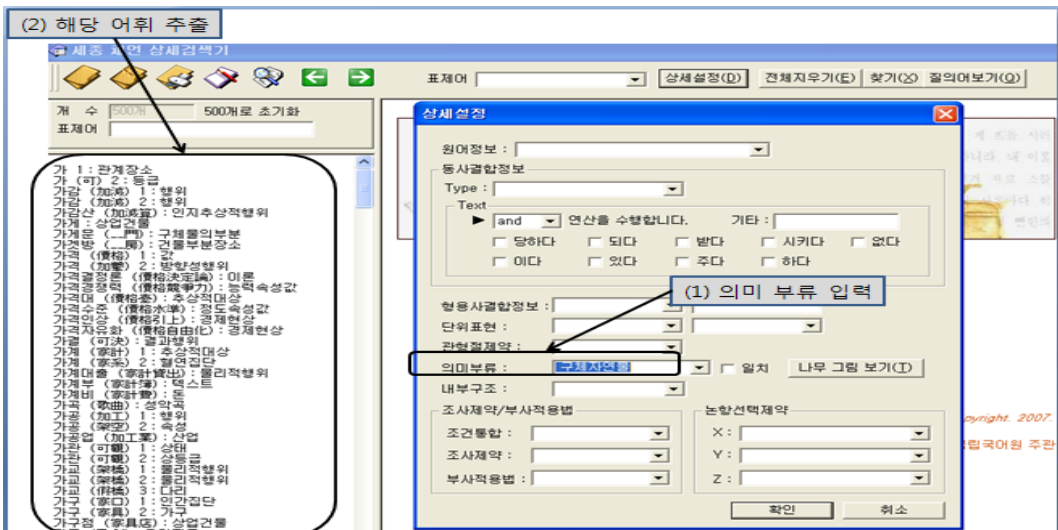
세종 전자사전은 전산 처리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정보가 구조화·전산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의 표상에서도 표준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이 채택되었다. 즉 XML 방식을 도입하여 전산학 분야의 데이터 처리 및 표상 방법을 따른다. XML 방식이 정한 문법에 따라 개별 어휘 항목과 세부 정보 항목들이 특정 표지를 통해 구분되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들이 표상된다. 따라서 세종 전자사전과 세부 정보들은 현 상태 그대로 전산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쉽게 변환될 수 있다.

또한 세종 전자사전은 한국어 정보 처리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성, 유연성, 연동성을

갖춘 기반 전자사전이다. 모듈 방식으로 구성되어 특정 모듈에 대해 언제라도 부분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이 가능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될 인공지능 또는 여러 새로운 전산 기술에 입각한 언어 처리 시스템에도 손쉽게 적용,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유연성이 있다. 또한, 세종 전자사전은 그 속에 표상되는 각종 정보들을 통해 고유명사, 전문용어, 방언, 북한어, 구어, 음성 사전 등의 위성 사전과의 연계 및 연동성을 갖는 하나의 핵심 모듈로 기능할 수가 있다. 이러한 연동성과 앞서 언급한 확장성, 기술적인 유연성이 맞물려 해당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자 어휘부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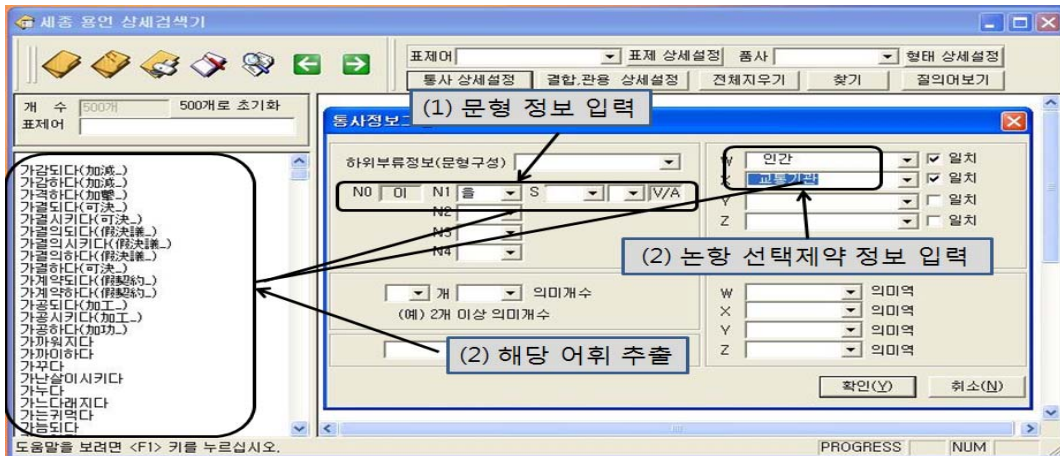
세종 전자사전은 상기 특성들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하기가 용이하다. 즉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검색하거나 추출(단순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정보를 묶어서 검색하고 추출(복합 검색)할 수가 있다. 이는 세종 전자사전의 검증·평가를 위해 개발된 검색기를 통한 정보 추출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16]은 체언사전 표제항의 의미 기술에 사용되는 의미 부류 정보 항목을 이용하여 명사 어휘를 검색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단순 검색의 한 예이다. 의미 부류를 이용하여 의미 유형별 어휘 검색을 하기 위해 의미 부류 중의 하나인 <색속성값>을 입력하고 상세설정 창의 '확인'과 검색기 툴바의 '찾기'를 누르면, '갈색', '검은색' 등 <색속성값> 의미 유형에 속하는 43개의 어휘들이 검색된다.



[그림 3-16] 단순 검색의 예

다음의 [그림 3-17]은 복합 검색의 한 예로 용언 상세 검색기를 이용해 <교통기관> 부류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어휘들을 검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검색기의 상세 설정에서 문형 정보로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동사들이 검색 대상임을 명기한다. 그런 다음 각 논항의 의미 유형을 세종 의미 부류 체계의 부류 명으로 입력하는데, 여기서는 주어 논항으로 <인간> 부류가, 목적어 논항으로는 <교통기관> 부류가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이렇게 설정된 조건을 ‘확인’하고 ‘찾기’를 누르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사 총 99개가 추출된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대부분이 <교통기관>에 속하는 명사들과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동사들이다.



[그림 3-17] 복합 검색의 예

이상의 예는 세종 전자사전이 정보 항목별 정보의 추출, 그리고 특정 정보 항목들의 정보들을 조합해서 추출하는 것 모두가 용이하도록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종 전자사전이 한국어 전산 처리 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산 어휘부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한민족 언어 정보화

한민족 언어 정보화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언어 동질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어 DB를 구축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구축한 DB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16〉 한민족 언어 정보화의 검색 프로그램

(검색어횟수)

검색 프로그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검색어
어문 규정 검색 프로그램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36,897
남북한언어비교사전 검색 프로그램	남북한 언어	남북한 언어	남북한 언어	남북한 이질화된 언어		남북한어 변환				73,926
방언 검색 프로그램				남한 방언	북한 방언	중국 및 해외 기타 지역 방언	문학 작품의 방언	문학 작품의 방언	문학 작품의 방언	222,157
국어 어휘의 역사 검색 프로그램					국어 어휘의 역사	국어 어휘의 역사	국어 어휘의 역사	국어 어휘의 역사	국어 어휘의 역사	5,000
한국 전통문화 어휘 검색 프로그램							한국 전통문화 어휘			300
합계										438,280

‘국어 어문규정 검색 프로그램’은 한글 맞춤법 규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전문과 해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어 어문규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한 언어비교 사전 검색 프로그램’은 남북한의 대표적인 언어 사전들을 비교, 정리한 남북한 기초 어휘를 수록하였으며, ‘남북한 이질화된 언어 검색 프로그램’에는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고 북한에서만 쓰이는 어휘 약 3,000개를 대상으로 이에 대응하는 남한의 어휘 또는 표현을 밝히고, 어휘의 생성 배경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한국방언 검색 프로그램’은 남한의 방언과 북한의 방언 및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한국어 방언에 대해 품사, 방언형에 대응하는 표준어, 각 지역별 방언형 등을 제시하였다. ‘국어 어휘의 역사 검색 프로그램’에는 현대 국어의 어휘 중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휘 약 5,000개를 선택하여 각각의 어휘에 대한 어원 정보와 표기법 및 형태의 변화, 음운 변화, 의미 변화 과정을 기술하여 국어의 어휘에 대한 역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2007년에는 이제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을 정제하고 이들 정보를 통합한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디로 제작·보급하고 인터넷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웹 검색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라. 전문 용어 정비

다양한 분야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된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의미의 전문용어가 분야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정비하여 일상 언어생활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산업, 국제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frequency’라는 단어에 대해 기계, 설비 분야에서는 ‘진동수’, ‘주파수’라고 사용되는 반면 물리, 생물 분야에서는 ‘도수’, ‘빈도’ 등으로 사용되어 제각각 쓰이고 있는데 이를 정비하지는 것으로 그동안 물리·화학·생물·의학·수학·전산학 분야 등 이공학 전문용어들을 1차 대상으로 정비하였다.

관련 분야 학회의 용어 심의를 거쳐 한·영 대응 목록 18만 건을 구축했고, 이들 단어에 대해 국어학적인 조어법 분석과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등에 대해 국어학 전문가에 의한 국어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7〉 전문 영역별 구축 말뭉치 및 한영(일) 대비 전문용어 수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경제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10,000
물리학	말뭉치		500,000							5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5,000						15,000
화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5,000	10,000					15,000
생물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5,000				15,000
의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5,000				15,000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수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10,000
전산학	말뭉치							1,000,000			1,0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20,000			30,000
전자전기 공학	말뭉치										
	한영일 DB							15,000			15,000
기계 공학	말뭉치										
	한영일 DB							5,000	10,000		15,000
산업 공학	말뭉치										
	한영 DB								5,000		5,000
화학 공학	말뭉치										
	한영 DB								10,000	5,000	15,000
재료 공학	말뭉치										
	한영 DB								5,000		5,000
환경 공학	말뭉치										
	한영 DB								5,000		5,000
건축 공학	말뭉치										
	한영 DB								5,000		5,000
토목 공학	말뭉치										
	한영 DB								5,000		5,000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합 계	말뭉치	0	1,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0	6,500,000
	한영(일) 대응DB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40,000	45,000	5,000	180,000

구축된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는 세종계획 홈페이지 및 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KORTERM)의 홈페이지에서 전문 용어 검색 및 용례 검색, 빈도 검색이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KORTERM)는 Infoterm, EAFTerm 등 전문용어 관련 국제조직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마. 문자코드 표준화

국어 생활에는 다양한 문자 및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코드값이 부여되어야 한다. 문자코드 표준화는 이를 위해 다양한 문자 및 부호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 표준 문자코드 환경에서 우리 문자의 효율적인 입출력 방안을 연구하여 국가 표준코드를 보완하고 확장하였다. 특히 옛한글과 한자, 구결 등과 같은 문자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컴퓨터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함께 진행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동안 수집된 옛한글과 비표준한자, 그리고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8〉 옛한글과 비표준한자의 수집자수와 한자정보 DB 구축 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옛한글 수집	0	5,291	3,319,661	457,661	755,320	0	0	0	0	0	4,537,933
비표준한자 수집	248	4,940	0	1,509	2,264	5,730	1,096	10,247	3,926	2,197	32,157
한자정보 DB 구축	0	0	0	47,435	0	0	0	70,207	0	0	117,642

1) 옛한글 표준화

옛한글은 학교 교육, 고전 전산화 등 우리 어문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니코드에 불완전하게 수용됨으로 인해 정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유니코드 환경에서 옛한글 처리 방안을 연구하고 옛한글 자모의 선정과 순서를 정하기 위해 옛한글 자료를 수집하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옛한글 정보 데이터베이스(<http://www.code.re.kr/ocdb/>)’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2002년 최종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는 1,273종의 문헌으로부터 추출한 25,914,902어절, 4,537,933자의 옛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 정리된 옛한글은 ‘옛한글정보처리연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17자의 〈옛한글자모 확장목록〉을 마련하였고, ISO/IEC에 제안하여 2007년에 ISO/IEC 10646의 BMP 영역에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옛한글 자료를 완벽하게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옛한글의 국제 표준화를 달성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새로 등록된 〈옛한글자모 확장목록〉 117자의 BMP 상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A	11B	11C	11D	11E	11F
0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ㄱ	ㄷ	ㅂ	ㅅ	ㅈ	ㅊ
1	ㄴ	ㄹ	ㅃ	ㅆ	ㅇ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2	ㅣ	ㅎ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ㄱ	ㄷ	ㅂ	ㅅ	ㅈ	ㅊ
3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ㅅ	ㅈ	ㅊ	ㅋ	ㆁ
4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5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6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7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8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9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A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B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C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D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E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F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그림 3-18] 기존의 Hangul Jamo 영역에 추가된 확장 자모

<초성: 34자>

Hangul Jamo: U+115A ~ U+115E

Hangul Jamo Extended-A: U+A960 ~ U+A97C

<중성: 28자>

Hangul Jamo: U+11A3 ~ U+11A7

Hangul Jamo Extended-B: U+D7B0 ~ U+D7C6

<종성: 55자>

Hangul Jamo: U+11FA ~ U+11FF

Hangul Jamo Extended-B: U+D7CB ~ U+D7FB

	A96	A97
0	ㄷㅏ	ㅏㅏ
	A960	A970
1	ㄷㅑ	ㅑㅑ
	A961	A971
2	ㄷㅓ	ㅓㅓ
	A962	A972
3	ㄷㅕ	ㅕㅕ
	A963	A973
4	ㄷㅗ	ㅗㅗ
	A964	A974
5	ㄷㅛ	ㅛㅛ
	A965	A975
6	ㄷㅜ	ㅜㅜ
	A966	A976
7	ㄷㅠ	ㅠㅠ
	A967	A977
8	ㄷㅡ	ㅡㅡ
	A968	A978
9	ㄷㅣ	ㅣㅣ
	A969	A979
A	ㄷㅐ	ㅐㅐ
	A96A	A97A
B	ㄷㅑ	ㅑㅑ
	A96B	A97B
C	ㄷㅓ	ㅓㅓ
	A96C	A97C
D	ㄷㅕ	
	A96D	
E	ㄷㅗ	
	A96E	
F	ㄷㅛ	
	A96F	

[그림 3-19] Hangul Jamo Extended-A의 초성 U+A960~U+A97C 영역

	D7B	D7C	D7D	D7E	D7F
0	ㅏㅑ	ㅑㅑ	ㅑㅓ	ㅓㅓ	ㅓㅕ
	D7B0	D7C0	D7D0	D7E0	D7F0
1	ㅑㅑ	ㅑㅕ	ㅑㅗ	ㅗㅗ	ㅗㅛ
	D7B1	D7C1	D7D1	D7E1	D7F1
2	ㅑㅓ	ㅓㅓ	ㅓㅕ	ㅕㅕ	ㅕㅗ
	D7B2	D7C2	D7D2	D7E2	D7F2
3	ㅑㅕ	ㅕㅕ	ㅕㅗ	ㅗㅗ	ㅗㅛ
	D7B3	D7C3	D7D3	D7E3	D7F3
4	ㅑㅗ	ㅗㅗ	ㅗㅛ	ㅛㅛ	ㅛㅕ
	D7B4	D7C4	D7D4	D7E4	D7F4
5	ㅑㅛ	ㅛㅛ	ㅛㅕ	ㅕㅕ	ㅕㅗ
	D7B5	D7C5	D7D5	D7E5	D7F5
6	ㅑㅜ	ㅜㅜ	ㅜㅛ	ㅛㅛ	ㅛㅕ
	D7B6	D7C6	D7D6	D7E6	D7F6
7	ㅑㅠ		ㅑㅛ	ㅛㅛ	ㅛㅕ
	D7B7		D7D7	D7E7	D7F7
8	ㅑㅡ		ㅑㅛ	ㅛㅛ	ㅛㅕ
	D7B8		D7D8	D7E8	D7F8
9	ㅑㅣ		ㅑㅛ	ㅛㅛ	ㅛㅕ
	D7B9		D7D9	D7E9	D7F9
A	ㅑㅐ		ㅑㅛ	ㅛㅛ	ㅛㅕ
	D7BA		D7DA	D7EA	D7FA
B	ㅑㅑ	ㅑㅓ	ㅑㅕ	ㅕㅕ	ㅕㅗ
	D7BB	D7CB	D7DB	D7EB	D7FB
C	ㅑㅓ	ㅓㅓ	ㅓㅕ	ㅕㅕ	ㅕㅗ
	D7BC	D7CC	D7DC	D7EC	D7FC
D	ㅑㅕ	ㅕㅕ	ㅕㅗ	ㅗㅗ	ㅗㅛ
	D7BD	D7CD	D7DD	D7ED	D7FD
E	ㅑㅗ	ㅗㅗ	ㅗㅛ	ㅛㅛ	ㅛㅕ
	D7BE	D7CE	D7DE	D7EE	D7FE
F	ㅑㅛ	ㅛㅛ	ㅛㅕ	ㅕㅕ	ㅕㅗ
	D7BF	D7CF	D7DF	D7EF	D7FF

[그림 3-20] Hangul Jamo Extended-B의 중성 U+D7B0~U+D7C6 영역과 종성 U+D7CB~U+D7FB 영역

2) 비표준한자 표준화

비표준한자뒤에 신출한자로 명칭 변경은 한문 고전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어 추출된 한자로서, 기존의 국제 표준코드의 'CJK 통합한자' 및 'CJK 통합 확장한자' 문자세트에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자를 말한다. 이렇게 수집된 비표준한자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IRG에 제안하여 국제 표준코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8,128자의 비표준한자를 수집하였고, 국제 표준코드와의 대비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573자의 한자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를 IRG에 <Ext.C1 한국측 제안한자>로 제출하였으며, 2006년에는 이 중에서 404자가 Ext.C 영역의 한자전체 4,219자로 수용되었다.

한편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진행된 고전 전산화 과정에서 다량의 비표준한자가 발견되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고전 전산화 사업을 주관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총 17,466자의 비표준한자를 수집하게 되었다. 이들 비표준한자는 모두 2차례의 검정 과정을 거쳐 국제 표준코드에 등록되지 않은 6,968자의 신출한자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거정보와 원전이미지 등의 각종 정보가 확실한 한자 2,288자를 선별하여 <Ext.DNU 한국측 제안한자 목록>을 작성하여 2007년 IRG에 제출하였다.

3) '한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표준한자 자료를 폭넓게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자 전산화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수용한 '한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한자 정보처리를 위한 각종 표준화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 고문헌 전산자료를 개발하는 데 긴요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1999년에는 한국·중국·일본의 기존 코드 체계에 포함된 총 48,027자의 한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각 한자에는 부수, 획수, 한글 대표 자음 등의 정보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들 한자의 각종 정보는 2001년까지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쳤으며, 『강희자전』·『한어대자전』 등의 전통 자전의 위치 정보, 베트남·홍콩의 국가 표준 코드 정보를 추가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였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추출할 수 있는 <한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2002년 이후 국제 표준코드가 본격적으로 각종 소프트웨어에서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표준코드에 등록된 한자를 우리 어문 생활과 정보 환경에 맞게 수용하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 국제 표준코드에 등록된 ‘CJK 통합한자’ 70,207자를 대상으로 ‘SuperCJK Ver.14.0 한자 자형 및 한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PC 기반의 <SuperCJK Ver.14.0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유니코드값을 비롯하여 한·중·일 등 각국의 코드 정보, 부수·획수 정보, 『강희사전』·『한어대사전』의 위치 정보, 한글 자음과 자의, 사각호마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또 2005년에는 <SuperCJK 14.0 검색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음·자의·사각호마’ 등의 한자정보를 추가·보완하고, 다양한 방식의 검색 기능을 대폭 보완하여 웹 버전을 개발하였다. 현재 이 검색기는 ‘문자코드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code.re.kr/>)’와 ‘21세기 세종 계획 홈페이지(<http://www.sejong.or.kr/>)’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3-21] 부수·획수 검색 화면

4) 기타 활동

비표준문자의 표준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산하의 IRG와 유니코드 컨소시엄 (Unicode Consortium)에 참여하여 문자 코드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연간 2회씩 소식지를 발간하여 문자코드 표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문자코드 표준화와 관련된 4번의 심포지엄과 3번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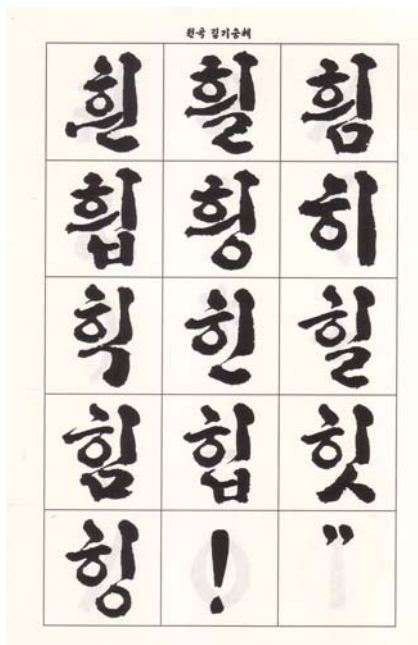
정부기관·산업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 그동안 이룩한 연구 성과를 관련 기관과 업계에 자문 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바. 글꼴 개발 지원

글꼴 개발 지원 및 보급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부설 한국글꼴개발원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글꼴 개발 지원을 위해 해마다 한글 글자체 공모전을 개최하여 한글 글꼴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옛문헌의 글꼴을 발굴 연구하여 폰트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옛한글 문헌서체 개발은 동국정운체 2,350자, 언해납약중치방체 500자를 개발한 바 있으며,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5인 -김기승체, 김충현체, 서희환체, 이철경체, 이미경체)의 서체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원곡 김기승체 원도〉



〈평보 서희환체 원도〉



〈일중 김충현체 원도〉



〈갈물 이철경체 원도〉



[그림 3-22]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의 서체

한편 글꼴 개발 현황을 알리기 위해 ‘글꼴’지를 해마다 발행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한글글꼴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현재 한글 글꼴은 디자인의 중심 소재가 되어 수백 종류의 글꼴이 신돌, 윤디자인 등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사용되고 있다.¹⁰⁾ 이제 한글 글꼴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 정보화 인력 양성

선진국에 비해 국어정보화 관련 연구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국어정보화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행한 사업이다. 2000년부터 국어정보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국어정보화 아카데미’를 7회 개최하여 총 1,244여 명이 수강하였다. 또한 ‘국어정보화 입문’, ‘국어정보화 용어 길라잡이’ 등 국어정보화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10)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이 구축한 온라인상의 디지털 한글 박물관(www.hangeulmuseum.org) 조형예술관에서 다양한 한글 글꼴의 이름과 폰트를 찾아볼 수 있다.

아. 기타 결과물 보급 관리 및 세종계획 홈페이지 개발

결과물 보급 관리는 21세기 세종 계획을 통해 구축된 각종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수행되었다. 크게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 관리, 21세기 세종계획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세종계획 결과물 활용도 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였다.



[그림 3-23] 21세기 세종계획 홈페이지

세종계획 결과물은 입력 자료의 저작권 문제와 결과물이 공개되기도 전에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결과물을 크게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 후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접근 범위를 세분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세종계획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결과물을 열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계획 참여자는 물론 국내외 회원, 일반 방문자들 사이에 원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 활용도 조사는 실제적인 활용 사례를 파악하여 세종계획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세종계획의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보급·홍보하여 궁극적으로는 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과 투자 예산을 간략히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19〉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과 투자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진실적	투자액
○국어기초자료 구축	- 현대 국어, 역사자료, 북한어 등 다양한 분야의 말뭉치 2억 어절 구축 - 용례추출기,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등 말뭉치 활용 도구 개발	5,174
○전자사전 개발	- 체언, 용언, 고유명사 등 약 57만 항목 구축	3,748
○한민족 언어 정보화	- 어문규정(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검색시스템 개발 - 남북한 언어 비교사전, 남한 및 북한 방언 검색 시스템, 국어 어휘 역사 검색 시스템 개발 등	1,656
○전문용어 정비	- 경제,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수학 분야 등 전문용어 목록 18만 항목 구축 - 표준화를 위한 전문용어 목록의 국어학적 검토	799
○국어정보화 여건조성 (국어정보화 인력 양성, 비표준문자등록지원, 글꼴 개발 보급 지원)	- 국어정보화 아카데미(7회) 개설 - 옛한글 및 한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자코드 표준화 연구 등 - 한글 글꼴 용어사전 편찬, 글꼴 현황 보고서 발간 등	1,583
○기타	- 세종계획 홈페이지 개발 - 결과물 보급센터 운영 - 단계별 성과 발표회(2회) - 평가 및 감리	1,085
계		14,045(12,960)

제4절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1. 추진 배경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수립은 2008년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한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한글의 국제적 보급 및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

하도록 지시받아 시작되었다. 이에 2009년 1월 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문화부 등 관계 부처에서 한국어 보급 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대회에서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이라는 목표 아래 ‘세종학당’, ‘엔조이 태권도 프로젝트(Enjoy Taekwondo Project)’, ‘글로벌 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등을 문화·체육·관광분야 국가 브랜드 제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류 열풍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보급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경우 문화부, 교육부, 외교부 등 3개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여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있고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어 보급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문화부에서,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교육부와 외교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이원화되어 있다. 한국어 학습사이트도 문화부에서는 한국어세계화재단(www.glokorean.org)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과부의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www.study.korean.net),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재단(www.kosnet.go.kr)에서 운영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내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도 5개 부처(문화부·복지부·교육부·노동부·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유입되는 근로자들이 입국 전에 받게 되는 현지 한국어 교육과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0〉 국내 한국어 보급기관(해외 3개 부처, 국내 5개 부처)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				
문화부		교과부		외교부
한국문화원 (한국어 교실)	세종학당	한국 학교 (정규학교)	한국 교육원	한글학교 (민간 자생설립)
국내 한국어 보급기관				
문화부	복지부	법무부	교과부	노동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센터, 다문화 이해센터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한편 한국어 교육 시장의 경우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온라인 한국어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보급기관의 브랜드 통합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중국의 ‘공자학당’처럼 외국의 여러 나라가 자국어와 문화보급기관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의 한국어 보급사업과 교육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은 자국어 문화보급기관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해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브랜드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언어·문화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문화부·교과부·외교부 등 부처마다 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르고 명칭도 달리 사용하고 있어 통합적인 보급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표 3-21〉 외국의 자국어 보급기관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기관	British Council	Alliance Francaise	Goethe Institute	Japan Foundation	Confucius Institute	Russian Centers



[그림 3-24]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 한국 홈페이지(www.britishcouncil.org/korea)



[그림 3-25] 서울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cis.or.kr>)

<표 3-22> 통합 브랜드 개발 추진 배경

한국어의 대내외적 수요환경변화	한국어 세계화 전략 부재	한국어 보급 통합 인프라 구축 (통합 브랜드 개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강화 해외 한국어 수요 다변화 국내 한국어 수요 급증 선진국 자국어 보급 확대	한국어 학습수요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략 부재 해외 한국어 보급기반 미약 국내 한국어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내실화 미흡	한국어 환경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통합 인프라구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브랜드 통합 한국어 교육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 정책으로 전환

2. 비전과 추진과제¹¹⁾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보급 확대 및 통합인프라 세계화 전략 수립과 한국어의 위상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보급 통합 인프라 구축과 해외대학 한국어(학) 지원 강화 및 다문화가정 등에 한국어교육 확대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림 3-26] 한국어의 세계화 비전과 추진과제

가. 해외 한국어 보급 통합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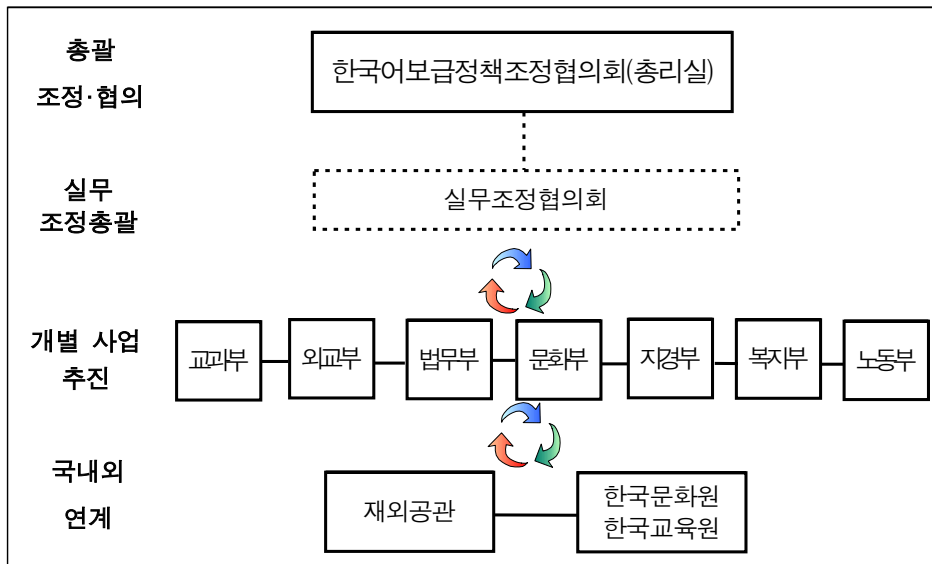
첫째, 외국인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인프라를 구축한다. 외국인이 한국어 보급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부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대외적인 통합 이미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등에서 외국인의 학습 수요 조사와 수준별 등급에 맞는 교육기관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문화부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습 공간을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11) 2009. 1. 3. 총리실 보고 내용이다.

등에 2012년까지 60개소로 확충할 것이다. 재외동포 위주의 교육기관인 교과부의 한국교육원 등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준별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문화부와 외교부에서는 해외 한국어과 설치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 학생 이외의 현지인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교부, 교과부, 문화부의 사이버 한국어 학습 환경을 통합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한국어 학습 환경 및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은 각 기관별로 교육대상에게 적합하도록 하되, 중복을 방지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둘째, 한국어 보급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종학당, 한글학교, 한국교육원에서 외국인과 재외동포 교육을 함께 실시하며, 중장기적으로 세 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행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의 사회통합정책실장과 관계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어보급정책조정협의회」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의 한국어 보급사업을 총괄하고 사업조정, 실적점검, 신규사업 발굴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현지에서는 외교부가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어 보급 총괄 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그림 3-27] 한국어보급정책조정협의회 구성도

셋째, 한국어 교재와 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교과부와 문화부가 역할을 분담하여(교과부: 재외동포용, 문화부: 외국인용) 지역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한국어 교재 개발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과부와 문화부는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외교부(국제교류재단)의 한국어 교재 발간 사업은 중단한다. 한국어 교원에 대한 공동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과 연계할 예정이다. 한글학교 교원들의 현지 연수 지원은 교과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교부(재외동포재단)로 일원화한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한국어능력시험을 TOPIK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문제의 출제는 교과부에서, 시험관리는 노동부에서 담당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여 교육과 평가를 연계하고 TOPIK을 한국어능력시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다섯째,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한국어가 국제기구 등에 주요언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외교부와 문화부 주도로 UN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한국어를 제공하고 주요 국제회의와 해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어 통번역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 한국학 대회, 문명과 포럼 등과 같은 국제 세미나 개최를 매년 추진한다. 국제사회 소수언어 보호 및 다양성 선도를 통해 한국어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외교부와 문화부에서는 유네스코와 “(가칭)언어 다양성 지원 기금신탁” 협정을 추진하고, 소수언어에 대한 연구지원, 문자가 없는 국가에 한글 나눔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부에서는 ‘문화브랜드’로서 한글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데, 한글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글꼴 및 문화상품(패션·디자인·공예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한글문화관’을 조성하고 국제 한글 순회전과 세계문자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글을 활용한 공연, 음악 등 문화예술작품의 창작도 지원할 것이다.

나. 해외 한국어/한국학 지원 강화

첫째, 해외대학의 한국학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해외 한국학을 효과적으로 확대보급하고 한국학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복사업을 조정하여 특성별 지원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학과의 설치를 위해 외교부는 한국학과 신설과 교수직 채용을 주도하고, 교과부는 한국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한국학 심층연구를 지원하고 현지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일을 담당한다. 앞으로 2013년까지 80개국 165개소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지원 사업으로는 한국학 교재

개발과 해외학자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유학생 장학사업이 있는데, 전문성 및 교육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부가 담당한다.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는 문화부가 담당) 외교부와 교과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 교수 파견, 해외 한국학 전문가 초청, 학술행사는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는데, 매년 부처(기관)간 업무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계획을 「한국어보급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조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둘째,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한국학을 보급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에서는 한국학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유럽·미국 등의 대학을 한국학 중점지원 대학으로 선정('09.6)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2016년까지 해외 50개 대학을 한국학 중핵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 반면 한국학 기반이 취약한 CIS, 중남미, 동남아 등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학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재정난으로 한국학이 폐지되는 대학은 재정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현지대학과 강좌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는 브리지 펀드로 자립을 유도한다.

셋째,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 채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부는 해외 초·중등학교 및 대학입시에서 한국어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해외 한국기업, 현지교포 사회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교류기금을 초·중등학교 교과목 채택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교과부는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규학교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개설을 지원하며 한국어 학습 자료 제공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을 통해 협조한다. 교과부와 외교부는 해외 한국학(어)과 대학 지원 시 대학에 현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교생이 현지대학의 한국어 강좌 수강 시 대학의 선수학점을 인정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넷째, 해외 한국어(학) 전공자의 취업연계를 강화한다. 지경부와 외교부는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 강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어(학)과 졸업생의 인턴십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은 한국어(학)과 개설대학과 채용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하거나 통상투자진흥회의(재외공관)에 해외대학 한국어(학) 관계자를 초청하여 홍보하고 한국어 우수자를 재외공관에서 채용하는 경우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채용수요와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인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사관무역관 등에 한국어(학)과 졸업생 정보를 DB화 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와 해외 진출 가이드북을 확충할 것이다. 아울러 현지 취업 설명회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현지에 진출기업의 정보와 국내 기업의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

고자 한다.

다. 국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첫째, 국내 한국어 교육의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문화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이 국내 통합 브랜드는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통합브랜드와 연계하여 통일성을 확보한다. 또한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방한다.

둘째, 한국어 교육방식을 전문화하고 다양화한다. 문화부는 한국어 수요조사, 교재·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전문강사의 양성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노동부는 한국어 교재 사용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설하고 방문교육, 온라인·방송 교육 등으로 교육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후 이동에 대해 보육시설에서 한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전담 인력 파견 등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 강화대책(‘08.10)」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수준별 한국어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문화 가정학생 교육지원 방안(‘08.10)」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비중을 확대하고(‘09)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 안내를 통해 고용주의 교육 협조를 유도할 것이다. 법무부는 국적신청 이민자가 한국어 교육 이수 시 귀화필기시험에 대한 면제를 추진하고, 결혼이민자나 유학생이 현지 사전 교육 이수 시 비자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3. 사업 내용¹²⁾

한국어 보급 확대와 세계화를 위해 ① 한국어 e-러닝 학습체계 구축, ② 한국어 보급기관의 브

12) 국가 브랜드 위원회 1차 보고대회의 ‘세종학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랜드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한국 언어 권역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보급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으로 통합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세종학당’의 통합 브랜드화를 위한 1단계 조치로 2010년까지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한국어 교육사이트를 연계해 ‘U-세종학당’을 구축하고, 다양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것이다. 2단계 조치로 2012년까지 한국어 e-러닝 및 원격교육 통합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육기관과 교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계획〉

- U-세종학당 구축
 - ’09 : 기관별 운영 사이트 연계 게이트페이지 구축, 교재 · 콘텐츠 통합(일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태국어 · 필리핀어 · 영어)
- 한국어교육 통합 브랜드 ‘세종학당’
 - ’09-’10 : 한국어교육기관명칭 세종학당으로 통일
 - ’11-’12 : 민간 자생적인 한글학교 등에 대한 인준제 도입
 - ’10-’11 : 세종학당 본부 설치, 국내외 한국어교육 연계 · 지원
 - ’12 : 동남아 ·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세종학당 확대

가. 한국어 e-러닝 학습체계 : ‘U-세종학당’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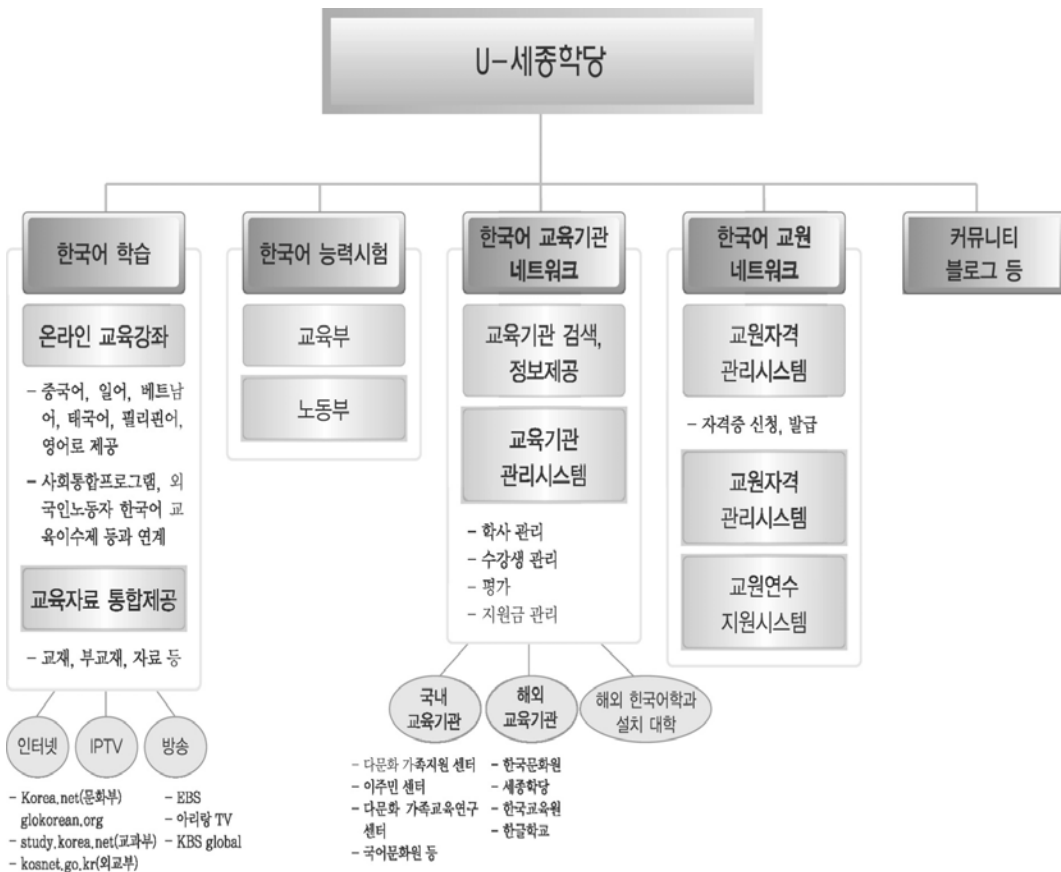
국내외 한국어교육 정보를 통합 · 제공하고 한국어보급기관 및 교원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U-세종학당’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2009년 중에 실시되며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를 연계하는 게이트페이지(gatepage) 구축과 한국어 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구축된 정보가 서비스될 것이다.

2단계는 2010년~2012년까지 ‘U-세종학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e-러닝 및 원격교육 통합학습시스템과 함께 각종 한국어 교육기관 및 교원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U-세종학당 구축 일정〉

- 1단계(2009년)
 - 기관별로 운영중인 사이트를 연계하는 게이트페이지(gatepage) 구축
 - 한국어 교재 · 교육콘텐츠 통합 제공
 - *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영어 등으로 제공
- 2단계(2010~2012년)
 - 한국어 e-러닝 및 원격교육 통합학습시스템 구축
 - *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의무교육(한국어) 등과 연계 검토
 - 한국어 교육기관 및 교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그림 3-28] U-세종학당 시스템 구성도

나. 한국어교육 통합 브랜드 :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1) 개요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보다 쉽게 기억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어 보급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설치·지원하는 한글학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한국문화원(한국어교실) 등 모든 한국어 보급기관이 망라된다.

한국어 보급기관을 통합 브랜드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각기 다르게 수립한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미국 등 한국어가 이미 확산된 지역에는 재외동포 중심의 정부 지원체계를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되 이미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교육기관에 직간접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지역의 경우, 한국어 수요는 높지만 한국어 보급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 맞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3-23〉 지역별 한국어 보급 방안

구분	지역	한국어 보급 전략
확산지역	중국, 일본, 미국 등	- 재외동포 중심의 정부 지원체계 개편 필요 -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현지화 모색 - 민간역할 강화
신흥지역	동남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 한국어 보급 기반 취약,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필요 - 쌍방향의 언어문화교류 확대
잠재지역	중동, 서남아시아 등	- 한국어 교육공급의 공공기관 역할 강화
정체지역	호주, 유럽 등	- 대학 등의 정규교육과정 지원 확대 - 현재 외국인(일반대중) 대상 신규수요 창출 모색

국외에 설치되는 세종학당은 현지 한국어 수요에 비해 보급기반이 열악한 동남아·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확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2012년까지 총60개의 세종학당을 해외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생적인 한글학교 등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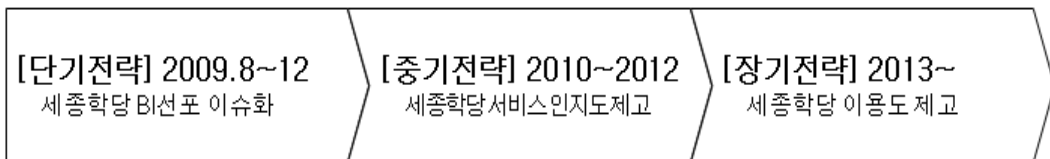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2011~2012년).

이를 위해서 국내에 ‘세종학당 본부(Headquarter)’를 설치하여, 외국인·다문화 가정·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2010~2011년).

2) 단계별 홍보 전략

한국어교육 통합 브랜드 ‘세종학당’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은 단계(시기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전략으로 세분화된다.

단기 전략(2009년)은 세종학당 신규 BI선포 등을 통한 이슈화 전략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기 전략(2010~2012년)으로는 ‘세종학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한국어 수요자들에게 세종학당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의 접점을 극대화한다. 마지막 장기 전략(2013년 이후)으로 ‘세종학당’의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교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임으로써 세종학당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정착시킬 계획이다.



[그림 3-29] ‘세종학당’ 통합브랜드 단계별 홍보 전략

4. 기대 효과

여러 선진국들이 자국어와 문화보급기관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문화브랜드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흩어져 있는 보급기관 명칭을 통합하여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로 홍보한다면 사람들에게 좀더 쉽고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고 한국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U-세종학당’ 구축과 한국어 보급기관의 통합 브랜드화는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한국어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시장을 확대시킴으로써 한국어 교육콘텐츠 수출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통합 브랜드화된 ‘세종학당’은 단기적으로 한국어 보급기관 관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제공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브랜드로 전환된 국내외 세종학당들이 수요자들과 새롭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종학당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이를 국가브랜드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제5절

세종사업

1. 추진 배경

최근 들어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어문규범 정비, 한글 자원의 관리 및 국제 교류 증진 등 한글과 한국어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2009년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종사업(King Sejong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음 네 가지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가. 한글의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로서 한글의 가치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로서 우리나라의 문맹률(2008년 1.7%)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은 외국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는데 예컨대, 유네스코에서는 1990년부터 문맹 퇴치 공헌자에게 ‘세종대왕 문해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 민족이 한글로 자신들의 고유어를 기록하고 교과서를 출판하여 가르치기로 했다는 보도는 보편 문자로서의 한글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세대가 사용하기 쉬운 문자로 한글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문자를 컴퓨터로 입력할 때 한글이 알파벳, 한자, 일본 가나 문자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간편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단어를 휴대전화로 문자 입력을 해 보았을 때 한글은 9회만 누르면 되는 데 비해, 영어 알파벳은 18회, 중국어 간체자는 14회, 일어 히라가나는 18회를 눌러야 한다.

또한 한글은 ‘창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6년 파리컬렉션에서 디자이너 이상봉의 한글 의상은 외국 전문가들의 지대한 관심과 호평을 불러일으켰다.

나. 정보·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표준화 필요

국가간 정보·지식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고유의 지명·인명 등을 영문 알파벳으로 표시하는 ‘로마자표기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로마자표기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1959년·1984년·2000년 총 3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는데 아직 성에 대한 표기는 통일되지 못했다.

또한 방송·신문·인터넷 등에서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외국의 지명·인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는 ‘외래어표기’의 표준화 역시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표기법은 1986년 개정된 것인데 여러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전문지식의 수용과 학술 교류를 위해 국내의 전문용어 표기 표준화 및 언어정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로마자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전문용어 표기 표준화 등과 관련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변하고 있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현실과 규범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급히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 쉽고 편리한 언어사용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 필요

그동안 국어 정책이 표준어 등 규범을 수립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해 왔지만, 디지털시대, 세계화시대, 다문화시대라는 상황에 걸맞은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쉽고 편리한 국어사전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글 언어자원을 집대성하고 있는 ‘국어사전’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보 소통 구조에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정책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쓸 필요

가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쉬운 영어 운동(PEC: Plain English Campaign)’도 ‘공문서’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경제·교육·분야로 확대된 점을 참고할 때 정부 공문서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라. 한국어 학습수요 증가·다변화 등에 대응한 한글 보급 확대 노력 필요

한류 열풍,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다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어 학습수요가 일본·미국 및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지금은 동남아·중앙아시아, 현지 외국인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내 한국어 개설 대학이 1996년 140여 개에서 2007년에는 346개로 늘어났고, 일본의 제2외국어 채택 순위도 1995년에는 중국어, 불어, 독일어에 이어 4위였는데, 2005년 조사에서는 중국어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EPS-KLT, TOPIK)의 응시자도 1997년 2천여 명에서 2008년에는 16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되면서 국내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자국어 사용 인구 확대를 통해 자국어 언어문화 권역의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council),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L'alliance Française), 독일 괴테 인스티투트(Goethe-Institut), 일본 일본어국제센터 등은 자국어 보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2004년 서울에 세계 제1호 중국언어문화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설립한 이래 2009년 현재 83개국 331개의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최종 500개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자국어 보급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24〉 주요 국가의 현지인 대상 자국어와 문화 보급시설 개요

2008년 3월 현재

구 분	개설 국가 수	시설 수
프랑스 (알리앙스 프랑세즈)	137개국	1,071개소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	110개국	238개소
독일 (괴테 인슈티투트)	88개국	153개소
일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각국 문화회관/문화센터/사무소)	19개국	20개소
중국 (공자학원)	69개국	238개소

2. 한글 관련 현안

현재 한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안으로는 어문규범이 언어사용 실태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한글 언어 자원과 지식·정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사전과 공문서 등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가 많아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점, 체계적인 한글 보급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체계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가. 한글 표기 표준화 미비 등으로 인해 지식·정보 소통 저해

언어 환경 변화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사용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로마자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00년 로마자표기법 개정 당시 성씨(姓氏)의 표기는 따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예외 허용 범위와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 결과 여권 등 공문서나 작품 번역 및 인용문 작성 시 영문성명 표기를 개인마다 다르게 하고 있어 정보·지식 교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원 외교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아랍·인도·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래어표기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용어와 관련하여 ‘genome : 게놈-지놈’, ‘collagen : 콜라겐-콜라젠’에서 보듯이 학계·산업계·언론계·일반국민이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달라 의사소통에 혼란을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는 우리말로 된 전문용어 사용 기피 현상과 외국어 음차 사용의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말로 된 용어 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 사전·공공언어와 국민 언어생활 간 차이 발생

현행 유통되고 있는 국어사전은 뜻풀이에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한글·디지털 세대의 소통과 학습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또한 출판사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국어사전 대부분이 초판 발행에 그쳐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예문 등도 언어사용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을 걸쳐 사전 편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된다. 언어문화의 총아로서 국어사전이 가지는 위상에 대한 혁신적인 의식 변화와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사전 편찬이 표준어 중심의 언어자원으로 이루어져 지역어(방언)·신어·고어 등 풍부하고 아름다운 국어문화 자원이 누락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높다.

〈표 3-25〉 각국의 사전편찬 현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말 큰사전(한글학회) : 1929~57년, 전 6권 ▶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 1967~91년, 전 4권 완간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 1992~99년, 전 3권 완간(50만 어휘) * 국어전문가 200여명, 전문용어 관련 전문가 120여명 참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국어대사전 : 1972년 초판 발행, 현재까지 20권 분량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漢語大詞典 : 1975년 시작, 현재까지 12권 편찬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스퍼드 대사전 : 1884년 초판 발간, 현재까지 13권 편찬 * 언어학회(The Philological Society) 주간으로 1천 명 이상의 학자, 일반인 참여로 편찬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e : 1960년 발간, 현재까지 편찬 지속

모본(母本)으로서 한글사전 편찬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즈베키스탄어-한국어 사전’ 같이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의 한글학습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학습용 외국어-한국어 사전편찬이 부재하거나 미미한 상황이다.

사전뿐만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의 공문서, 광고물, 식품·의약품 등의 설명서도 영어나 전문용어를 여과 없이 남용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WiBro(Wireless Broadband : 광대역 무선통신)’, ‘바우처(Voucher : 전표/복지상품권)’ 같은 예에서처럼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외래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전문용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2006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외래어에 대한 국민인 지을 조사에서 평균 18.5%가 해당 외래어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의사소통과 정보 획득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 체계적인 한글 보급 확대 전략 미비

국내외의 한글과 한국어 학습수요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보급 전략이 부재한 형편이다. 기존 교육기관은 북미·일본·CIS(독립국가연합) 등의 재외동포사회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나 현지인 학습수요가 급증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표 3-26〉 한국어 보급기관 분포현황(2008년)

기관명	북미	일본	CIS	아시아 (일본제외)	유럽	중남미	아중동	계
재외공관(한국문화원)	3	3	1	2	2	-	-	11
세종학당	1	1	3	13	1	-	-	19
한국교육원	7	13	7	1	3	3	-	34
한글학교	1,061	125	495	209	109	72	42	2,113
한국학교(정규학교)	-	4	1	17	-	3	4	29
계	1,072	146	507	242	115	78	46	2,206

한편 외국의 초·중등학교나 대학입시 등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도록 하는 등의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수요 창출 및 현지화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해외 한글 보급은 문화부·교과부·외교부 등에서 정책 대상에 따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정책 혼선과 예산 중복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현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도 이원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표 3-27〉 해외 보급기관 현황

구 분	문화부(국립국어원)	교과부(국립국제교육원)	외교부(재외동포재단)
보급기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설립현황	11개 국 28개	14개 국 34개	111개 국 2,113개
정책대상	현지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동포
법적근거	국어기본법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온라인 학습사이트도 관련 기관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접근성이 낮고 통합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문화부(국립국어원) www.glokorean.org, 외교부(재외동포재단) study.korean.net, 교과부(국립국제교육원) www.kosnet.go.kr). 교재도 기관별로 각각 개발·보급하고 있어 교육과정 표준화 및 교재 현지화가 미흡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교재개발이 영어·일어·중국어 등 특정 언어권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 입문·초급 과정만 개발하는 등 다양하고 전략적인 교재 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다(영어 30종, 일어 24종, 중국어 16종, 기타언어 10개국 55종 편찬).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은 교과부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과 노동부 ‘한국어 능력시험(EPK-KLT)’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그 기능이 중복된다. 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한글 교육도 부처별로 각기 시행되고 있어, 교육효과가 낮고 입국 전 현지 교육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노동부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입국 전 사전교육 과정에 한국어 교육 시간이 적고(입국 전 현지교육 45시간 중 한국어 20시간, 입국 후 국내교육 20시간 중 한국어 4시간), 현지 전문교육기관 부족으로 한국기업 취업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 3-28〉 국내 한국어교육 현황

구분	문화부	복지부	법무부	교과부	노동부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정책 대상	모든 외국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취학전)	국적 취득 희망자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가정 취학 이동	외국인 노동자
교육 기관	지역문화원 등 23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여 개소	이주민센터 다문화이해센터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개소

라. 한글의 가치 확산 및 산업적 활용 부족

한글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등 한국어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미흡하다. 최근 한글을 디자인으로 접근, 산업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최근 이루어진 세계3대 박물관에서 실시하게 된 한국어 안내 서비스도 국내 민간 항공사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인데, 이러한 관광 문화 영역에 한글을 확산하는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3. 세종사업 추진 방안

세종사업(King Sejong Project)은 한글의 보편성을 확립하고 한글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한글을 통한 품격 높은 문화국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글 표기의 국제적 보편성 제고’, ‘쉬운 한글 쓰기로 의사소통 증진’, ‘한글 보급 확대 및 접근성 강화’, ‘한글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중점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 한글 표기의 국제적 보편성 제고

한글 표기의 국제적 보편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외국과의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3가지의 정책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1) 어문규범 정비

현행 국가 주도의 규범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범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어문규범에 대한 전면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어문규범 영향평가는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과 합리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9년 로마자표기법을 시작으로 2010년 외래어표기법, 2011년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 3-29〉 어문규범 영향평가 시행 계획

2009년	2010년	2011년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어문규범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현행 어문규범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현실성 있게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로마자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정책 대안을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로마자표기법의 경우,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현행 표기법 개정 시 성씨에 대한 로마자 표기 표기안을 마련하고 영문 이름을 표기할 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씨를 표기하는 원칙을 정하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아울러 여권 신규발급시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영문 성명 표기를 의무화한다거나 출생신고나 주민등록증 등의 공문서에 한글·한자 외에 영문 성명 병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비될 로마자표기법의 자연스러운 정착을 유도하려고 한다. 또한 주요 역사적 인물의 경우 사용례를 확정·고시하여 역사적으로 동일 인물이 다르게 표기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어표기법의 경우에도, 어문규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외래어표기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외래어표기법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외래어표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랍어, 힌두어, 중앙아시아언어 등의 언어에 대한 외래어표기법을 단계적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들어오는 외국 지명·인명 등에 대한 표기 표준화를 위한 심의·보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전문용어 표준화

전문·학술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말로 된 지식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범정부차원의 전문용어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부처에 임명된 국어책임관들로 구성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산업표준규격(ISO/TC 37)에 맞는 전문용어 표준화 및 규격화를 통해 언어정보 자원의 보편성을 제고하고 전문용어의 국제화를 유도해야 한다.

3) 언어정보화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언어 사용 환경 및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이에 걸맞은 언어자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언어 표준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언어정보화 종합계획’(2010~2014년)을 수립하고, ‘언어정보화 및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문자코드 및 특수언어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표준 문자코드 체계(ISO/IEC 10646)에 따라 국내 비표준 한자(2만여 개)를 코드 표준화하고 남북한 언어 표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수화·점자 등 특수 언어 표준화 및 정보화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나. 쉬운 한글 쓰기로 의사소통 증진

한글 세대, 디지털 세대의 한글학습과 사회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기 쉬운 한글 사전을 편찬하고 공공기관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쉽고 살아 있는 사전 편찬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한글 지식사전 편찬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편찬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표제어수 50만 개)을 2012년까지 100만 어휘로 확대할 것이다. 또 알기 쉬운 설명과 풍부한 예문, 널리 쓰이는 신어 등재 및 멀티미디어 정보를 함께 제공한 사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은 웹 2.0 기반의 위키피디아형 사전 구축을 통해 일반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응용하여 우즈베키스탄어-한국어, 태국어-한국어 등 20여 개국의 외국인·재외동포의 한글 학습을 지원하는 다국어 웹사전 편찬을 편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현지 언어학자 및 대학의 참여를 통해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이 지금까지 표준어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용어, 공식어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신어·지역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각 분야의 전문사전 편찬도 아울러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등에 지역어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확립하고, 언론매체나 인터넷 포털과 연계한 신어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공공언어 쉽게 쓰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정책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범정부 공공언어 쉽게 쓰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서와 약품·식품 설명서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공문서·행정용어(행안부), 은행·보험·IT 등 각종 약관(공정위·금감위), 판결문(법무부), 문화재 안내문(문화재청), 식·약품설명서(식약청), 법령·조례(행안부·법제처·지자체) 등 국가 기관의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접근과 노력이 요청된다.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된 언어 상담을 지원하는 ‘종합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립국어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나다 전화(771-9909)”를 확대·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 한글 보급 확대 및 접근성 강화

국내외에 한글 보급을 확대하고 한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 보급기관을 통합·확대하고 U-세종학당 구축 등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로 이원화된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합하여 표준화되고 통일성 있는 국가 시험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1) 한글 보급기관 통합 및 브랜드화

외국인의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글 보급기관을 통합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 한글 보급기관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으로 통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교육과정 및 교재의 표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처럼 해외 한글 보급기관을 통합·운영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울러 수요자 중심으로 학습수요 급증 지역에 세종학당을 신속하게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계획

○ 제1단계: 2007년~2011년, 아시아 권역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동남아시아/몽골	5	5	5	5	5	25
중국	10	10	10	15	15	60
서남아시아	3	3	3	3	3	18
계	18개교	18개교	18개교	23개교	23개교	100개교

○ 제2단계: 2012년~2016년,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권역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중동아프리카	10	10	10	10	10	50
북미, 유럽, 중남미	10	10	10	10	10	50
계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100개교

한글 보급은 각 지역별 상황과 수요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등 한글 확산지역은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아세안, 중앙아시아 등 신흥지역은 세종학당을 우선 설치하여 수요를 충족시키며, 중동이나 서남아시아 등 한글 보급의 잠재지역은 공관 중심의 한국어 학습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호주나 유럽처럼 한글 보급이 정제된 지역의 경우 지역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에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 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할 계획이다.

국내외 한글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을 목표로 ‘세종학당 본부’를 설치할 것이다. ‘세종학당 본부’를 통해 전 세계 세종학당에 대한 교원 및 표준 교재를 통합 지원하고 국가별로 현지거점을 확보하여 현지 보급기관 및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것이다.

민간 부문 및 국내 대학의 한글 보급 노력에 대해서도 교재 개발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U-세종학당 구축 운영

한글 교육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한글 보급기관·교원 등의 국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U-세종학당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중인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통합·연계하여 2010년까지 원격학습통합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교육콘텐츠와 교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2010~2011년까지 한글 보급기관 및 교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3) 한국어 능력시험 통합

현재 교육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합하여 단일한 기구와 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 한글 문화유산 계승·발전

한글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글문화관’ 건립 추진을 중심으로 한글의 문화적·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가 국제사회의 주요 언어로 사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 한글문화관 건립

한글문화관은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등을 전시·보존·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안으로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높이고, 밖으로는 한글에 대한 인식을 높여 우리말과 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이다.

2009~2012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09년에는 서울시내 또는 경기도 인근 중에 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부지를 확정하고, 공간 계획 및 콘텐츠 연구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여기에는 전시관, 체험관, 교육연수관, 한글 상징 조형물 등의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대왕의 과학·예술·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적을 재조명하고 애민·창의·실용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가칭)‘세종공원’ 조성 사업도 검토 중이다.

〈 한글문화관 설립 계획(안) 〉

- 사업기간 : 2009~2012년
- 사업규모 : 연면적 16,000㎡ 규모로 조성
 - 주요시설 : 전시관, 체험관, 교육연수관, 한글 상징 조형물 등
- 소요예산 : 352억원
 - ※ 2009년 대상부지 확정, 공간계획 및 콘텐츠 연구조사(2억원)
 - 서울시내 또는 경기도 인근중 접근성, 상징성, 실용성 고려 부지결정

2) 문화적·산업적 활용 증진

한글을 디자인 등 문화·산업 등의 소재로 활용하여 한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디자인·공예·한글전화번호 등 한글 글꼴, 한글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글의 디자인적·산업적 활용 가치를 확장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한글을 활용한 공연, 음악 등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및 수출상품 등에 한글이름, 한글로고 등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 한글의 국제화 지원

한국어가 국제사회의 주요언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문화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명 박물관·미술관·관광지 등에 한국어로 된 안내서·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작 지원한다거나, UN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 주요 국제회의에 한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소수언어 보호 및 다양성 보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어의 위상 강화를 모색한다. 유네스코와 “언어 다양성 지원 기금신탁(가칭)” 협정을 추진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2007년 발효)’에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보고되어 있는 7,000여 개의 언어 중 1/4 정도만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100년 이내에 현존하는 언어의 1/2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소수언어 보호 및 다양성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한글 및 한국어의 보호와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한글날(10월 9일) 행사를 국제규모로 개최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자리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경축식과 함께 세계 한국어교원 대회, 문자축제 등의 행사를 함께 개최하고 중앙 부처 중심의 기념 행사를 지자체와 재외공관 등에서 한글날 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한글날 기념 축제의 지방화, 세계화를 시도한다.

4. 추진 계획

세종사업의 사업 총괄은 문화부가 추진하되 국가경쟁력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과제마다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

〈표 3-30〉 세부 추진 과제와 협조 부처(안)

과제명	세 부 과 제	협 조 부 처
1. 한글 표기의 국제적 보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규범 정비 - 로마자표기법 - 외래어표기법 - 표준어규정 등 	외교부, 행안부, 국토부, 교과부 등
	○ 전문용어 표준화	전 부처
	○ 언어정보화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2. 쉬운 한글 쓰기로 의사 소통 증진	○ 쉬운 한글 사전 편찬	기재부
	○ 공공언어 쉽게 쓰기	전 부처
3. 한글 보급 확대 및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보급기관 통합 - 세종학당 명칭 통합 - 세종학당 본부 설치 - 세종학당 확대 설립 	기재부, 외교부, 교과부, 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
	○ U-세종학당 구축	기재부, 외교부, 교과부, 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
	○ 한국어능력시험 통합	교과부, 노동부 (주관부처)
4. 한글문화유산 계승·발전	○ 한글문화관 건립	기재부
	○ 한글의 문화적·산업적 활용 증진	기재부
	○ 한국어의 국제화 지원	외교부, 기재부

제6절 국어책임관 활동

1. 개요

가. 국어책임관의 역할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
- 공공 기관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추진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및 시행

나. 국어책임관의 업무

각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국어책임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 쉽고 정확한 국어 사용 장려
 -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 사용의 장려
 - 공문서 바로 쓰기(참고 자료 보급 및 공무원 교육)
 - 쉬운 법령문 만들기(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채용)
 - 행정 용어 순화(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 연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구성)
- 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국어 관련 자체 교육(전문가 초청 강연 유치 등)
 -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수강 지원(연간 2,000여 명 수강)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유치(국립국어원이나 지역 국어문화원에 신청)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환경 개선 시책
 - 언어 경관 조성 사업(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달기, 유흥업소 등 상호 표기 순화 정비)
 - 지역민 대상 한글 홍보 및 한글 단체 활동 지원 사업
 - 사업소, 기관 설치, 추진 사업에 우리말 상호 및 명칭 사용하기
 - 한글날 기념행사, 우리말 사용 겨루기 대회
 -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사업
 - 지역 언어 실태 조사 및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사업
-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를 위한 활동
 - 국어책임관 회의 참석 및 업무 협조
 - 국어책임관 업무 관련 정보 교류, 국어 관련 전문 기관 및 인력 활용



[그림 3-30] 국어책임관 회의

다. 국어책임관 지정 경위 및 현황

국어책임관의 간략한 지정 경위는 아래와 같다.

-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2006. 4.)
 - 54개 중앙 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160개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 중앙 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재지정 완료(2008. 9.)
 - 정부 조직 개편(2008. 2. 29. ‘정부 조직법’ 전부 개정, 법률 제88542호)에 따라 44개 중앙 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재지정

위의 경위로 지정된 국어책임관 현황은 2008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31〉 국어책임관 현황(2008. 12월 현재)

	총 기관	지정 기관	비고
중앙 행정기관	48	44	특임장관 및 사무처가 없거나 최근 폐지된 자문회의 3곳 등 4곳 미지정
소속 기관	442	160	정원이 적거나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소속 기관 총 282곳 미지정
광역 지방자치단체	16	16	
기초 지방자치단체	225	225	

이 가운데 44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32〉 중앙 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현황

번호	기관	역할	직위
1	감사원	국어책임관	홍보관리관
2	검찰청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공보관)
3	경찰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4	공정거래위원회	국어책임관	정책홍보담당관
5	관세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6	교육과학기술부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7	국가보훈처	국어책임관	대변인
8	국가정보원	국어책임관	홍보관리관
9	국무총리실	국어책임관	공보비서관

번호	기관	역할	직위
10	국민권익위원회	국어책임관	대변인
11	국방부	국어책임관	대변인
12	국세청	국어책임관	납세홍보과장
13	국토해양부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14	금융위원회	국어책임관	정책홍보팀장
15	기상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16	기획재정부	국어책임관	기획조정실 미디어기획팀장
17	노동부	국어책임관	홍보기획팀장
18	농림수산식품부	국어책임관	인사과장
19	농촌진흥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20	대통령실	국어책임관	연설기록비서관
21	문화재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2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책임관	대변인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어책임관	대변인
24	방송통신위원회	국어책임관	대변인
25	방위사업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26	법무부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27	법제처	국어책임관	대변인
28	병무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29	보건복지가족부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30	산림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31	소방방재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32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33	여성부	국어책임관	대변인
34	외교통상부	국어책임관	정책홍보담당관
35	조달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36	중소기업청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37	지식경제부	국어책임관	홍보기획담당관
38	통계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39	통일부	국어책임관	정책협력과장

번호	기관	역할	직위
40	특허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41	해양경찰청	국어책임관	대변인(홍보팀장)
42	행정안전부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어책임관	대변인
44	환경부	국어책임관	대변인

〈표 3-33〉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현황

번호	기관	역할	직위
1	서울특별시청	국어책임관	홍보담당관
2	부산광역시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3	대구광역시청	국어책임관	정책홍보관
4	인천광역시청	국어책임관	공보관
5	광주광역시청	국어책임관	문화수도정책관
6	대전광역시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7	울산광역시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8	경기도청	국어책임관	문화정책과장
9	강원도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10	충청북도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11	충청남도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12	전라북도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13	전라남도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14	경상북도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15	경상남도청	국어책임관	문화예술과장
16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어책임관	문화정책과장

라. 국어책임관 운영 현황

2006년 4월 이후 44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가 추진한 주요 실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회의 2회 개최(18개 중앙 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대상, 2006. 5. 9., 2007. 7. 11.)
 - 광역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3회 개최(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대상, 2006. 9. 1., 2007. 9. 6., 2008. 11. 28.)
- 국어책임관 안내서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2회 발간(2006. 5., 2008. 11.)
-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www.korean.go.kr/klofficer) 개설(2006. 7. 28.)
- 공공 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 조사 2회 실시(2006. 12., 2007. 12.)
- 우수 활동 국어책임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정보통신부·외교통상부, 서울특별시·경상남도, 2007. 5.)

2. 주요 실적

2006년 이후 44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이 직접 수행한 주요 사업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06년 주요 실적(2005년 사업 내용)

- 용어집 발간
 -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용어집”(환경부)
 - “심결문 용어 순화 편람”(특허청)
 - “편하고 바르게 쓰는 세정용어 길잡이”(국세청)
 - “어려운 행정용어 250개를 골라 쉬운 우리말로 바꾼 소책자” (서울시 중랑구청)
- 한글 소프트웨어 활용
 - 한글 맞춤법 및 문법 교정 소프트웨어 도입·활용(문화관광부)
 - 2005년 8월부터 관내 컴퓨터에 「바른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 설치, 어려운 산림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기 운동 전개(산림청)
- 기타 고객 위주 언어표현 개선

- 과거 보안 중심의 면회소 명칭을 방문객 중심으로 변경(대통령경호실)
예) “22 면회실, 55 면회실” ⇒ “복악 면회실, 분수대 면회실” 등
- 규정이 애매모호하거나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법안 35건에 대해 국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수정(국무조정실)
- 신입 직원들이 현수막이나 문서를 쉬운 말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서울시 강남구청)

나. 2007년 주요 실적(2006년 사업 내용)

-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글 다듬기(감사원)
 - 「감사 문장 바로 쓰기 편람」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처분 요구서의 품질 향상(148개 감사 및 심사 사항 처리)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법제처)
 - 법령의 한글화는 물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문에 대한 정비 기준 마련
- KTV 방송 용어 순화 자료집 발간(국정홍보처)
 - 직원들의 올바른 방송 언어 사용을 위한 실무자 지침서로 제작 배포
- 국립국어원과 업무 협정 체결(교육인적자원부)
 -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국립국어원과 업무 협정을 체결하여 교과서 표기 방법을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로 단일화
- 재외동포 한국어 보급 사업(외교통상부)
 -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제반 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급증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 정체성 고양 차원의 다양한 한국어 알리기 사업을 추진
 - 한국어 강좌(teenkorean.net) 운영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강좌 및 게임, 동화, 퀴즈, 드라마 등 다양한 내용 제공
-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국어 교육 과정 개설(정보통신부)
 -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사이버 교육 개설 운영(960명 수료)
 - 정보 통신 윤리(통신 언어 예절 등) 교재 개발(초등용(1-2, 3-4, 5-6학년 및 지도교사용) 교재 4종, 유아용(유치원 등의 유아지도교사용) 교재 1종 개발
 - 공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을 전개, 「고

쳐 쓰면 좋은 사례 모음집」 발간

-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사업(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21개 센터에서 수준별, 출신국별로 교육을 진행하여 2만 명 수료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3만 부 제작·보급
- 「한글사랑 서울사랑」 누리집(홈페이지) 개설(서울시청)
 - 어문 규정을 예문과 해설 형식을 빌어 쉽게 표현, 시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바른 사용 유도
 - 공문서 바로 쓰기, 행정 용어 순화어 목록 등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등을 수록
- 국립국어원과 업무협정 체결 및 사업추진(서울시 강서구청)
 - 국립국어원이 소재한 강서구에서 국어원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언어 경관 정비 시범 지구 선정)
 - 예) 언어 청정 마을 조성 사업, 음식점 등 개업 시 ‘우리말 상호자문’,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상호 표기 순화 정비(저속표현) 등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강서구 주민·공무원 대상 교육 지원
 - 우리말 학습 동아리 운영(어려운 행정 용어 순화, 올바른 공문서 작성 등 업무와 관련된 우리말 쓰기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추구)
 - 정기모임을 통하여 관심주제를 정하여 공부한 후, 좋은 내용은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체 직원들과 공유하는 방식
-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찾기 개최(부산시청)
 - 각종 상표 및 상품 등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상표 선정 한글날 기념식에서 발표(안다미로, 하늘채, 아침마루, 산들무, 씨실과 낱실)
- 울산 우리말 겨루기 대회 개최(울산시청)
 - 울산 출신의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을 기리는 문화 행사 개최
 - 우리말의 어원, 의미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여 청소년층의 흥미 유발
- 지역어 보존 사업 추진(제주자치도청)
 - 제주어 사전 발간,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어 가요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마련
- 기초지자체 소속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경상남도청)

- 시·군·구 국어책임관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법, 로마자표 기법, 홈페이지 정비 방안 등 국어능력향상 정책에 관하여 회의(2006. 9. 7, 통영 마리나리조트)
- 소속 공무원 대상 국어 교육 실시(광주시청, 경상남도청 등)
 -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초청 강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공무원 교육, 맞춤법 및 행정 순화 용어 책자 발간 보급,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교육 참여 등

다. 2008년 주요 실적(2007년 사업 내용, 국어책임관 활동 최우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시청 사례만 소개함.)

- 행정 용어, 전문 용어 순화
 - 2007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및 규칙 개정(39건, 법무담당관실)
-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 사용 환경 개선
 - 2007. 1. 2. ~ 12. 31. 한글을 잘 모르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 교실(연 4회, 3개월 단위, 2개 반) 운영(총 8개 반 240명 수강, 여성문화회관)
 - 2007. 1. 2. ~ 12. 31.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3개월 과정) 운영(총 3개 반 80명 수강, 여성문화회관)
 - 2007. 12. 17. 한국어 교실 수강자를 대상으로 우리말 잘하기 대회 개최(한국 생활 이야기, 편지 읽기, 시 낭송 등)
- 관내 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 독려 및 지원
 -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및 한글(가나다) 교실 운영(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부산진구)
 - 찾아가는 문해 연수 실시(연제구)
 - 주민자치센터에 결혼 이주 여성 및 노인을 대상의 한글 교실 개설(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부산진구)
 - 공문서 작성 시 범하기 쉬운 오류의 사례별 조사 및 바람직한 사용법 권장(남구)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치 법규 정비(금정구)
 - 2007. 8. ~ 12. 구민 독서 경진 대회 개최(177편 접수, 14편 시상)(북구)

라. 국어책임관 활동 실적 평가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매년 말). 이렇게 보고된 국어책임관의 활동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는 매년 초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는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매년 초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실적을 평가한 바 있는데 2007년의 활동 실적과 2007년의 공공 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4월 18일 실시했던 국어책임관 활동 실적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평가 기준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국어책임관 활동 실적과 기 실시한 공공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
- 기관별 실적을 평가하여 1~5점의 점수를 부여하되 미제출 기관은 0점으로 처리

○ 평가 결과

- 최우수 중앙 행정기관: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등이 모두 13점으로 공동 1위이지만 누리집 조사 결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장 우수하므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최우수 중앙 행정기관으로 선정)
-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청



제4장 향후 추진 계획

제1절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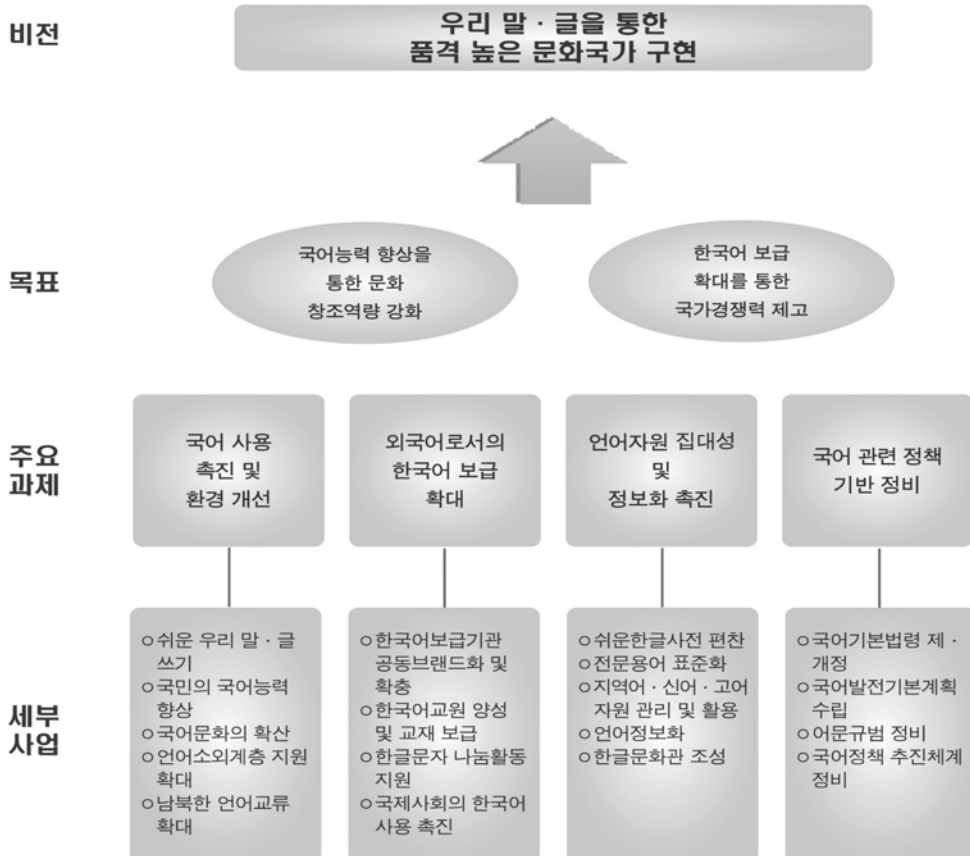
제2절 향후 추진 과제



4 향후 추진 계획

제1절

비전과 목표



[그림 4-1] 비전과 목표

국가의 국어 정책 비전은 우리 말·글을 통한 품격 높은 문화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능력 향상을 통한 문화 창조역량 강화와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2가지 목표로 4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제1과제는 국어 사용 촉진 및 환경 개선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쉬운 우리 말·글 쓰기,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문화의 확산, 언어소외계층 지원 확대, 남북한 언어교류 확대를 세부 사업으로 수립하였다. 제2과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보급 및 확대이다. 한국어보급기관 공동브랜드화 및 확충, 한국어교원 양성 및 교재 보급, 한글문자 나눔 활동 지원, 국제사회의 한국어 사용 촉진을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제3과제는 언어자원 집대성 및 정보화 촉진이다. 이를 위해 쉬운 한글사전 편찬, 전문용어 표준화, 지역어·신어·고어자원 관리 및 활용 방안 수립, 언어정보화, 한글문화관 조성 등을 세부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4과제는 국어 관련 정책 기반 정비로, 이를 위해 국어기본법령 제·개정,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어문규범 정비, 국어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2절 향후 추진 과제

1. 국어 사용 촉진 및 환경 개선

가. 쉬운 우리 말·글 쓰기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정책 전달력을 높이고 의사소통 활성화

- ‘공공언어 쉽게 쓰기’ 중장기계획 수립, 공문서와 약품·식품 설명서 등 쉽게 쓰기 사업 추진
 - * 공문서·행정용어(행안부), 은행·보험·IT 관련 각종 약관(공정위·금감위), 판결문(법무부), 문화재 안내문(문화재청), 식·약품 설명서(식약청), 법령·조례(법제처·지자체·행안부)
- 공공기관·국민들의 언어 상담 지원을 위한 ‘한글상담 콜센터’ 설치(국립국어원 가나다

전화 확대 및 기능 개편 검토)

2) 사회적 의사소통 활성화 대책 마련

- 인터넷·방송언어 순화 대책 마련
 - 방송·통신언어 실태조사 및 언론사 연계 순화활동 전개
 - 통신언어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홍보책자 등 제작
 - 인터넷 윤리교육에 “바른말 쓰기” 관련 내용 추가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1) 일반인 및 특정 직업군 대상 국어교육 강화

-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교실 확대
 - * 교정전문가 양성과정, 옥외광고업자 과정, 군인 과정(장교, 하사관 대상), 주한 미8군 한 국군지위단 과정, 국어책임관 과정, 국어교사 직무연수 등
- 온라인 국어교육 강좌 개설(U-세종학당 통해 원격 교육 추진)
 - * 중장기적으로는 국립국어원 내 ‘국어연수원’ 설치 검토
- 국어능력시험 시험 활성화
 - 시험의 수준 향상을 위한 말하기·쓰기를 포함한 표준 문항 개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 전반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 중기적으로 공무원시험, 입사 시험 등에 채택, 가산점 유도
- 국어 능력·의식·사용 등 실태조사
 - 정기조사 계획 수립,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 등과 연계 추진

2) 국어생활 종합전화상담실 설치

- 국어 관련 종합 상담 및 안내를 통해 국민의 국어생활 편의 증진
 - 국립국어원 ‘가나다 전화’ 확대 개편(3회선→20회선), 전문상담요원 양성
- 상담 내용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집 발간 및 배포

3) 방송·인터넷 언어 품격 향상

- 방송·통신언어 실태조사 및 언론사 연계 순화 활동 전개

- 인터넷 언어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홍보책자 등 제작
- 방송 심의용 외래어·외국어 목록 제작·보급(방송통신위원회 공동추진)
- 방송·포털사이트 관계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다. 국어문화 확산

1) 한글을 디자인의 소재로 활용하여 한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

- 한글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글꼴, 문화상품(패션·디자인·공예 등) 등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글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확장
- 한글을 활용한 공연, 음악 등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 수출기업 및 수출상품 등에 한글이름, 한글로고 등 개발 지원

2) 한글날 및 한글주간 행사 진행

라. 언어소외계층 지원 확대

1) 언어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표준화 및 대중화 지원

- 표준 한국수화 교재 및 동영상 웹사전 개발, EBS 학습프로그램 제작
- 온라인 통합 점자 학습사이트 운영 지원

마. 남북한 언어교류 확대

1) 남북언어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언어 동질성 회복, 남북 언어 통합기반 조성

- 남북 공동 「겨레말큰사전」 편찬 지원('05-'13년, 약 300억원)
 -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구성, 약 30만 단어의 사전을 남북이 공동 편찬
- 남북한 언어 공동 국제학술대회 지속적 개최
 - 남·북한, 중국 등 학자들의 공동 연구 및 인적·물적 교류 촉진
 - 민족어·지역어 공동 연구, 이질화 실태 공동 조사, 어문규범 통합 방안 연구, 전문용어·학술용어 통합 표준안 마련, 한민족언어공동협의회 구성 등 당면 주제에 집중

- 한민족언어공동협의회 구성·운영
 - 이질화 실태 공동조사, 통합 어문규범안,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 통합 표준화 사업 추진

2. 외국어로서 한국어 보급 확대

가. 한국어보급기관 공동브랜드화 및 확충

- 1)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한국어 보급기관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으로 통합(2009~11년), 브랜드 홍보 강화
- 2) 국내에 ‘세종학당 본부’를 설치, 국내외 한글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지원(2010~11년)
 - 전 세계 세종학당에 대한 교원 및 표준 교재 통합 지원
 - 국가별로 현지거점을 통해 현지 보급기관 및 교사 네트워크 지원
- 3) (U-세종학당) 온라인 통합학습사이트 U-세종학당 구축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U-세종학당 구축('09~'11)
 - 기관별로 운영중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합·연계하여 원격학습체계 구축, 교육콘텐츠·교재 등 통합 제공, 한글 보급기관 및 교원 지원
 - * '09.10.9. 한글날 행사 시 VIP 시연 예정
- 4) 외국인의 학습수요가 급증하는 신흥지역 중심으로 세종학당 신설
 - 한국어보급기관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 한국어보급기관 실태조사 : 국내 131개, 해외 156개국 2,187개
 - 한국어보급 수요조사 : 학습자 3,000명·운영자 2,000명·교사 2,000명
 - 동남아시아 지역 잠재수요조사 : 4개국 1,200명
 - 세종학당 확대 신설 및 명칭 전환 지원
 - 신설 5개, 명칭 전환 10개 내외
 - 재외공관(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수요조사 추진
 - *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국(하북경무대학), 영국(SOAS), 일본(오비린대학), 호주(뉴사우

스웨일즈 대학),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세종학당 신설 기 요청

-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확대 신설(현재 19개 → 2012년 60개) 추진

나. 한국어교원 양성 및 교재 등 보급

1) 한국어교원 양성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현지 연수 및 시험 확대, 한국어교원 자질 향상 지원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2) 한국어교재 개발 보급

-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평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 국제표준 유도

3) 전화한국어서비스 추진

- 다문화가정 대상 전화한국어 교육을 통해 이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 및 사회 통합 지원
 - 전화한국어시스템 등 구축
 - * U-세종학당 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
 - 전화한국어서비스 운영 지원
 -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화교육과 오프라인 집합교육 병행
 - 지방문화원, 국어문화원 등을 통해 학습자 모집
 - 지방문화원 등의 한국어교사, 보건복지부의 한국어 방문지도를 전화 한국어선생님으로 지정, 교육 후 서비스 실시

다. 한글문자 나눔 활동 지원

1) '한글나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무문자 민족에 대한 한글 보급사업 활동가, 언어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민간의 한글 보급 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체계화할 수 있도록 자문
 - * 해당 국가의 견제 등을 감안, 정부에서는 민간의 한글 보급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 국제사회의 소멸 위기의 언어 보존 및 언어 다양성 증진 활동과 연계 추진

2) 무문자 민족 현지인 지도자 초청하여, 한글 교육 및 문화체험 추진

* 문화동반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세계문자축제 및 국제문자학술대회 개최, 한글 뿐 아니라 전 세계 문자를 소개하고 체험·연구하는 장 마련

4) 언어다양성 보존활용센터 구축

- 국립국어원내 소수언어 연구 지원, 세계 언어·문자 DB 및 지도 제작 등을 제작하는 센터 설립
- 문자가 없는 언어를 DB로 구축할 때 한글로 기록함으로써 한글 문자 보급사업 간접 지원
 - * 유네스코와 (가칭) “언어 다양성 지원 기금신탁” 협정 등을 체결하고 동 센터를 유네스코 지정센터로 격상하는 방안 검토

라. 국제사회의 한국어 사용 촉진

1) 한국어가 국제사회의 주요언어로 사용되도록 외교적·문화적 역량 집중

- 해외 유명 박물관·미술관, 관광지 등에 한국어 안내서·설명서 제작 지원
- UN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한국어서비스 제공, 주요 국제회의 등에서 한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현지 초중등학교 및 대학입시에서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 대학 등의 한국어학과 설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적극 지원

3. 언어자원 집대성 및 정보화 촉진

가. 쉬운 한글사전 편찬

1)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집대성, 수요자 기반의 개방형 새한글 대지식사전 편찬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새한글사전」 편찬

- 표준국어대사전을 확대 개편(2012년까지 현행 50만 어휘→100만)
- 알기 쉬운 설명과 풍부한 예문, 신어, 멀티미디어 정보를 함께 제공
- 웹 2.0 기반의 위키피디아형 사전 구축을 통해 일반인 참여 유도
- 외국인·재외동포 등의 한글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용 다국어 사전 편찬(베트남어-한국어, 태국어-한국어 등 20여개 언어)
 - * 현지 언어학자 및 대학 등의 참여를 통해 학술교류 발전, 범세계적 관심 유도
- 신어·지역어 등 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사전 편찬 유도
 - 지자체의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등에 지역어 관리체계 확립
 - 언론사, 인터넷 포털업체 등과의 연계로 신어 관리방안 강구

나. 전문용어 표준화

1) 전문·학술용어 표준화를 통한 우리말로 된 지식체계 확립

- 범정부 전문용어 표준화계획 수립, 중앙부처 국어책임관을 통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활성화 유도
 - * 지정근거 : 국어기본법 제10조
 - 지정권자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지자체의 장(지정 시 문화부장관에게 통보)
 - 주요업무 : 해당 기관의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
 - 지정현황 : 459개 기관 지정(중앙행정기관 54개, 소속기관 163개, 지자체 242개)
- 국제 산업 표준 규격(ISO/TC 37)에 맞는 전문용어 표준화 및 규격화를 통해 언어정보 자원의 보편화 및 글로벌화 유도

2) 「전문용어 표준화 위원회」 구성·운영

- *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 운영을 통해 확대 유도
-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예정
- 전문용어표준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준비

다. 지역어·신어(新語)·고어(古語) 관리 및 활용

- 지자체의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등을 통해 지역어 관리체계 확립
- 언론사, 인터넷 포털업체 등과 연계하여 신어(新語) 관리방안 강구
- 언어자원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사전 편찬

라. 언어정보화

1) 2단계 언어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 1단계 언어정보화 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150억원)’ 결과물 대국민 서비스 등 활용 방안 마련
- 변화된 언어 환경과 정보화 환경의 변화(웹 2.0)에 따른 고도의 언어 자원 구축과 응용 기술 개발 장기 계획 마련
- ‘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포럼’ 구성·운영('09.7~12)

2) 언어 표준화 정책

- 한자(코드) 표준화 추진
 - 국제 표준 문자코드 체계(ISO/IEC 10646)에 입각, 국내 비표준 한자(2만여 개) 코드 표준화 및 표준 폰트 제작 보급
- 특수언어 표준화 추진
 - 남북 수화·점자 표준화 방안 마련, 특수 언어 사전 편찬 검토

4. 국어 관련 정책기반 정비

가. 국어기본법령 제·개정

- 국어책임관 : 임명 절차, 임명대상, 임무 등 명확화
- 국어심의회 : 분과위원회 분류, 인원 등 개선
- 한국어교원 자격 : 자격부여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및 환불 규정 신설
- 국어능력검정시험 : 민간위탁 또는 인증제도 도입 검토

- 국어문화원 : 지정 절차, 지정 대상, 역할 및 기능 명확화

나.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 '정책평가단' 을 구성, 운영
- 국어발전기본계획 추진실적 지속 평가
 - 3대 중점과제(12개 사업), 10대 추진과제(39개 사업)
- 국회 제출용 보고서 작성
 - 국어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국어발전기본계획 등)' 및 그 시행결과를 2년마다 국회에 보고
 - 정책 현황, 추진실적 정리 및 평가
- 언어사용 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수정계획('10~11) 마련

다. 어문규범 정비

- 기존 어문규범에 대한 전면적 영향평가 시행
 - 2009년 로마자표기법, 2010년 외래어표기법, 2011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영향 평가 실시
- 국가 중심 규범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어문규범으로 전환

〈 로마자표기법 〉

- 국민의 여론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내외국인이 모두 읽고 쓰기 쉽도록 로마자표기법 정비
 - 어문규범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표기법 재정립 필요성 검토
 - 현행 표기법 개정시(2000.7월) 유보되었던 성씨에 대한 로마자 표기 표준안 마련, 영문이름 표기 시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 성씨 표기의 원칙을 정하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제시
 - 여권을 매개로 한 경제·사회적 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다수 민원 발생 소지 차단을 위해 기존 영문 성명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주요 역사인물 등의 경우 사용례를 확정·고시하는 방안 검토

〈 외래어표기법 〉

- 일반국민들의 언어생활 실태를 반영한 외래어표기법 재정립
 - 어문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외래어 표기법 재정립 검토
 - 아직 외래어표기법이 정립되지 않은 언어(아랍어, 힌두어, 중앙아시아어 등)에 대한 외래어표기법을 단계적으로 제정
 - 새로 들어오는 외국의 지명·인명 등에 대한 표기 표준화를 위한 심의·보급체계 정비

라. 국어 정책 추진체계 정비

1) 국어심의회 제도 개선

- 국어심의회 위원 전문성·대표성 강화
- 국어심의회 운영규정(장관훈령) 개정을 통해 운영방식 개선
 - 전문소위원회를 통한 심의기능 강화, 정기적 운영(분기별)
 - 정부언론외래어심의회 등을 심의회로 통합

2) 국어책임관 제도 내실화

- *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459명), 해당 기관의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
- 중앙부처 국어책임관을 통한 전문용어 표준화 추진
- 광역자치단체 국어책임관의 활동 내실화

3) 국어문화원 활성화

- 국어문화원 운영 현황 평가, 하반기 보조금 차등 지원 및 통폐합 검토
- 국어문화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비 및 특성화 유도



부록



1. 국어기본법
2. 국어기본법 시행령
3.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질문지)



부록

1

국어기본법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
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삭제 <2009.3.18>
5.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6 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선양과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통일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신체 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 7 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제 8 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실태조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국어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⑤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09.3.18>

②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한글날) ①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제 4 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개정 2008.3.28>)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문화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5장 보 칙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7367호, 2005.1.2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진흥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 3 조(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제 4 조(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제 5 조(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부터 제 5 조까지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8> 까지 생략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제9003호, 2008. 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9491호, 2009. 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타법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3 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 4 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연령·성·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5 조(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국어심의회의 회의)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제 7 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정책분과위원회
 -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제9조(간사 및 서기) ①국어심의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의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에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 삭제 <2008.10.20>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능력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출 것
 - 가.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
 - 나.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③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에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제18973호, 2005.7.27>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 조(국어심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 의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 생략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⑧ 부터 <37> 까지 생략

부 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 2008.10.20>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제13조제1항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이수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별표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제2항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별지 제1호서식] <2008. 2. 29>

제 호

한국어교원 자격증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자 격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1. 검정 종별

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자격기준 제 호 목

3. 수여 조건

[별지 제2호서식] <2008. 2. 29>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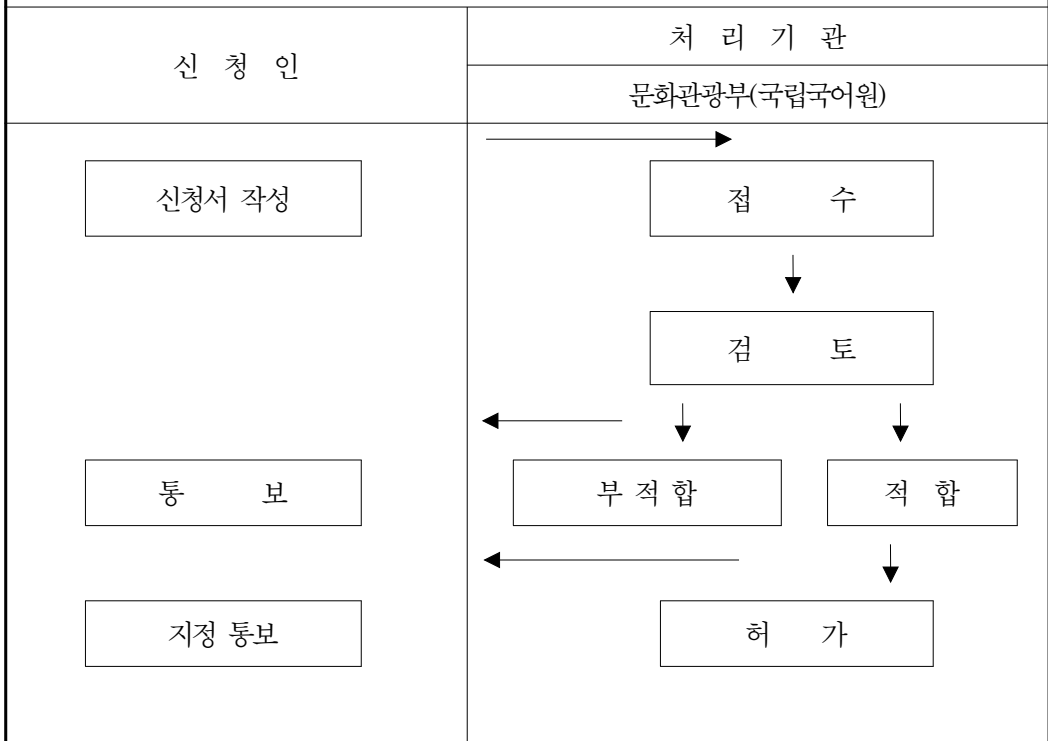
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단체명·기관명				
⑤소재지(전화번호)		(전화 :)		
⑥설립 목적		⑦설립 연도		
⑧지원 요망 사항 :				
<p>「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 뒤쪽 참조				

(뒤 쪽)

※ 구비서류

1.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질문지)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반하3동 827번지
전화 (02) 2669-9775,
팩스 (02) 2669-9727



110-0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Gallup 200816050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AL-5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면접원으로 일하는 ○○○입니다.
이번 저희 연구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의뢰를 받아 국민의 국어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어기본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조사로, 국민의 기초 문해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 결과는 통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알고 계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비썬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 역 :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지정번호 :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구(읍/면) _____동(리)
- 지역크기 : 01) 대도시 02) 중·소도시 03) 군
- 성 별 : 01) 남자 02) 여자

2008년 8월 ~ 10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무익
담당연구원 정건지
실시연구원 최은희 (서울 ● 02-3702-2675)
박지연 (부산 ● 051-816-5332)
김영미 (대구 ● 053-255-4605)
김형일 (광주 ● 062-222-4997)
이현주 (대전 ● 042-224-9500)
윤익순 (전주 ● 063-243-9207)
지은경 (강원 ● 033-253-0332)
김수미 (제주 ● 064-743-4410)

SQ1) 실례지만 ○○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80세 이상 민점 중단**

SQ2) [단어카드 제시] ○○님께서는 다음의 단어들을 어려움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까?
1. 어려움 없이 읽는다 → **문해력 질문지 및 2쪽 국어생활 관련 설문 실시**
2.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 읽는다 →
3.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 읽지 못한다 → **3쪽 한글교육 관련 설문 실시**
4. 장애 등의 이유로 읽지 못한다 → **민점중단**

SQ3) 먼저 ○○님 성함과 집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_____ 주소 _____
1. 성함과 주소를 어려움 없이 적어 주심 → **문해력 질문지 및 2쪽 국어생활 관련 설문 실시**
2.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 적어 주심 →
3.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적어 주심 → **2쪽 한글교육 관련 설문 실시**
4. 장애 등의 이유로 쓰지 못한다 → **민점중단**

국어생활 관련 설문지

- 문1) ¹⁷ 월 평균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1. 전혀 읽지 않음 2. 1권 3. 2권~3권 4. 4~5권 5. 6권 이상
- 문2) ¹⁸ 평균적으로 하루에 (종이)신문은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1. 전혀 읽지 않음 2. 30분 이하 3. 30분~1시간 4. 1시간~2시간 5. 2시간 이상
- 문3) ¹⁹ 평균적으로 하루에 인터넷은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1. 전혀 하지 않음 2. 30분 이하 3. 30분~1시간 4. 1시간~2시간 5. 2시간 이상
- 문4) ²⁰ 평균적으로 하루에 TV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1. 전혀 보지 않음 2. 30분 이하 3. 30분~1시간 4. 1시간~2시간 5. 2시간 이상
- 문5) ²¹ 신문이나 TV 등을 보다가 '독직(演職), 징구(徵求)와 같은 어려운 한자어나 '레토릭, 컴파일러'와 같은 낯선 외국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십니까?(종이사전 및 전자사전, 인터넷 사전 등 모두 포함)
 1. 사전을 찾는다 → **문5-1로 갈 것** 2. 사전을 찾지 않는다 → **문5-2로 갈 것**
- 문5-1) ²² 사전을 찾아보신다면 다음 중 어떤 사전을 찾아보십니까?
 1. 국어사전 2. 인터넷 사전 3. 전자사전
- 문5-2) ²²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신다면 어려운 한자어나 낯선 외국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1. 앞뒤 문장을 통해서 뜻을 짐작한다 2.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다 3. 모르는 대로 지나친다
- 문6) ^{24,30} 귀하의 덕에는 어떤 종류의 사전이 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1. 국어사전(종이) 2. 영어사전(종이)
 3. 전자사전 4. 한자옥편
 5.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사전 6. 사전이 전혀 없음
 7. 있는지 있는지 모르겠다
- 문7) ³¹ 신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몰라서 곤란을 느끼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모두 선택 후 가장과 그다음 기록** 가장 ³¹ 그다음 ³²
- ³³ 1. 전문 용어(예: 아웃소싱, 허브사이트, 연봉(延拂), 추심(推尋) 등)
³⁴ 2. 외래어, 외국어(예: 달레마, 디태일, 페미니즘, 라이프 스타일 등)
³⁵ 3. 어려운 한자어(예: 절합, 지박, 양양, 발연 등)
³⁶ 4. 유행어나 신조어 (예: 사방, 지못미, 쉼일, 혼단 등)
³⁷ 5. 기타(적을 것: _____) ³¹⁻⁴⁰

3쪽 응답자 특성 DQ1)으로 갈 것

한글교육 관련 설문지

- 문1) ⁴¹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교를 못 다녔다 2. 학교를 다녔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 3. 기타(적을 것: _____) ⁴¹⁻⁴⁴
- 문2) ⁴⁵⁻⁵² 평소에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서 겪은 불편한 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1. 편지를 쓸 수 없다 2. 신문을 읽을 수 없다
 3. 은행이나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4. 사용설명서나 처방전을 몰라 곤란했다
 5. 일지리를 구하기 어렵다 6. 반상회 등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꺼려진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8. 기타(적을 것: _____) ⁵³⁻⁵⁵
- 문4) ⁵⁶ 앞으로 가까운 평생교육 기관(문화교육기관, 주민 센터, 복지관 등)에서 한글을 가르쳐 준다면 배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 문5) ^{57,59}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정부가 해 줬으면 하는 일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특성

DQ1) 당신의 모어는 무엇입니까?

1. 한국어 2. 중국어 3. 일본어 4. 영어 5. 베트남어
 6. 러시아어 7. 인도네시아어 8. 말레이어 9. 기타(적을 것: _____)

DQ2)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무학 2. 초중퇴 3. 초졸 4. 중중퇴 5. 중졸 6. 고중퇴
 7. 고졸 8. 전문대졸 9. 대학 중퇴 10. 대학 재학 11. 대졸 12. 대학원 졸업 이상

DQ2-1) (문해자이면서 무학인 경우만 응답)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다면 한글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1. 가족(부모님이나 형제 등)을 통해 배웠다 2. 종교기관 등을 통해 배웠다
 3. 야학을 다니면서 배웠다 4. 독학으로 배웠다
 5. 기타(적을 것 : _____)

DQ3) [직업카드 제시]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당 직업 분류 번호 2자리를 기록해 주십시오.

--	--

DQ4) 본인의 한 달 총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 100만원 이하 2. 101~200만원 3. 201~250만원 4. 251~350만원
 5. 351~550만원 6. 551~750만원 7. 750만원~1000만원 8. 1000만원 이상

♣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면접원 기록카드

전 화 번 호	1. 일반전화 () - () - () <small>지역번호 국 번호</small>	면접장소 49-79	1. 방 2. 응접실 또는 미루 3. 노인정
	2. 휴대 폰 () - () - ()		4. 기타 (적을 것: _____)
면 접 시 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 78.72분 73.74부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 75.7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77.72 까지
문해력 질문지 풀이 소요시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분 77.20		
면접원 성명	ID		81-85

에 디 터	실사 연구원
46-27	22-90

문해력 질문 응답 기록지

☞ 문해력 질문지를 보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보기의 번호를 찾아 V 또는 O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원분은** 해당 문항번호에 답을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번호	보기 항목				
1	①	②	③	④	26
2	①	②	③	④	7
3	①	②	③	④	8
4	①	②	③	④	9
5	①	②	③	④	10
6	①	②	③	④	11
7	①	②	③	④	12
8	①	②	③	④	13
9	①	②	③	④	14
10	①	②	③	④	15
11	①	②	③	④	16
12	①	②	③	④	17
13	①	②	③	④	18
14	①	②	③	④	19
15	①	②	③	④	20
16	①	②	③	④	21
17	①	②	③	④	22
18	①	②	③	④	23
19	①	②	③	④	24
20	①	②	③	④	25
21	①	②	③	④	26
22	①	②	③	④	27
23	①	②	③	④	28
24	①	②	③	④	29
25	①	②	③	④	30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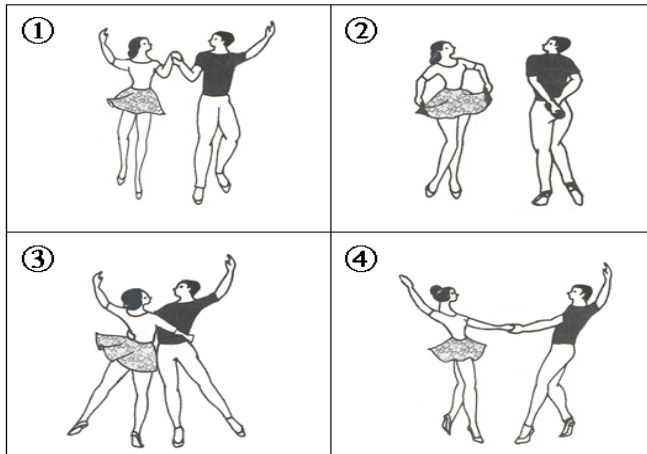
2008년

문해력 조사 질문지

Callup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춤 동작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오른쪽 옆구리를 서로 붙이고 오른팔로 상대의 허리를 감싼다. 왼팔은 머리 위로 올린다.



문 2) 다음 부동산 정보를 보고 판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정보 시세 정보 매매 정보 아파트 소식

● 면적 정보

면적	112.39㎡
전용 면적	95.64㎡
방/욕실	3개 / 2개
현관 구조	계단식

과거시세 (유료)  실거래가 보기 

● 시세 정보

■ 매매가 9,000 - 11,000만 원


(단위: 만 원)

월	매매가	전세가
12월	9500	5750
1월	9500	5750
2월	9500	5750
3월	10000	5750
4월	10000	5750
5월	10000	5750
6월	10000	5750

백두아파트 112㎡ 매매가 및 전세가 추이

- ① 방이 세 개, 욕실이 두 개인 아파트이다.
- ② 시세 정보는 약 1개월 간격으로 갱신된다.
- ③ 3월에서 6월까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모두 변화가 없다.
- ④ 2월과 3월 사이에 매매 가격이 1억 원 정도 상승했다.

문 3) 다음 글을 읽고 난 뒤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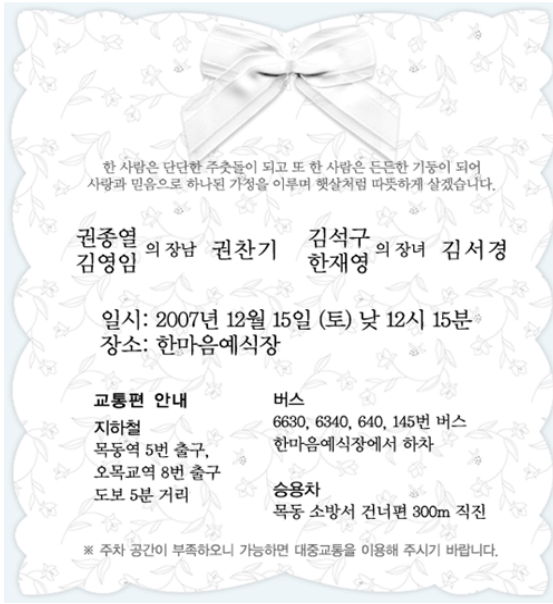
“딩동, 향기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휴대전화로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일본의 한 이동통신사는 최근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달 말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메뉴 중에서 향을 골라 전송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향이 분사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 발생 장치에는 16가지 종류의 기본 향이 들어 있어 마치 프린터 잉크가 조합돼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조합한 대로 아주 많은 향을 만들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① 전달 가능한 향기가 겨우 16가지밖에 안 됩니까?
- ② 인공적인 향기가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요?
- ③ 전달 받은 향기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 ④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문 4) 다음 청첩장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권찬기 씨와 김서경 씨가 결혼한다.
- ② 결혼식은 12월 15일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다.
- ③ 한마음예식장은 주차 공간이 충분하므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④ 6630번 버스를 타면 한마음예식장에 갈 수 있다.

문 5) 다음 가정통신문을 읽고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통신 08-12호

황사를 조심하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황사는 예년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황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귀가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2.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 자제
3.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4. 실내외 청소로 황사를 신속하게 제거
5. 실외로 통하는 창문 및 출입문을 닫아 외부 공기와 접촉 차단

2008. 3. 7.
○○초등학교장

- ①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손을 씻게 한다.
- ② 채소 등 농산물은 익혀 먹는다.
- ③ 거실 바닥을 자주 물걸레로 닦는다.
- ④ 창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한다.

문 6) 다음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 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일
- 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①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수 있군.
- ②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혈액 채취 결과만 인정이 되군.
- ③ 음주 운전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은 바로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명할 수 있군.
- ④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미만이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군.

문 7) 다음의 날씨 생활 지수를 참고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2008년 ○월 ○일 날씨 생활 지수〉

 <p>빨래지수 : 20 잘 마르지 않아요</p>	 <p>외출지수 : 30 가급적 외출을 피하세요</p>
 <p>세차지수 : 20 세차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요</p>	 <p>우산지수 : 70 휴대 편리한 우산으로 준비</p>

- ① 학교 가는 아이에게 우산을 챙겨 준다.
- ② 친구를 만나서 가까운 산에 오른다.
- ③ 먼지가 쌓인 차를 구석구석 닦는다.
- ④ 이불 빨래를 한다.

문 8) 다음 전입신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입 국외이주 재등록) 신고서
 접수 번호: 0227 신고일: 2008년 3월 2일

새로 살 곳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구성 <input type="checkbox"/> 다른 세대로 편입 <input type="checkbox"/> 세대합가	전세대 주 또는 본인	홍명희 서명(인)	
	세대주	성 명 홍길동 서명(인)	신고인	성 명 이순희 서명(인)	
	주민등록 번호	760420 - 1000000		주민등록 번호	781212 - 2000000
	전화번호	041-777-1111	세대주와 의 관계	아내	
주소	충청남도 당산시 사당1동 331번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통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신고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① 이 서식은 국내 전입신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반드시 세대주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 ③ 허위로 신고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④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 9) 서울에 사는 철수는 울릉도에 사는 영희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선물의 무게는 5kg 이며,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cm입니다. 철수가 지불해야 할 요금은 얼마입니까?

<우체국 택배 요금표>

무게 (크기)	2kg까지 (60cm까지)	5kg까지 (80cm까지)	8kg까지 (100cm까지)	10kg까지 (120cm까지)
동양지역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타지역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도서지역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 주의사항 :

1.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을 말함.
2. 무게와 크기 중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해당 하는 요금이 적용됨.



- ① 5,000원
- ② 6,000원
- ③ 7,000원
- ④ 8,000원

문 10) 다음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 약 복용 시 알아야 할 기초 상식 >


- (가) 약은 일반적으로 식후 30분에 먹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 (나) 기침약, 콧물약, 종합 감기약의 효과는 다 다르다. 어떤 약이든 자신의 증상에 맞는 구체적인 약효를 알고 복용해야 한다.
- (다) 약은 물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우유나 주스와 먹는 것은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 (라) 약국에서처럼 상온 보관하면 된다. 약에 따라서는 냉장고 안에 둘 경우 습기 때문에 변질되기도 한다.



- ① 모든 약은 식후 30분에 복용해야 한다.
- ② 약은 우유나 주스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③ 기침 감기에 종합 감기약을 먹으면 기침약을 먹은 것과 효과가 같다.
- ④ 남은 약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문 11) 다음 공지 사항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목	[공지 사항] 봉투 가격 인상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08-03-12



'봉투나라' 에서 알려 드립니다.
 2007년 10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종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저희 '봉투나라' 에서도 부득이 가격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4월 20일부터 가격이 오르는 상품은 대봉투와 중봉투입니다. 소봉투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① 이 공지 사항은 '봉투나라'의 관리자가 작성한 것이다.
- ② 봉투 가격은 위의 공지 사항이 작성된 날부터 인상되었다.
- ③ 봉투 가격 인상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 ④ 모든 종류의 봉투 가격이 인상되었다.

문 12) 다음은 2008년 4월 9일의 선거 때 배포된 '투표 확인증'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투표 확인증 이용 안내

- 사용 가능 시설**
-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선거 당일만 이용 가능),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 지역 제외)
- 유효 기간** 2008년 4월 9일 ~ 4월 30일
(시설별 사용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방법**
-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분은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할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 금액은 2,000원 이내입니다.
 - '투표 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 '투표 확인증'은 도난, 분실,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추가 배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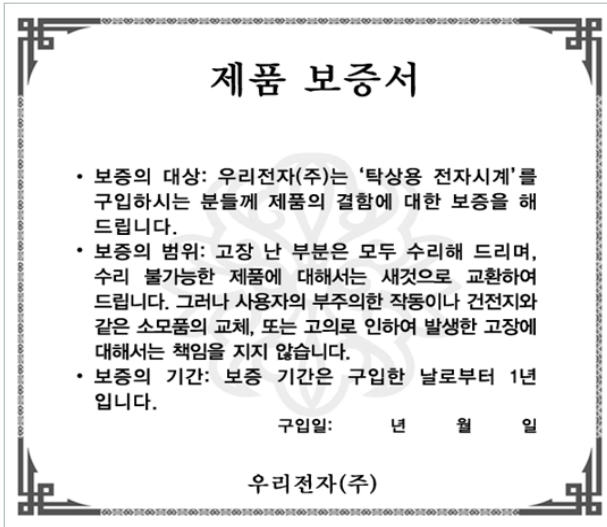
- ① 나는 확인증이 두 장 있으니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겠네요.
- ② 오늘은 4월 30일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 ③ 이 주차장은 할인이 안 될지 모르니 미리 물어봐야 해요.
- ④ 확인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발급해 주겠지.

문 13) 다음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통장 입금증					고객용
입금일자	2008년 3월 3일				
은행명	세계은행			송금수수료	500원
계좌번호	802-03458-77893			금액	30,000원
받는분(예금주)	김명자				*상기와 같이 입금되었습니다. 행복은행
보내는분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1234-5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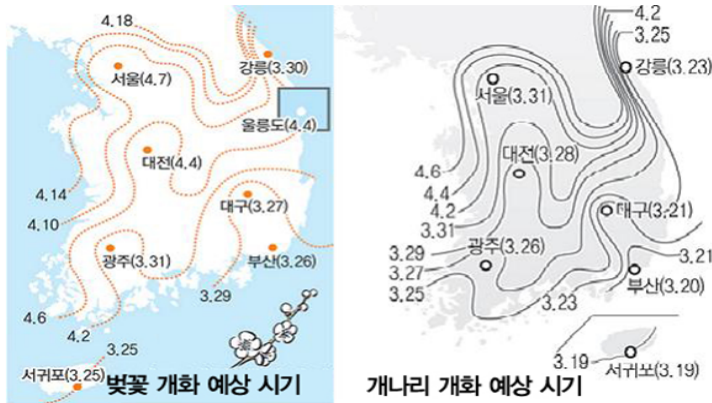
- ① 이 서식은 통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② 홍길동 씨는 김명자 씨에게 송금을 하고 있다.
- ③ 홍길동 씨가 보내려는 돈은 30,500원이다.
- ④ 홍길동 씨는 세계은행에서 송금을 하고 있다.

문 14) 다음은 탁상용 전자시계에 대한 제품 보증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사용자의 부주의로 생긴 고장에 대해서도 수리에 준다.
- ② 보증 기간 동안에는 건전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③ 고장 난 제품은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 ④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은 새것으로 교환해 준다.

문 15)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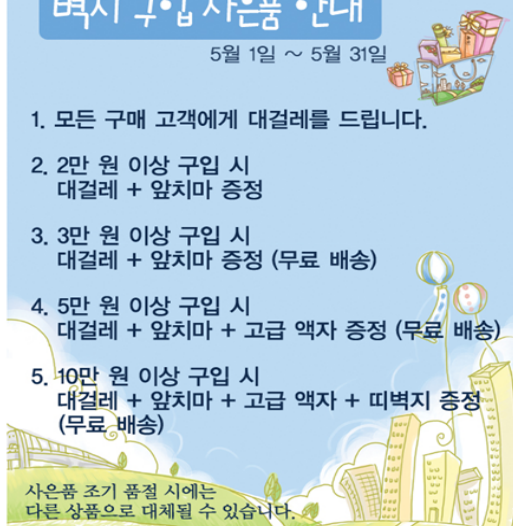
- ① 주요 도시의 꽃이 피는 날짜를 표시한 지도다.
- ② 동남쪽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
- ③ 벚꽃이 개나리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핀다.
- ④ 강릉이 대전보다 꽃이 더 일찍 핀다.

문 16) 다음 안내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벽지 구입 사은품 안내
5월 1일 ~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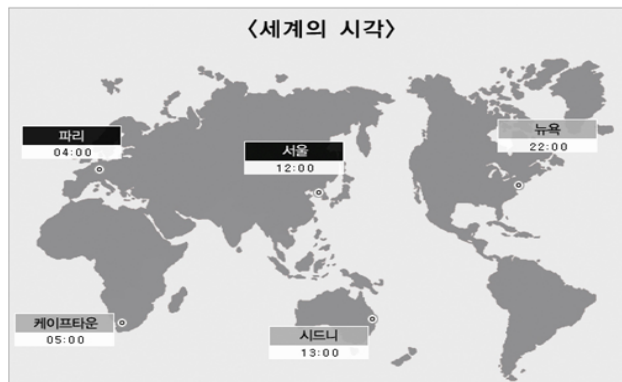
1. 모든 구매 고객에게 대걸레를 드립니다.
2. 2만 원 이상 구입 시
대걸레 + 앞치마 증정
3. 3만 원 이상 구입 시
대걸레 + 앞치마 증정 (무료 배송)
4. 5만 원 이상 구입 시
대걸레 + 앞치마 + 고급 액자 증정 (무료 배송)
5. 10만 원 이상 구입 시
대걸레 + 앞치마 + 고급 액자 + 락벽지 증정
(무료 배송)

사은품 조기 품절 시에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① 무료 배송을 받으려면 5만 원어치 이상을 사야 된다.
- ② 벽지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대걸레를 준다.
- ③ 10만 원어치 이상을 사면 네 종류의 사은품을 준다.
- ④ 조기 품절 시에는 사은품이 다른 물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문 17)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경기가 열린다면 현지 시각은 몇 시입니까?



- ① 오전 3시
- ② 오전 6시
- ③ 오후 6시
- ④ 오후 3시

문 18) 다음 구인 광고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사 원 모 집 〉

모집 기간	2008년 2월 10일 ~ 2008년 3월 9일
모집 대상	신 입
모집 부문	품질관리 0명
지원 자격	대졸(예정)자로서 자연계열 관련 전공자
선발 방법	서류 전형 후 면접(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부착) 2. 자기 소개서 3. 고교 및 대학 성적 증명서 4.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금 이	회사 내규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 및 주 5일 근무
제 출 처	㈜영월산업 (우)120-345 강원도 영월군 우리면 산 2번지 전화번호: 033-667-6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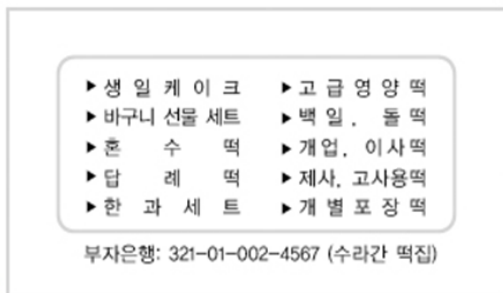
- ① 내 전공이 화학이니 지원 가능하겠군.
- ② 남녀를 차별 대우하다니 한심하네.
- ③ 아니, 월급이 얼마쯤인지도 모르고 지원해야 하다니.
- ④ 일주일에 이들은 설 수 있겠군.

문 19) 다음 명함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앞면 〉



〈 뒷면 〉




- ① 상품 가격
- ② 상점 이름
- ③ 상점 주소
- ④ 상품 종류

문 20) 다음 안내문에 나온 ‘부리’는 아래 국어사전의 몇 번 뜻풀이에 해당합니까?

< 안내문 >

이름	국보 제96호 청자거형수병(靑磁龜形水瓶)
시대	고려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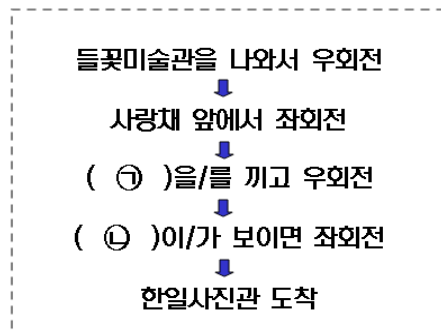
고려 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거북을 형상화했으며, 물을 넣는 수구(水口), 물을 따르는 **부리**, 몸통, 손잡이로 구성 되어 있다.

< 국어사전 >

<p>부리¹ ㉠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 길고 뾰족하며 보통 뿔의 재질과 같은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다. <예> 부리로 쪼다. ㉡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 <예> 소매의 부리/총의 부리. ㉢ 병과 같이 속이 막혀 있는 물건에서 한 쪽 끝이 터진 부분. <예> 병의 부리/주전자 부리. ㉣ 사람의 입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늘 이놈의 부리가 말썽이다./부리를 닦쳐라.</p>	➡	① 뜻풀이 ‘①’
	➡	② 뜻풀이 ‘②’
	➡	③ 뜻풀이 ‘③’
	➡	④ 뜻풀이 ‘④’

문 21) ‘들꽃미술관’에서 ‘한일사진관’으로 가기 위한 길을 메모했습니다. ㉠과 ㉡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약도 >



- | | |
|--------|--------|
| ㉠ | ㉡ |
| ① 하늬바람 | 모자이크 |
| ② 여우비 | 장난감박물관 |
| ③ 여우비 | 소나무향기 |
| ④ 가을이네 | 장난감박물관 |

문 22) 다음 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노인복지기관 관련자, 실버산업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 교육 기간: 2008년 1월 10일부터
- 교육 장소: 경기도청 3층 대회의실
- 교육 비: 전과정 5만 원, 개별 과정 각 1만 원, 특강은 무료!!
- 교육 문의: 222-6026

◎ 교육 내용

	교육일시	강의주제	강사	비고
1	1월10일(화) 15:00 ~ 17:00	문화 마케팅 전략	김수미(문화부)	특강
2	1월16일(월) 14:00 ~ 16:00	'행복도시락' 사례 분석	서진수(행복닷컴)	
3	1월16일(월) 16:00 ~ 18:00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	윤승원(백재대)	
10	2월12일(금) 16:00 ~ 18:00	노인의 눈으로 보는 영화와 방송	김정호(영화감독)	특강
11	2월 중	사업 아이디어 발표회	미정	
12	2월 말	해외 사례 탐방		
13	3월 초	해외 탐방 결과 보고회		

* 개별 신청 선택 가능

- ①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 ② 교육은 특정 요일에 실시된다.
- ③ '노인의 눈으로 보는 영화와 방송' 특강은 서진수 씨가 강의한다.
- ④ 5만원을 내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문 23) 다음 공익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그곳이 다른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한국고령화위원회

- 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 ②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 ③ 공공장소에서는 전화 예절을 지켜야 한다.
- ④ 공공장소에서는 떠들지 말아야 한다.

문 24) 다음은 신간 안내 기사입니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 신간 안내 >



만화 16권으로 읽는 원고지 3만장

▲ 만화 '토지'...오세영 글·그림

박경리의 소설 '토지'가 만화로 만들어졌다. 소설 '토지'는 조선왕조의 붕괴, 일제 침략과 식민 통치, 근대화 과정 등 방대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만도 700여 명에 이른다.

만화 '토지'는 만화가 오세영이 전 16권으로 그려냈다. 소설이 완간되기 전 드라마로 만들어진 적도 있으나, 만화가 주는 맛은 따로 있다. 거칠고 투박한 소설 속 인물들의 표정과 말투가 입체적으로 그려졌다. 너무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았다면, 원작을 읽기 전에 먼저 만화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총 5부 16권 가운데 1부 7권이 먼저 나왔다.

- ① 만화 '토지'의 글은 박경리 씨가 썼다.
- ② 소설 '토지'는 만화 '토지'의 출간과 동시에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 ③ '토지'에는 7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 ④ 16권의 만화 '토지'가 한꺼번에 출간되었다.

문 25)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편성표입니다. 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 TV프로그램 안내 >

		HD 방송	음성다중	자막방송	
2008년 4월 5일 토요일					
오전	제목				시청등급 다시보기
06:00	KBS 뉴스광장	자			
07:40	피노키오	자		7세	
08:10	후토스-하늘을 나는 집	HD 자			
08:30	아침마당	HD 자			
09:30	KBS 뉴스	HD			
10:00	걸어서 세계속으로	HD 자			
10:55	TV동화 행복한 세상	자			
11: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자			
오후	제목				시청등급 다시보기
12:00	KBS 뉴스	HD 자 다			
12:10	국악 한마당	자			
13:00	열린채널	자			
13:30	TV는 사랑을 싣고	자			
14:25	KBS스포츠 프로야구 경기	HD 자			

- ① '피노키오'는 7세 이상이면 모두 시청할 수 있다.
- ② 낮 12시 뉴스는 자막 방송을 하지 않는다.
- ③ 'TV는 사랑을 싣고'는 다시 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④ 야구 중계는 오후 2시 25분에 시작한다.

총괄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집필진	김덕호(국어민족문화과 학예연구사)*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정희창(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양명희(동덕여대 교수) 김진해(경희대 교수) 이충현(한국외대 교수)
감수	민현식(서울대 교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 보고서

인쇄일 | 2009년 8월 29일

발행일 | 2009년 9월 1일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어민족문화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02)3704-9723, FAX : 02)3704-9429

www.mcst.go.kr

인쇄처 | 크리홍보(주) 02)737-5377